

제343회 국회 (임시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 3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6년6월29일(수)

장 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업무보고(계속)
  -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 및 소속기관
- 2. 소위원회 구성의 건

**상정된 안건**

- 2. 소위원회 구성의 건 ..... 1
- 1. 업무보고(계속) ..... 2
  -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 및 소속기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유성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제1항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및 19개 소속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제2항으로 소위원회 구성의 건 의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결정족수가 충족된 상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먼저 의결한 후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소위원회 구성의 건**

○위원장 유성엽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우선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57조에 근거하여 2개의 법안심사소위원회와 1개의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회법 제125조에 따라 1개의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 21일 위원장과 3당 간사가 만나서 각 소위원회의 전체 위원 정수, 위원장 및 교섭단체별 인원 배분 등에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각 교섭단체별로 위원명단을 제출받아 마련한 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부 소관 법안심사를 담당할 교육법안심사소위원회는 총 10인으로 구성하는데 새누리당 이장우 간사께서 소위원장을 맡고 위원 수는 새누리당 5인, 더불어민주당 4인, 국민의당 1인으로 하며, 다음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소관 법안의 심사를 담당할 문화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심사제2소위로 약칭합니다—역시 총 10인으로 구성하는데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간사께서 소위원장을 맡고 위원 수는 새누리당 5인, 더불어민주당 4인 및 국민의당 1인으로 하고, 다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총 9인으로 구성하는데 국민의당 송기석 간사께서 소위원장을 맡고 위원 수는 새누리당 4인, 더불어민주당 4인 및 국민의당 1인으로 하며 마지막으로 청원심사소위원회는 총 6인으로 구성하는데 새누리당 염동열 위원께서 소위원장을 맡고 위원 수는 새누리당 3인, 더불어민주당 2인 및 국민의당 1인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4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그리고 향후 각 소위원회의 위원 변경은 국회 법 제48조에 따라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의 요청을 받아서 개선하게 됨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1. 업무보고(계속)**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재청 및 소속기관**  
(10시08분)

○**위원장 유성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및 제19개 소속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각 기관으로부터 일괄하여 보고를 받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간은 각 기관의 보고 자료가 사전에 의원실에 배포가 되었고 보고 기관 수가 21개로 많으므로 각 기관의 현안 또는 중점 사업을 위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은 각 8분 이내에, 19개 소속기관은 각 3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김종덕 장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존경하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입니다.

먼저 20대 국회 개원을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렇게 새로 구성된 교문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체육관광부의 2016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첫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는 올 한 해 동안 문화 융성을 통한 창조경제 및 국민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현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부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정관주 제1차관입니다.
- 김종 제2차관입니다.
- 송수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 박영국 문화예술정책실장입니다.
- 윤태용 문화콘텐츠산업실장입니다.

- 원용기 중무실장입니다.
- 김재원 체육정책실장입니다.
- 황명선 관광정책실장입니다.
- 유동훈 국민소통실장입니다.
- 최병구 대변인입니다.
- 현완교 감사관입니다.
- 공형식 정책기획관 직무대리입니다.
- 박영오 비상안전기획관입니다.
- 이형호 문화정책관입니다.
- 우상일 예술정책관입니다.
- 문영호 문화기반정책관입니다.
- 최보근 콘텐츠정책관입니다.
- 박태영 저작권정책관입니다.
- 한민호 미디어정책관입니다.
- 심동섭 체육정책관입니다.
- 김영수 체육협력관입니다.
- 김태훈 관광정책관입니다.
- 이우성 국제관광정책관입니다.
- 박정렬 홍보정책관입니다.
- 이계현 홍보콘텐츠기획관입니다.

(간부 인사)

- 다음은 소속기관장입니다.
- 김봉렬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입니다.
- 이영훈 국립중앙박물관장입니다.
- 송철의 국립국어원장입니다.
- 임원선 국립중앙도서관장입니다.
- 김갑수 해외문화홍보원장입니다.
- 김해숙 국립국악원장입니다.
- 천진기 국립민속박물관장입니다.
- 김용직 대한민국의역사박물관장입니다.
- 김철민 국립한글박물관장입니다.
- 안호상 국립중앙극장장입니다.
- 바르토메우 마리 국립현대미술관장입니다.
- 류현순 한국정책방송원장입니다.
- 방선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입니다.
- 전병극 예술원 사무국장입니다.

(소속기관장 인사)

그러면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추진계획 및 주요 현안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성엽** 장관님, 간부 소개하다 보니까 3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3분은 빼 드리고 다시

8분을 드릴 테니까 차분하게 보고하세요. 서두르지 마시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11쪽입니다.

첫째, 문화창조융합벨트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입주기업의 윈스톱 사업화와 융복합 콘텐츠 창작 지원으로 문화창조벤처단지를 문화산업의 글로벌 허브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전문 인재 양성을 통해 문화산업이 창조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둘째, 차세대 핵심 콘텐츠를 발굴 지원하겠습니다.

콘텐츠펀드 조성·확대 등 문화산업 분야의 투융자 금융지원을 통해 콘텐츠 기업의 성장과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개방형 전자책 유통협업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내 전자출판산업 시장을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셋째,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행주간 내실화 등으로 국내관광 수요를 확충하고 규제개선 등을 통해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 대표 관광산업 육성과 관광안내 서비스 강화 등 관광환경을 개선하여 방한관광객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넷째, 스포츠산업 시장 및 외연을 확대하겠습니다.

스포츠펀드와 스포츠산업체에 대한 용자를 확대하여 스포츠 강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프로스포츠구단에 대한 성과 평가를 통해 주체단체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고 회원제 골프장의 대중제 전환 지원 용자 신설 등을 통해 골프 대중화를 촉진시킬 예정입니다.

28쪽입니다.

다섯째, 잠재적 창의인재 배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학교 예술강사 파견을 확대하고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미술·음악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인문학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독서캠페인 실시 등을 통해 독서 열기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여섯째, 창조핵심인력을 발굴·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습니다.

기초 창작 인력을 양성하고 저소득·고위험 예술인에 대한 복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단체 통합과 연계, 체육개혁 제도정비를 완결하고 엘리트 체육선수들의 훈련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일곱 번째로 창작자 중심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게임물 자체 등급 분류제를 확대 실시하고 게임산업의 창작환경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저작권보호원을 설립하여 저작권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보호와 공정한 계약환경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38쪽입니다.

여덟 번째, 문화가 있는 날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의 범제화를 계기로 국민의 자발적 참여와 체험의 비중을 한층 높여 나가겠습니다.

생활 점점 시설에서의 주민자치 문화예술동호회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특화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1쪽입니다.

아홉 번째, 생활 속에서 문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 확대, 예술파출소 신설 등으로 일상 속 문화 참여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확대로 국민들의 도서관 이용 편의를 높이고 지역스포츠클럽 효율화와 생애주기 생활체육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열 번째, 수요자 맞춤형 문화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의 가맹점을 확대하여 이용 편리성을 높이고 찾아가는 공연 등을 통해 지역 및 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 향유 격차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 유·청소년 대상 스포츠강좌이용권 수급대상을 확대하고 어르신이나 장애인의 예술 및 스포츠활동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49쪽입니다.

열한 번째, 한국적 가치의 세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 홍보를 확산하고 한국적

가치와 한국인 일상의 삶을 세계에 소개 및 한식·한복·한지 등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53쪽입니다.

열두 번째, 한류를 통한 글로벌 접점을 확대하겠습니다.

해외 유망시장 전략적 진출을 지원하는 등 한류의 지속적 확산을 통해 우리 산업 전반에 세계 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문화 확산 및 문화교류의 전진기지 확충으로 세계와 소통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어서 주요 현안 과제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첫째, 문화창조융합벨트 추진입니다.

문화창조융합벨트의 6개 거점 중 조성이 완료된 3개 거점을 본격 가동하여 우리나라를 대표할 융복합 콘텐츠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까지 케이 컬처 벨리 등 모든 거점조성을 완료하고 문화창조융합벨트가 콘텐츠산업 도약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둘째, 2016년 리우올림픽 및 패럴림픽 참가 관련입니다.

대한민국 선수단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올림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브라질에 지카바이러스 등 질병 및 치안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사전예방과 현지 지원에 초점을 두고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계획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선수단이 최고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선수촌에 격려차 방문해 주시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65쪽입니다.

셋째, 중국 단체관광 시장 개선입니다.

불합리한 저가 중국 단체관광 시장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전담 여행사 상시 퇴출제 등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고, 방한 상품의 질적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중국 정부와 한중 관광 시장 품질 향상을 위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주요 업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부가 추진하는 이 모든 일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부가 추진해 온 정책들에 대한 충고와 지적에 대해서는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성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청 나선화 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장 나선화 존경하는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0대 국회 개원에 따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재청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문화재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영근 기획조정관입니다.

이경훈 문화재정책국장입니다.

김홍동 문화재보존국장입니다.

김대현 문화재활용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소속기관입니다.

김재열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입니다.

최맹식 국립문화재연구소장입니다.

최종덕 국립고궁박물관장입니다.

이귀영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소장입니다.

강경환 국립무형유산원 원장입니다.

(소속기관장 인사)

다음으로 배포하여 드린 보고서에 따라 문화재청의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과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올해 우리 문화재청은 문화유산 가치 증진 및 국민 공감 확산, 문화유산 전송 및 관리강화, 정책품질 향상 및 국민참여 확대, 세계유산 확대 및 국제협력 강화를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정책성과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0쪽입니다.

궁중문화축전, 창덕궁 달빛기행 등 궁궐별 특성에 맞는 대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문화유산의 현대적 가치를 재창조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운영과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문화유산교육 등을 통해 생활 속 문화유산 교육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신라·백제 등 천년고도 핵심 유적 정비와 지역문화유산 지원 발굴 및 활용을 통하여 지역문화유산 활성화 및 관광자원화에 힘쓰겠습니다.

14쪽입니다.

고궁과 조선왕릉의 역사성 복원을 통한 가치 회복과 동학농민혁명 유적의 가치 제고 및 확산 등 문화유산의 보존·전승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문화재 상시점검 수준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문화재 재난 안전망 고도화 등을 통하여 문화재의 예방적 관리를 지속적으로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문화유산 디지털정보 축적 및 공개 활성화와 융복합기술을 활용한 보존·복원 연구성과 창출 등을 위해서 문화유산 연구와 기록관리를 강화하고 정보공개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문화재와 국민이 상생할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생활 주변의 문화재 규제 합리화를 통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문화재 규제의 합리화와 국민의 편익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창의적 문화재 관리제도를 통한 정책품질 향상과 더불어 법령과 현실적 제도 운영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개선하는 등 선진적 문화재 정책에 힘쓰겠습니다.

21쪽입니다.

기업의 문화재 분야 사회공헌 활성화와 문화재 지킴이의 운영 개선 및 교육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는 등 문화재보호를 위해 기업과 국민참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홍보와 동시에 세계유산을 지속적으로 발굴 확대하고 저개발국가에 대한 공적개발원조사업 참여 등 세계유산의

전략적 등재 및 국제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국외문화재 환수를 위하여 국외 소재 문화재 출처조사 등을 확대 강화하고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의 원형 복원 및 전시관 개관을 위해 노력하는 등 국외문화재를 체계적으로 환수·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남북관계 진전 상황에 따라 개성 고려궁성 및 평양 일대 고구려유적 공동발굴조사, 북한 소장 고문헌자료 조사 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동 사업은 향후 남북관계 변화 추이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 국보 1호 변경 국민입법 청원 관련입니다.

시민단체인 문화재제자리찾기와 국어문화운동 실천협의회가 국보 1호 서울 숭례문을 훈민정음으로 교체 요청한 사항으로서 숭례문은 1962년부터 국보 1호로 관리하고 있으며 지정번호는 가치순서가 아닌 관리번호입니다.

2008년 2월 숭례문 화재 시 2층 누각 일부분이 손실되었으나 1층 누각 및 성문육축 등은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서 국보 지위와 가치가 있다고 결정을 하여 현재와 같이 국보 1호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숭례문, 훈민정음 등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가 저마다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 서열을 정할 수 없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0쪽 반구대 암각화 보존 추진 현황입니다.

2013년 6월 사연담으로 인해 침수·노출을 반복하고 있는 반구대 암각화 보존을 위해 관련기관이 가변형 임시 물막이 설치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동안 가변형 임시 물막이의 안전성을 검증해 왔고 최근 검증 과정에서 투명막의 이음매에 누수가 발생하여 검증이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물막이 설치 중단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모든 기관이 반구대 암각화를 보존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으므로 암각화 보존을 위한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정부 입법계획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성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예술종합학교 김봉렬 총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김봉렬 안녕하십니까?

오늘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학교의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총장 김봉렬입니다.

우리 학교는 대학교육기관인 동시에 문화예술 콘텐츠를 생산하는 창작기관이기도 합니다. 교육과 문화의 두 방면에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올해의 주요 업무계획과 현안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5년 주요 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3쪽~21쪽까지의 내용입니다.

2016년 올해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화예술 생태계를 조성하고 2025 캠퍼스 비전을 구축합니다.

둘째, 융합예술 교육을 활성화합니다.

셋째, 우수 교원을 채용하고 교무·학사제도를 개선합니다.

넷째, 입시제도를 개선하고 관리강화를 통해 공정성을 제고합니다.

다섯째, 문화예술의 국제교류와 협력을 확대합니다.

여섯째, 외부의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대외사업의 문화예술 교육을 활성화합니다.

일곱째, 학생 복지를 강화하고 청년예술가의 사회진출을 지원합니다.

여덟째, 예술영재를 발굴·육성하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아홉째, 서초동교사 증·개축공사를 본격 추진하고 학습공간 환경을 개선합니다.

유인물 23쪽부터 2016년 현안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향 중국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 거점 대학과 상호교류를 통해 중국 전문가를 양성하고 케이 아트 수출 전초기지를 마련하여 케이 클래식 확장을 꾀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상하이 지역 10개 주요 대학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중국의 협력대학과 세부실행 방안을 협

의하여 학생과 교원 교류, 졸업생의 취업과 창업, 한중 합작 예술아카데미, 문화예술 창작 협업 등 구체적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유인물 25쪽입니다.

한예종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여 산학협력을 활성화하려 합니다.

교육부의 문화예술 콘텐츠 지식재산 활용 지주회사 활성화계획과 발맞추어 한예종이 갖고 있는 지식재산과 우수콘텐츠를 사업화하기 위한 기초작업입니다.

산학협력 수익을 창출하여 학교재정에 기여하고 연구·창작에 재투자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의 교육부 회의, 4월의 국무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6월부터 기술지주회사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7월 말경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9월 중에 교육부의 설립인가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성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립중앙박물관의 이영훈 관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중앙박물관장 이영훈 국립중앙박물관장 이영훈입니다.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국립중앙박물관의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2005년 10월 용산의 현 위치에 신축 개관한 저희 국립중앙박물관은 3단, 15과 그리고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13개 소속박물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571명입니다.

2016년도 예산은 1219여억 원으로서 일반회계는 1196억 원, 관광기금으로서 23여억 원이 있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생략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먼저 다양한 국내 전시를 개최하고 관람 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연구성과를 반영한 특별전 및 테마전과 세계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전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전시 관람환경 제고를 위하여 근거리 무선통신을 활용한 안내서비스를 소속박물관까지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속박물관의 시설 확충 사업으로 권역별로 수장고를 건립하고 익산박물관 증개축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소장품을 활용한 우리 문화 국외 소개를 추진하겠습니다.

한국도자명품전을 파리의 그랑팔레와 샹트페테르부르크의 에르미타시박물관에서 개최하겠습니다. 아울러 외국 박물관 내에 있는 한국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소장자료의 체계적 수집·보존과 활용을 강화하고 대내외에 관련 자료를 개방하는 데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국내외에서 필요한 소장자료를 수집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품의 과학적 보존·분석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공·사립 박물관과 외국 박물관에 문화재 보존 처리도 지원하겠습니다.

소장품 DB 구축 및 공개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관리시스템을 공·사립 박물관에 보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장품의 디지털화를 확대하여 공개하고 고화질 화상도 추가로 공개하여서 국민들이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및 연구기능 강화입니다.

먼저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유학기제 등과 연계해서 진로탐색을 위한 박물관 전문직 체험 프로그램 등도 운영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어린이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연간 80만 명이 이용하는 저희 어린이박물관을 어린이들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키우는 공간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 12쪽입니다.

국제교류 강화 및 박물관 홍보입니다. 세계 주요 박물관과 교류를 내실화하여 인적교류·학술네트워크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와 마케팅을 강화해서 박물관을 자주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립국어원 송철의 원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국어원장 송철의 국립국어원장 송철의입니다.

존경하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국립국어원 2016년도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립국어원은 우리말을 바르고 아름답게 가꾸어서 국어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언어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정책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7쪽입니다—국립국어원은 우선 국민의 의사소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어문규범을 정비하고 관리하는 일을 계속하였으며 또 이러한 어문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작년 말에 통과된 한국수화언어법을 기반으로 해서 장애인들의 의사소통 수단인 수화와 점자를 발전을 시키는 일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우리말 어휘를 정리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사전을 편찬해 오고 있는데 현재 국민 참여형 국어사전인 ‘우리말샘’을 편찬하고 있습니다. 이 사전을 올 10월에 마무리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말을 총체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방언조사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방언조사 작업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쉽고 바른 언어가 사용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공언어를 감수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도 앞으로 계속하고자 합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보도자료라든가 신문·방송 등 대중매체의 바른 언어 사용을 감수하는 일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넷째, 국민의 언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국어문화학교를 운영해 오고 있는데 이 국어문화학교의 운영과 교육과정을 다변화해서 좀 더 많은 국민들이 교육의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국민들의 국어 관련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국어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온라인, 전

화, 카카오톡 등 상담창구를 다변화해서 국민들이 누구나 쉽게 이 상담창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한국어 교육과 관련하여 한국어 교원 자격심사를 좀 더 엄격히 하도록 하겠고 또 한국어 관련 기초연구를 계속해서 수행하겠습니다. 또 한국어 교육과 관련해서 교원들의 역량 강화가 필요한데 그런 역량 강화를 위해서 연수 및 재교육 사업을 더욱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세부적인 내용은 제공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어원이 소중한 우리 국어를 잘 가꾸고 주어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고 또 끊임없는 관심을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성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립중앙도서관 임원선 관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중앙도서관장 임원선 국립중앙도서관장 임원선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 2016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법상 국가대표 도서관으로서 우리나라에서 발간되는 모든 자료를 빠짐없이 수집하여 보존하고 국민의 이용에 제공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8쪽의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지식정보자원의 망라적 수집입니다.

최근에 매체유통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매체 중심의 조직을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온라인 자료의 납본을 의무화하는 도서관법 개정 에 따른 후속조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온라인 자료의 체계적 수집 등 고품질 지식정보 자원 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국가지식문화유산 보존 역량 강화입니다.

도서관법 개정 에 따라 도서관연구소를 자료보존연구센터로 확대·개편하여 국가자료보존연구센터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고문헌을 포함, 국가장서의 과학적 보존·복원 및 보존서고 관리의 효율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쪽 이하입니다.

지식문화유산 이용 서비스 고도화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무원 및 국책연구기관 연구자 대상 맞춤형 정책정보서비스 확대와 정책정보자료의 기관 간 공동 활용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서관을 복합문화 공간으로 조성하여 이용편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청소년 및 장애인 도서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다양한 독서진흥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보 취약계층의 독서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지식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대체자료 확충 및 공동 활용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표준이름식별기호 국내 등록기관으로 국가서지 표준화를 추진하고 국가서지 정보의 국내외 개방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3쪽입니다.

도서관계 발전을 위한 지원 협력 및 자원공유 내실화를 위해 도서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으며 세계 주요 도서관 및 국내 공공도서관 협력 사업을 강화하고 도서관 자원을 활용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립중앙도서관 2016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성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외문화홍보원 김갑수 원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문화홍보원장 김갑수 해외문화홍보원장 김갑수입니다.

존경하는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해외문화홍보원의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임무 및 기구 등 일반 현황입니다.

해외문화홍보원은 한국문화의 해외 홍보 및 국가이미지 제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4개 과, 정원 5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 세계 25개국에 29개소의 재외 한국문화원과 12명의 문화홍보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쪽 재정현황입니다.

일반회계와 관광기금을 합하여 2016년도 사업 예산 규모는 약 1557억 정도의 규모입니다.

8쪽에 있는 2016년도 정책 추진방향을 보고드

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세계 속 문화국가로 자리매김’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한국문화의 점점 확대, 대외신 소통 활성화, 수요자 참여형 홍보 강화라는 3대 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쪽부터 14쪽까지입니다.

먼저 한국문화의 점점 확대를 위하여 재외한국문화원의 프로그램 및 인력 지원 확대, 인프라 확충 및 개선을 통하여 문화원을 국가브랜드와 한류의 지속적인 확산 거점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한불 상호 교류의 해’ 사업 등 국가별 주요행사를 계기로 고품격 한국문화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15쪽 대 외신 소통 활성화 사업입니다.

외신지원센터 운영을 통하여 국내 약 260여 명의 상주외신을 대상으로 정부-외신 간 소통 강화를 위한 여러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상시·계기별로 외신 모니터링을 통하여 외신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으며, 해외 언론인 초청을 통한 대한민국 바로 알리기 사업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수요자 참여형 홍보 강화입니다.

국가브랜드 가치 확산 및 한국 소개를 위하여 해외 현지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 해외에 배포하고 있으며 정부대표 해외 홍보용 온라인 플랫폼인 코리아넷을 비롯하여 다양한 SNS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외 한국 관련 오류정보의 발굴 및 시정을 위한 여러 활동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성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립국악원 김해숙 원장님 업무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립국악원장 김해숙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립국악원장 김해숙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국립국악원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립국악원은 1951년 개원한 이래 한국 전통예술의 총본산으로서 서울 본원에 기획운영단 산하 4개 과와 국악연구실, 4개 연주단 그리고 4개 극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 남원, 진도, 부산에

3개의 지방국악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 및 지난해 주요 성과는 책자로 대신 하도록 하겠으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악공연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연장별 특성을 살린 공연을 기획하고 전통음악을 활용한 현대적 국악극 ‘현의 노래’ 등 새로운 작품을 시도합니다. 또한 7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토요일국악동화를 매주 무대에 올리고 가족음악극 ‘만만파파 용피리’ 등 어린이와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로 국민 공감대 형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국악박물관 활성화, 자연음향 공간 구성을 위한 연구 및 포럼을 개최하여 국악의 창조적 계승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국악 보급 및 대상별 맞춤형 국악교육을 실시하여 국악 향유 기회를 넓히고 중장기 관객 개발에 힘쓰고자 합니다. 자유학기제 연계 교육, 국방부·경찰청 국악교육 지원 등을 통해 국악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악 한류 확산을 위한 허브 조성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고품격 콘텐츠를 활용한 해외 공연 및 해외 국악교육 인프라 구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내년 세계현대음악제에 국악 관현악 작품을 최초로 선보이고자 2년 계획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립국악원은 국민들의 문화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여 국악으로 행복한 일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립국악원의 변화와 발전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국립국악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성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립민속박물관 천진기 관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립민속박물관장 천진기 안녕하십니까? 국립민속박물관 천진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국립민속박물관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국립민속박물관은 한민족의 전통생활문화를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민속 생활사 박물관입

니다.

민족 전통문화의 보급 및 선양, 민속 생활사 관련 자료의 수집·보존 및 전시, 인류의 생활양식·풍속 및 관습 등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은 매년 300만 명의 내외 관람객이 찾고 있습니다. 그중에 외국인 관람객이 60%를 상회하고 있어 대한민국의 전통생활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첨병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은 국민과 세계로 다가가는 열린 박물관을 모토로 고객과 소통하고 공공에 기여하고 지역과 함께하며 세계를 향하는 민속문화라는 추진전략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쪽부터 고객과 소통하는 민속문화 구현입니다.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통한 다양한 생활문화 전시를 개최하겠습니다. ‘신이 된 관우 그리고 삼국지연의도’ 전시, 정약용 선생님의 ‘하피첩’ 특별전 등 총 10회의 전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교육, 공연, 행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명절 계기별 세시 및 민속체험 행사를 진행하고 교육대상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열린교육 실현 및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77종 2153회 15만 2367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15쪽입니다.

다음은 공공에 기여하는 민속박물관입니다.

생활문화에 대한 심층적·체계적 조사·연구, 민속자료의 보존관리 강화와 활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근현대 생활문화, 한민족 생활문화, 인류 공통의 생활문화를 조사연구 하겠습니다. 한국민속대백과사전 편찬을 통하여 생활문화 연구를 집대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민속문화입니다.

2007년 제주도로부터 시작된 지역 민속문화의 해 사업은 2016년은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조사, 전시, 행사를 통해서 10년 동안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은 울산 민속문화의 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박물관과 상생발전을 하기 위해서 지역공·사립 박물관과 협력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순회 공동 기획전을 9회 개최하겠습니다. 교육개발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소장품 정리 지원하겠습니다.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지원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네 번째로 세계로 향하는 민속문화 추진입니다. 지속가능한 한류 콘텐츠를 발굴 확산하고 해외 박물관과의 문화교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러시아 우스리스크 고려인문화센터에 한국민속실 설치와 관련해서 아리랑로드 해외 전시전을 개최하고 미국 현지의 8개 도시에 순회하고 있는 미국 어린이박물관 한국문화 전시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일본, 프랑스, 독일 등과 학술교류 및 특별전 공동 개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 박물관 큐레이터를 초청하여 한국문화에 대한 연수와 아울러 우리 관이 추진하는 해외조사 사업에 연계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성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김용직 관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김용직 존경하는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김용직입니다.

오늘 20대 국회에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2016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대한민국 근현대사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 전시, 교육, 관리하는 역사박물관입니다.

저희 박물관은 올해 한 해 동안 문화융성을 통한 역사문화 향유로 국민행복을 증진시키는 현대사박물관의 다양한 활동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목표 수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미리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바탕으로 저희 박물관의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일반현황, 2015년 성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그리고 주요현안 순서입니다.

먼저 1쪽입니다.

첫째, 일반현황입니다.

2008년도 이명박 정부에서 현대사박물관 건립

을 공표하였고 2012년 12월 26일 구 문화체육관광부 건물을 개보수하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개관되었습니다.

저희 기구는 1관·1실·6개 과로 정원 54명이고 2016년도 세출예산은 약 120억 원입니다.

3쪽입니다.

둘째, 2015년 주요 성과입니다.

2015년도는 광복 70년이 되는 해로써 안중근의사 특별전, 언론과의 공동 사업, 학술연구사업, 소장자료집 발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문화행사를 통한 대한민국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였으며 특별전시공간 확충 공사를 통하여 전시관람 환경을 개선하였고 직제개정 및 학예연구실을 신설하여 박물관 기획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2016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역사문화 향유로 국민행복을 증진시키는 현대사박물관으로서 문화융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이를 위해 계기성 있는 현대사 특별전, 상설전시 등을 통하여 균형 있는 역사의식을 함양하고 문화가 있는 날 및 역사기념일 문화행사를 확대하여 열린 역사문화 공간을 구축하고 아울러 국내외 박물관들과 교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넷째,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균형 있는 역사의식 함양에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계기성 있는 현대사 특별전 개최와 상설전시를 개편하고 현대사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여 아카이브를 또한 구축해 나가겠으며 균형 있는 대한민국 현대사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현대사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또 국민들의 기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균형 있는 한국 현대사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다음은 열린 역사문화 공간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관람객에게 친근한 박물관 이미지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역사기념일 문화행사를 확대하고 국내외 홍보채널 다각화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 주요 학술기관과 협력을 확대하고 또 언론사와 공동사업을 추진하며 국내 및 해외 박물관들과 교류 활성화 및 해외교류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다섯째, 주요 현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박물관의 수장공간이 절대 부족해서 파주에 국립민속박물관과 공동 수장고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획재정부로부터 사용예약 승인 상태인 파주 건립부지에 근현대사 관련 주요 유물을 관리하기 위한 수장고와 함께 손상된 자료의 과학적인 보존·복원을 위한 보존과학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박물관과 신설입니다.

학교교육 연계 어린이 관람인원 증가로 어린이 교육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국립박물관 중 어린이박물관 전담 과가 없는 저희 박물관이기 때문에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근현대사 교육을 전담할 전담 과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성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립한글박물관 김철민 관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립한글박물관장 김철민 안녕하십니까?

국립한글박물관장 김철민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대 국회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국립한글박물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쪽입니다.

국립한글박물관은 정원 37명, 3개 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6년 예산은 122억 원입니다. 다가오는 10월 9일에 개관 2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3쪽 2015년 주요 성과입니다.

2015년도에는 시대별, 분야별 균형적인 자료수집을 통해 총 1만 9100여 점을 수집하였고 한글문화, 한글산업, 한글정보화를 연계한 다채로운 전시를 기획 개최하였습니다.

한글문화와 글꼴, 문자에 대한 기초연구 등을 수행하였고 다양한 한글 관련 문화교육 강좌를 개설 운영하였습니다.

4쪽 2016년 추진 전략입니다.

국립한글박물관은 한글가치와 한글문화 확산의

거점기능 수행이라는 목표 아래 박물관 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초역량 강화와 창조적 한글문화 확산을 위한 기반 조성에 더욱 힘쓰고자 합니다.

5쪽 2016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한글의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문자로서의 한글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문자 비교연구 및 문자연구 모임을 운영하는 한편 한글 관련 학술대회 지원 등 학교와의 교류와 협업을 강화하며 글꼴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6쪽 7쪽입니다.

소중한 한글문화자원을 지속적으로 수집함과 동시에 소장 중인 한글자료와 연구 성과를 외부에 적극 공개하고 연구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한글문화의 전파와 성과 공유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한글문화 교육 내실화를 위해 세대를 초월한 내국인 한글문화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주요 국외 기관과의 교류 전시를 추진하여 한글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편의시설 확충 등 지속적인 관람 환경 개선, 흥미로운 문화행사 개최, 내·외국인을 위한 안내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다시 찾고 싶은 박물관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성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립중앙극장 안호상 극장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중앙극장장 안호상 국립극장장 안호상입니다.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국립극장의 2016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일반 현황은 자료로 대체하고 2015년 성과와 2016년 주요 업무 추진 현황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2012년 9월 처음 시작된 저희 국립극장 레퍼토리 시즌은 올해로 네 번의 시즌을 거치며 시즌제 도입 전과 비교하여 공연작품 수와 관람객 수에서 50% 이상 크게 증가하고 객석 점유율도 90% 이상으로 상승하는 등 성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전속 단체는 ‘변강쇠 점찍고 옹녀’ ‘묵향’ 등 우수 레퍼토리 개발로 세계 무대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해외 극장 및 축제 등과 공동 제작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립무용단의 ‘회오리’는 우리나라 최초로 프랑스 칸느 댄스 페스티벌 개막작으로 초청받아 공연하는 등 한국 춤의 미학을 유럽 현지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단원들의 열악한 연습 공간 개선 및 휴게시설 확보를 위한 전속 단체 공연 연습장 건립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5년 공사에 착수하여 올해 9월 준공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 레퍼토리 시즌 운영 계획입니다.

국립극장은 현재 2015~2016 레퍼토리 시즌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충분한 사전 기획으로 연간 프로그램을 조기 확정하고 완성도 높은 우수 작품을 제공연함과 동시에 전통 공연 신작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한국형 시즌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립창극단은 판소리 일곱 바탕의 복원과 판소리 다섯 바탕의 현대화를 통해 전통예술영역을 새로이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흥보가를 ‘흥보씨’로 창극으로 새로 만드는 등 ‘오르페오전’ ‘트로이의 여인들’ 등 해외 명작까지 창극 레퍼토리화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립무용단은 국내외 예술가들과 협업하여 ‘향연’ ‘묵향’ ‘시간의 나이’ 등 우리 춤의 성공적인 작품들을 만들어 꼭 무대에 올릴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국립국악관현악단 역시 창작 국악의 확장을 위하여 상주작곡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국악 창작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 음악의 대중화를 위한 대표 여름 축제로 ‘여우락 페스티벌’을 진행하여 한국을 대표하는 국악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립극장은 예술 인재 발굴 및 관객 개발을 위하여 다양한 예술 체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인 대상의 전통예술아카데미, 교사 직무연수, 외국인 대상의 외국인국악아카데미, 어린이·청소년 대상의 국립극장 창극아카데미 등 연령별·주제별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 개선을 통해서 전통예술에 대한 국민들의 친밀도와 이해도를 높이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공연 공간 개선과 고객 서비스 강

화 부분입니다.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은 올해로 개관한 지 43년이 됩니다. 무대시설 및 객석이 상당히 미비해서 관객들의 가시선 확보가 어렵고 음향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관람 환경이 대체로 불량한 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연면적 2만 5200㎡의 해오름극장 및 부속시설을 전면 리모델링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오름극장이 개보수되면 객석 관람 환경 및 무대 기능 정상화, 조명·음향 등 무대 시스템 등이 전보다 많이 개선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운영계획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17년 설계를 완료하고 2019년 공사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 극장 현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극장은 지하주차장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립극장은 좌석 수 대비 주차장 시설이 예술의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 등 여타 시설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해오름극장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는 2018년이 주차장 공사의 적기로 판단되어 2017년 주차장 사업을 시작하도록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국립극장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성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국립현대미술관 바르토메우 마리 리바스 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이 외국인이므로 보고 내용을 통역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장 바르토메우 마리 리바스 안녕하십니까? 국립현대미술관 관장 바르토메우 마리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공공기관인 국립현대미술관의 첫 외국인 관장으로서 임명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아직 업무보고를 영어로 진행되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현재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었습니다. 현재 저희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세계 일류 미술관으로서의 역량 제고, 둘

째 한국 사회 그리고 이 사회 내에서 중심 미술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즉 국립현대미술관의 사회적 영향력 제고 그리고 해외 방문객 유치입니다. 그리고 셋째, 한국 미술계의 세계화에 대한 기여입니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저희는 우선 보다 높은 수준의 전시 및 부대 활동을 기획하고 사용자 그리고 방문객 중심의 기관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 내의 문화와 예술에 중심을 두며 중심 미술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으며, 다른 부분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12쪽 세계 일류 미술관으로서의 역량 제고입니다.

미술관은 전시, 연구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을 위해 세계 주요 미술관과 협력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이 미술에 대한 세계적인 대화의 장에서 주요 기관으로서 우리 자신만의 목소리를 가지기를 희망해 봅니다. 이를 위해 단순한 수준의 교류를 넘어 높은 수준의 기준과 한국 미술계의 니즈 파악을 기반으로 전시, 출판 그리고 학술 프로그램을 기획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미술관의 3관, 과천관 서울관 덕수궁관은 각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제 임기 동안 3관을 통해 유기적인 전시를 기획하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미술관, 하나의 비전, 하나의 전시, 하나의 팀, 단 3개의 건물을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관을 대표하는 중요한 키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천관은 한국 현대 미술사를 즐기고 이해하는 공간, 서울관은 21세기 미술을 위한 도심의 미술관, 덕수궁관은 한국 근대 미술을 재구성하는 공간,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인 방문객이 3관의 담론과 콘텐츠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미술문화 향유의 중심 역할 강화입니다.

과천관 이전 30주년을 맞아 동시대의 공공 문화유산이자 미술관의 DNA라고도 불릴 수 있는 소장품을 미술관 전시실 중심에 재배치하도록 노

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연구센터를 통해 미술 아카이브 자료를 구축하고 소장 아카이브의 디지털화를 통해 미술 연구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미술 작품의 안정적 관리와 보존·수복을 위해 2018년 12월 개관을 목표로 청주에 국립미술품수장보존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미술관이 직면하고 있는 니즈와 도전 과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세계 유수의 미술관이 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와 공공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또한 재원의 다각화 역시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예직, 기술직의 기술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조직의 필요로 인하여 이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의 운영을 위해 그리고 특히 사용자 즉 방문객 중심의 기관이 되기 위해 진정한 디지털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간략하게나마 미술관의 다양한 노력과 활동에 대해서 보고해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고, 우리 미술관이 국민 행복을 위한 문화정책을 국민의 기대에 맞춰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립현대미술관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성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정책방송원 류현순 원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정책방송원장 류현순**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KTV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KTV 국민방송 한국정책방송원 원장 류현순입니다.

KTV 국민방송은 공공 채널 프로그램을 제작·방송하고 정부 영상물을 기록 보존하며 공공기관 영상물 제작에 대한 협조와 지원을 주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KTV 국민방송은 첫째, 정부 정책의 대국민 소통 강화, 둘째 정책 콘텐츠 확산, 셋째 미래 성장 역량 육성을 큰 방향으로 해서 정

부의 정책을 국민들에게 빠르고 신속하게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 정책 대국민 소통 강화입니다.

국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하기 위해서 버라이어티 요소를 가미한 정책 토크쇼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으며, 정책 브리핑과 국가 주요 행사를 실시간으로 생중계하고 있으며,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제개혁 사례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정부 정책의 혜택을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청년 일자리 찾기 프로그램을 집중 제작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청년 365℃’ ‘성공다큐 人’ ‘공공 일자리를 잡아라’ ‘일대일’ 등입니다. 또한 올해 한국 방문의 해를 계기로 해서 한국 관광 프로그램도 확대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책 콘텐츠 확산입니다.

모바일 위주로 급변하는 매체 환경에 맞추어서 다양한 소통 플랫폼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KTV가 보유하고 있는 중요한 영상 콘텐츠를 민간에서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3.0 정신에 따라 저렴하게 적극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다른 방송매체 등과도 활발하게 프로그램을 교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성장 역량 육성입니다.

국민들의 KTV 채널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채널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으로 방송국을 이전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방송시설과 장비를 현대화해서 방송환경 변화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KTV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KTV가 Korea TV임을 인식시키기 위한 노력과 함께 KTV국민방송 브랜드 홍보 강화 맞춤형 고객서비스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KTV국민방송은 국민과의 소통과 정책 홍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방선규 전당장직무대리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직무대리 방선규**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아시아문화전당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아시아문화전당은 2014년 10월 완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 정식 개관을 하였습니다.

니다.

저희 아시아문화전당 정원은 공무원 조직인 전당이 50명 그리고 콘텐츠를 개발·제작하는 아시아문화원이 96명입니다. 합해서 150명 규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6년 예산 현황은 724억 규모입니다.

5페이지, 저희 아시아문화전당 2016년 정책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예술기관으로서 문화예술 국제교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시아 각국 정부 및 민간 문화예술기관 그리고 작가들 간의 교류를 강화하고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한 예로 아시아창작네트워크가 있습니다. 2015년에 32개국, 47개 기관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40개국, 60개 기관으로 확대할 생각입니다.

둘째, 저희 아시아문화전당은 저희가 가진 연구와 아카이빙을 토대로 창·제작하여 이를 전당에서 시연하고 국내 유통하는 창·제작 중심의 예술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융복합 콘텐츠 기획의 장으로 자체 및 공동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첨단 문화기술과 공학을 접목한 융복합 콘텐츠 공장으로서 창제작센터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창·제작 작품 IP를 확보해서 국내에 유통하는 비즈니스 모델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또 셋째로 저희가 지역에 있는 만큼 지역경제, 지역문화 융성의 거점으로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전당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과 국제 페스티벌 등을 통해서 지역관광,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준 높은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민의 문화적 욕구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저희 아시아문화전당은 이제 막 시작한 어린 싹 같은 기관입니다.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술원 전병극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예술원사무국장 전병극 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장 전병극입니다.

금년도 예술원 주요업무현황을 배포된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대한민국예술원은 우리나라 예술계 대표기관으로서 예술창작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예술가를 선출하여 예우하는 기관으로서 대한민국예술원법에 근거하여 1954년 개원 이래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대한민국예술원은 문학분과, 미술분과, 음악분과, 연극·영화·무용분과 등 4개 분과로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을 두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예술원법상 예술원 회원 정원은 100명이며, 현원은 84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술원 사무국은 1국 2과로 직원은 13명입니다.

2016년도 예산 규모는 총 37억 원 규모입니다.

4쪽입니다.

2015년도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회원의 예술창작활동 지원과 분과별 예술진흥사업, 국제교류사업 등을 실시하였고, 국민들과의 교류의 장도 확대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회원들이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예술강연회를 실시하였으며, 회원 세미나와 국제교류를 통하여 활발한 활동도 펼쳤습니다.

6쪽입니다.

2015년도 신입회원 선출 결과입니다.

연극·영화·무용분과에서 김지미 회원이 새로 선출되었고, 대한민국예술원상은 문학분과의 시인 황금찬 씨, 연극·영화·무용 부문에 극작가 김의경 씨가 수상하였습니다.

또 기관 운영의 폐쇄성 지적에 따라 회원 선출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신입회원 후보자 추천기관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또 회원들의 문화예술 관련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기 위해 정책자문 역할과 지식나눔 활동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7쪽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예술원 회원 신입회원 선출 절차가 진행중에 있고, 7월 1일에 총회에서 인준될 예정이며, 대한민국예술원 수상작도 역시 이번 총회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8쪽입니다.

예술원 회원의 풍부한 예술적 경험을 공유하고, 대한민국 대국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분과별 예술진흥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지난 4월 음악분과의 음악회와 더불어 문학분과 등 주요행사는 하반기에 추진될 계획입니다.

마지막 쪽입니다.

앞으로 회원들의 활발한 예술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세미나, 국제교류, 창작활동 지원 등 다양한 활동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성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김재열 총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김재열**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 김재열입니다.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업무보고를 갖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대학은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전통문화 창달을 목적으로 2000년 개교 이래 6개 학과의 학부 과정과 3개 학과의 대학원 과정을 운영 중에 있으며, 대학본부 1처 3과와 전통문화교육원 2개 과가 있습니다.

2쪽입니다.

교직원인 교원이 38명, 일반 직원 52명으로 총 90명입니다.

학생은 학부생 551명, 대학원생 125명으로 총 676명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3쪽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인건비가 57억, 기본경비가 15억, 주요사업비가 167억으로 총 239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우리 대학교 2016년 정책목표인 이론과 실제적 응용력을 갖춘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과정 경쟁력 확보 등 4개 주요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먼저 교육과정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17년 시행되는 실무융합형 교육 중심의 교육체제 개편을 완료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전통기술소재은행 구축사업 등 대학원 연구과제를 지속 추진하고, 학교기업 설립 확대 등을 통한 학생들의 창업 인큐베이팅 기능도 강화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전통문화교육원에서는 21개의 문화재수리기능자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리종사자 보수교육도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17쪽 교원 확충 및 역량 강화입니다.

교육체제 개편 시행과 연계하여 2018년까지 전임교원 15명 확보를 추진하고, 교원들의 학술연구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우수학생 유치를 위해 특별전형 확대 등 입학전형을 개선하였으며, 학생들의 취업률 제고를 위해 취업지원센터 신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쪽 교육·연구 인프라 개선입니다.

대학원생 기숙사 건립 공사를 금년 말까지 마무리하고, 대학원의 부족한 실험·실습실 확충을 위해 종합연구관 신축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입니다.

문화유산교육 교류협력 강화입니다.

국립로마박물관 등 선진특성화대학과 학술교류를 확대·내실화하고, 문화유산 국제공헌 활동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성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립문화재연구소 최맹식 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장 최맹식** 국립문화재연구소장 최맹식입니다.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국립문화재연구소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구소는 문화재에 관한 학술조사·연구 및 과학적 보존기술의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1969년 문화재관리국 내 문화재연구실로 발족했습니다.

현재는 180명 정원에 현원 166명, 고고·미술·건축·자연·복원·보존과학 분야 6개 실과

2개 과, 1개 센터와 5개의 지방연구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주요성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국사 삼층석탑 등 중요석탑의 수리·복원, 이순신 장검 등 중요유물의 보존처리를 실시했습니다.

국내 최대 장수하늘소 표본, 조선왕릉 정밀기록화 완료 등 중요 학술정보 확보와 고고자료의 발견, 보존·복원 연구와 정책 현장 지원을 두루 수행했습니다.

다음으로는 2016년도 저희 연구소 업무보고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중점 목표는 한민족 핵심유적의 역사문화 가치 규명, 둘째 전통문화의 과학적 분석과 연구, 셋째 문화재 과학적 안전관리 연구, 넷째 연구 네트워크 활성화 및 국제 영향력 강화입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역사문화의 가치를 규명하고자 세계유산 도시인 경주, 부여, 익산 등 고도의 보존·복원 연구를 추진하여 고대문화의 진정성 있는 복원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둘째, 문화재 과학적 분석을 통한 소재기법의 원리를 규명하고자 고대 제철기술 복원과 문화재 접착재료 개발, 중요석탑 수리복원 연구 등을 추진, 문화재 수리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문화재 맞춤형 보존·복원의 방법론을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재 제작기술 확보와 수리복원기술 개발 등을 통해 제작기술의 이전, 보급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인돌 연대측정 등 고고과학 분석연구 및 데이터를 축적하고, 문화재 편력 및 고대 생활문화 복원 등을 문화유산 콘텐츠로 연계, 문화유산을 활용하는 선도적인 연구 수행을 하겠습니다.

셋째, 국보·보물 등 중요문화재를 대상으로 상시 안전점검과 정기 조사를 강화하여 문화재 안전관리 연구를 개발·심화하고, 보존환경 변화에 따른 안전성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예방, 보존관리를 현실화하겠습니다.

자연유산 분야에서는 남생이, 물거미 등 멸종위기 천연기념물의 증식과 서식지 보존관리 연구에 힘쓰겠습니다.

넷째, 문화유산 보존연구의 축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문인력 교류, 공동연구협력, 교육기술 지원 등 국내외 연구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등 연구분야와 범위의 확대를 통해 국제적 영향력을 확산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현안입니다.

신라 왕경 복원을 위한 월성 발굴조사는 정비·복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발굴조사 성과를 국민과 지속적으로 공유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재의 과학적 안전관리 연구를 추진하고자 건축문화재의 예방·보존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및 기반시설 구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국립문화재연구소 업무보고를 마치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성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립고궁박물관 최종덕 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고궁박물관장 최종덕 안녕하십니까?

국립고궁박물관장 최종덕입니다.

유성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립고궁박물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립고궁박물관은 조선왕실 및 대한제국황실의 문화와 유물을 조사·연구하고, 보존·관리하며, 전시·교육하는 조선왕실 전문 박물관입니다.

조직은 3개과 40명이며, 예산은 114억 원이 있습니다.

소장유물은 국보 1점, 보물 153점을 비롯하여 약 4만 5000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5년 주요성과로는 먼저 조사·연구분야에서 국조보감, 궁중보자기 등 소장품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를 했고, 국역 황태자가례도감의궤 등 4권의 연구서를 발간했습니다.

보존·관리분야에서는 퇴락의 정도가 심한 유물 318건을 보존 처리했고, 주요유물 2점을 복제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조선왕실 유물 96점을 새로 구입하였습니다.

전시분야에서는 상시 개최하는 상설전과 별도로 3건의 특별전과 4건의 테마전을 선보였습니다.

교육분야에서는 왕실문화와 관련하여 44종, 702회의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약 1만 620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016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2014년까지 해오던 소장품에 대한 조사·연구 및 연구서 발간, 퇴락 유물에 대한 보존처리, 주요 유물 복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한 전시 및 교육 이외에 다음 세 가지 사항에 대해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 고객과 함께 하는 열린 박물관입니다.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수장고 속 유물을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매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수장고 및 보존처리 현장을 박물관 최초로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둘째, 왕실문화재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대한제국 황실 서양 유물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 관 소장 어보 및 어책이 2017년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왕실문화 향유기회 확대입니다.

유아, 청소년, 중년, 노년 등 각 세대에 적합한 왕실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프로그램 일부를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박물관 밖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관이 소재한 종로구청을 통해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모니터링한 후 내년부터 타 지자체로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적·공간적 한계로 교육 기회를 접하기 어려운 국민을 위하여 인기 강좌를 온라인으로 개설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립고궁박물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성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이귀영 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 이귀영 안녕하십니까?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 이귀영입니다.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이런 보고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6년도 저희 연구소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소는 신안선 발굴을 계기로 1994년 설립되었으며 해양문화유산에 대한 조사·연구 및 전시·교육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수중발굴과 등 4개 과에 정규직 63명이

며 금년도 예산은 140억 원입니다.

국내 유일의 수중발굴전문기관으로서 현재 수중발굴전용선 2척을 운영하고 있으며 약 4만 9000여 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주요 성과로는 마도4호선, 대부도2호선 등을 수중발굴·조사하고 411점의 유물을 인양하였으며 강화도 해역 등 수중문화재 발견 신고 해역 44건의 탐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올해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첫째, 수중문화유산 연구기반 시설 및 조직 강화 계획입니다.

충남 태안에 건립 중인 서해수중유물보관동이 내년 7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며 본소 수장고 및 전시실 환경개선 등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수중문화재 발굴조사 및 보존처리 계획입니다.

진도 명량대첩로 해역 발굴조사와 함께 청·일전쟁 당시에 침몰된 고승호에 대한 탐사를 실시하고 수중문화재 탐사기법 개발·연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셋째, 해양문화유산 연구역량 강화를 위하여 전통선박 복원연구와 함께 문화가 있는 날 항해 체험 등 다양한 활용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해양문화유산 홍보 및 품격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한국수중문화재 40년을 주제로 하는 국제교류전을 개최하고 찾아가는 해양문화재, 다문화가족 초청 행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해상전시공간인 가칭 국립해양문화유산전당 조성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 부분입니다.

중국, 서호주, 스리랑카 등과 수중문화유산 조사·보호에 대한 국제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베트남 항·포구 조사 등 국제학술대회, 국제교류전 등을 통해 국제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현안입니다.

올해는 신안 발굴 40주년 되는 해로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해양문화유산에 대한 세계적인 전문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 준공 목표로 추진 중인 충남 태안의 서해수중유물보관동 운영에 따른 인력 및 전시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성엽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립무형유산원 강경환 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무형유산원장 강경환 국립무형유산원장 강경환입니다.

2016년도 국립무형유산원의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립무형유산원은 무형문화재의 체계적인 조사·연구와 전승 지원을 위하여 2014년 공식 개원한 기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4개 과에 정원은 총 43명입니다.

올해 예산은 110억 원이며 전북 전주 서학로 약 6만 여㎡의 부지에 공연장, 전시실 등 7개의 주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쪽 2015년 주요성과 및 평가입니다.

전통공예 활성화를 위하여 전승자의 상품개발을 지원하고 판매 기반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무형유산을 주제로 한 다양한 공연과 전시를 통하여 국내 전통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을 위한 사업을 더욱 내실화하고 전승자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무형유산의 가치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무형문화의 전승 활성화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승자와 디자이너의 협업사업 등 전통공예품의 가치를 현대적으로 계승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한국 무형문화재 주간 등을 통하여 우리 전통문화를 국외에 알리는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무형문화재 전시·공연 기회 확대 등 무형문화재 향유의 저변을 넓혀 나가는 데도 힘쓰겠습니다.

11쪽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승체계 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전승자들이 주관하던 이수심사를 국가가 직접 시행함으로써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승공예품은행제를 도입하여 국내외 문화기관 등에 대여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하여 전통공예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활용도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무형유산 보전 및 전승 기반 구축을 위하여 1800여 건에 달하는 한국무형유산의 종합조사를 실시하여 무형문화재 보호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무형문화재와 관계된 다양한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다양한 무형유산 공연·전시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토요일상설공연, 이수자년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공연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고객 맞춤형 전시 해설, 인류무형유산 테마특별전 등 무형유산을 주제로 한 품격 높은 전시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무형유산을 주제로 한 다양한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무형유산도시사업, 재외동포 무형유산 강습 등 지역 및 해외와의 교류협력사업도 더욱 내실화하겠습니다.

21쪽 주요현안입니다.

무형유산원은 2014년 개원된 신설 기관으로 인지도가 낮고 관람객도 아직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지역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콘텐츠도 더욱 보강하여 무형문화재의 보호·진흥을 위한 세계적인 허브 기관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성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7분씩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오늘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할 때까지 한 네 분 정도 질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혜원 위원님까지 질의를 하고 정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김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世淵 위원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대 국회 첫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문체부

의 주요성과 첫 번째로 문화가 있는 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융성의 대표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했다고 나오는데 실제로 여러 지표들을 보니까 2014년 1월 시작할 때보다는 상당히 많이 좋아진 것으로 나오는데 제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런 면들이 있습니다.

참여율이 2016년도에 38.1%로 나왔는데 실제로 원 자료를 한번 비교해 보니까 문화가 있는 날 인지자가 1440명, 57.6%이고요. 그중에 548명이 참여했다는 통계가 나와서 실제로 전체 조사자를 대상으로 할 때는, 즉 100%의 38.1%가 아니라 57.6% 인지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38.1%이기 때문에 전체에서는 21.9%, 한 2배 정도 부풀리게 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더 내실 있게 진행하셔야 되겠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존경하는 김세연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따갑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世淵 위원 그리고 참여 기업이 90여 개로 크게 확대되었다고 한 점은 좋은 소식인데 90여 개 기업 이름을 죽 보니까 현대차, 신세계, LG, 한화 등 주요 그룹사와 신한은행, 롯데호텔, NC소프트 등 아주 여유가 있는 대기업들, 그러니까 실제로 90여 개 기업으로 확대되었지만 주요 상장사에 국한되다 보니까 문화 향유에 있어서 오히려 양극화가 더 심화돼 버리는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봐 집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을 해 갈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또 대기업들이 이런 일들에 참여하는 것이 전체 확산에 큰 도움이 되고 또 거기 워낙 직원이 많다 보니까 그런 대기업 위주로 MOU를 맺기 시작하면서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작은 기업들이 소외되지 않고 중소기업들이 소외되지 않게끔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金世淵 위원 그래서 문화가 있는 날의 첫 마중물 역할을 그렇게 큰 기업들과 함께 시작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최종 목표가 전체 국민, 특히 중소기업·영세기업까지도 다 손길이 미쳐야 된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예, 그렇게 하겠

습니다.

○金世淵 위원 동시에 또 보면 공공기관과 공기업 참여는 여기서 빠져 있거든요. 문체부에 문의를 하니까 타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체계는 구축이 어떻게 돼 있는지 실태 파악이 잘 안 돼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예.

○金世淵 위원 참여 프로그램 중에서 영화 관람이 62.7%, 거의 영화 관람으로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장르의, 물론 손쉽게 누구나 갈 수 있는 또 인프라도 많이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역시 우리나라 극장 체인이 보면 전에 단독관에서 멀티플렉스로 체인화 되면서, 이게 또 합병이 되면서 주요 사업자 3개로 겨우 남아 있는 이런 상태라서 또 쏠림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고요.

미술관의 경우에 224개 중에서 39개관 만이 오후 6시 이후에 연장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하교시간, 직장인들 퇴근시간 이후에 실제로 방문할 수 있는 문화시설은 아직도 극히 제한돼 있다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안을 드려 보고 싶은 것이 문체부 단독으로 이렇게 사업을 확산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고 봐 집니다. 고용부와 함께 어떤 노력을 해 갈 것인지 지금 시간이 좀 제약돼 있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좀 참고를 해 보실 것이 스웨덴의 경우에 주 30시간 근무로 이행하는 실험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6시간 근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현실에 바로 반영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점은 알면서 한번 상상을 해 보는 겁니다.

옛날에 토요일 근무를 했을 때 오전근무하고 오후에 휴무를 하는 경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수요일에 정시 퇴근하는 것도 안 되는 마당에 수요일 퇴근 이후 시간을 활용하자면 그것이 먼저 급선무일 것이고, 그래서 수요일 오후 근무시간을 점차로 단축시켜 가는 방안은 어떤지 한번 이것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서면보고를 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世淵 위원** 다른 기관들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학기제하고 연계해서 예를 들어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아까 초고해상도 사진자료들 준비하신다고, 전시자료들 온라인화시키는 것 이것은 대영박물관, 루브르박물관 등 해외 유수의 박물관들이 이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것에 발맞춰가는 것은 좋은데 이 부분들이 자유학기제하고 연계되어서, 지금 콘텐츠를 제대로 수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제에서 아직도 그래서 교실에서 수업 듣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문화재청, 앞서 말씀드린 국립중앙박물관, 중앙도서관, 국악원, 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한글박물관, 현대미술관 등등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 교육부와 자유학기제의 프로그램 교류를 할 수 있는, 대부분의 기관들의 경우에 이런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한다고 해 놓고는 학생 몇십 명을 몇 기수 교육시켰다 이렇게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항상 정책의 대상을 자기 전문분야 안에 넣지 마시고, 자기 시설에 방문하는 분들로 국한시키지 마시고 우리나라 전체 학생들, 전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의 확고한 인식이 좀 자리잡기를 바라면서 장관님께서 이 부분은 각별하게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유념하겠습니다.

○**金世淵 위원** 국립국어원에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고어를 복원해서, 이것은 한글박물관하고 같이 진행할 수 있다고 봐지는데, 한글 세계화를 위해서 고어의 발음의 어떤 복원, V나 F 발음의 복원을 우리가 가능하게 한다면 한글 세계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서면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중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유성엽**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고어 복원과 관련된 내용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박경미 위원**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위원입니다.

오늘은 문체부 보고 첫날이라서 덕담을 건네는 수준이고 싶었는데요. 문화재청에 낯선 질문을 제가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청장님,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년 전 문화재청은 위안부 기록물 등재를 위해서 여성가족부·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MOU를 체결하셨지요?

○**문화재청장 나선화** 예.

○**박경미 위원** 그리고 국회에서 공동 토론회까지 개최하셨지요?

○**문화재청장 나선화** 예.

○**박경미 위원** 그리고 청장님, 2년 전 여성신문과의 인터뷰 기억하실 겁니다. ‘위안부 기록물 등재를 위해 여가부와 협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문화재청장 나선화** 예.

○**박경미 위원** 이렇게 적극적이었던 문화재청의 행보,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지난주 여가위 업무보고에서 강은희 장관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은 민간 차원에서 등재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는 문화재청의 조언이 있었다고 언급하셨습니다. 이런 조언하신 것 맞습니까?

○**문화재청장 나선화** 예, 기억합니다.

○**박경미 위원** 정부는 등재 사업이 갑자기 공공영역이 아닌 민간 영역이라면서 발을 빼고 있습니다. 예산 4억 4000만 원도 삭감되었지요. 그 이유는 명백하지요. 작년 12월 28일 이루어진 한일 위안부 협상 때문이겠지요.

결정적인 증거도 있습니다.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 속기록, 지난 1월 12일이네요. 야당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행위가 위안부 합의에서 언급한 비난·비판에 해당하느냐?’ 그러자 기시다 외무상은 어떻게 대답했느냐 하면요 ‘유네스코 등재 신청, 한국 정부가 합의 이행 중이라 적절하게 대응할 것으로 우리는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심증만이 아니라 물증도 있는데 청장님, 갑자기 등재가 민간 영역이 된 것, 위안부 합의와 관련이 없다고 보십니까?

○**문화재청장 나선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박경미 위원** 둘 사이의 관련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니까?

○**문화재청장 나선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성가족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그리고 문화재청이 MOU를 체결하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하자 하고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남아시아 지역, 필리핀을 비롯해서 인도네시아를 비롯해서 동남아시아 지역에 많은 피해자들이 있는데 민간단체들이 같이 협력을 해서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이 좋겠다 하는 내용이 공유된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정식으로 신청이 되면 저희는 등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박경미 위원** 그러면 이게 공적인 영역에서 정부가 추진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성격이 민간 영역으로 바뀐 것이지요? 그리고 동남아 지역 연대도 갑자기 만들어졌나요?

○**문화재청장 나선화** 저희한테……

○**박경미 위원** 그런데 이전에 추진하시던 것과 연결성이 있어야 하는데요 연속성이 없어서요. 그러니까 제가 여쭙 본 것은 이게 갑자기 민간 영역이 된 것하고 작년 12월 28일 위안부 합의가 있었던 것 이 둘 사이의 연관성, 긍정하십니까, 부정하십니까?

○**문화재청장 나선화** 아니요, 저희는 그냥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올리는 일만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다른 의견이나 방향이나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경미 위원** 그냥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해서 올리는 것이 문화재청의 일입니까?

○**문화재청장 나선화** 예.

○**박경미 위원** 일각에서는 위안부 합의와 등재 사업 보류 사이에 어떤 합의가 있었다는 그런 논란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부정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둘 사이에 연관이 없는 것이지요?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재청장 나선화** 예, 한일 협상과는 관련이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관련이 있다는 얘기는……

○**박경미 위원** 예, 관련이 없다고 답하셨습니다.

○**문화재청장 나선화** 예, 알고 있지 못합니다.

○**박경미 위원** 중국은 2015년 난징대학살 기록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또 독일은 아우슈비츠 재판 기록물의 등재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데 현재 위안부 기록물 관련된 문화재청의 업무는 그냥 등재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받

아서 신청해 주는 그러한 역할, 그래서 그냥 아주 기계적인 업무만 수행하시는 겁니다.

○**문화재청장 나선화** 예.

○**박경미 위원** 저는 지난 23일 여가위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쉼터인 평화의 우리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날은 강은희 장관이 등재 사업에 대한 더 이상의 정부 지원은 필요 없다고 발언을 한 날입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제가 안아 드리면서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위안부 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는 것도 가해국의 눈치를 보면서 민간의 일이라고 떠넘기는 정부, 이 정부가 어느 나라 정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23일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브렉시트가 현실화되었습니다. 한·EU FTA가 더 이상 적용될 수 없어서 영국과는 별도 FTA 협상이 필요하고, 그래서 정부 부처들이 바빠졌지요. 아마 문화체육관광부도 고민이 깊으시리라 생각되는데요.

문화부장관으로서 이번 브렉시트 사태를 문화산업과 연관지어서 어떻게 보시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면서 EU가 갖고 있었던 한국과의 FTA 협상의 어떤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시 조정되어야지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수출 비중 자체가 지금 그렇게 크지가 않고, 특히나 콘텐츠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직접적인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화 서비스하고 저작권 분야 같은 경우에 협상이 다시 필요한 것 같고요.

다만 또 한 가지는 관광 분야가 조금 위축되는 그런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영국과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브렉시트 자체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오는 영향일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콘텐츠 산업 부문에 있어서 저희가 그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만약에 FTA를 추진한다면 그 분야에 있어서 저희가 열심히 추진할 것이고 또 모니터링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미 위원** 그 부분 철저하게 대책 세워주시고요.

작년 12월 한·EU FTA 문화협력의정서가 발효되었습니다. 하지만 KOTRA 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한국과 EU 업체가 매우 드문데요. 지금 브렉시트 때문에 이 의정서를 다시 검토해야 될 상황이라는 하지만 우선 현재 의정서가 유효한 시점까지는 제대로 활용하는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이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데 문체부가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지금 시간이 다 되어 가므로 추후 자료로써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 천년고도 경주시 출신 김석기 위원입니다.

정부의 국정지표 중 하나인 문화융성 분야에 대해서 장관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김석기 위원 장관님, 혹시 전 세계적으로 1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도시, 이른바 천년고도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시는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아테네 로마 서안 교토 경주 등 해서 세계적으로도 몇 군데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한 도시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선대의 문화를 잘 보존하거나 복원시켜 문화와 관광을 융성시킨 세계적인 역사문화 도시들입니다.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의 천년고도 경주에도 많은 국민들이 방문을 했고, 또 학생들은 수학여행을 와서 우리의 천년고도에서 현장 역사교육을 꽤 많이 했습니다. 또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로부터도 많은 사랑을 받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주의 상황은 그러하지가 못합니다. 반만년 유구한 역사 속에 1000년간 수도였던 세계역사문화유적 도시가 잊혀지고 있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국가적으로 봐서도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석기 위원 앞서 말씀드린 다른 나라의 천년고도들은 유적을 보존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국가 예산을 투입해서 복원이 한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와 그리스 아테네는 지속적으로 고도의 도시 유적을 복원하고 있으며 일본의 나라시도 평성궁을 복원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세계적인 고대 도시들이 그 원형을 복구하는 데 막대한 국가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천년고도 경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가 1000년간 수도였는데 왕궁이 어디에 있느냐?’ 또 ‘1500년 전에 높이가 81m인 목조 9층탑이 있던 황룡사 절터가 어디에 있느냐?’ ‘황룡사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경주에는 덩그러니 그 빈터만 있을 뿐 그 위대한 문화유산의 형상이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또 부끄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경주의 신라왕경 복원·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큰 이견이 없는 듯합니다만 장관님은 이에 동의하시는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동안 우리 정부에서 신라유적 정비 사업을 여러 차례 계획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는 법적인 뒷받침과 재원 확보 방안이 충분치 않아서 1000년 왕도 유적 정비 사업이 번번이 실패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법적인 뒷받침과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기재부장관께서 경주 방문하셨을 때도 충분히 지원을 해 드리는 게 좋겠다, 다만 문화재청에서 그것을 발굴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 관계로, 그러다 보니까 왕경 복구가 실질적으로 발굴을 하고, 그다음에 정확한 근거에 의거해 갖고 그것을 만드는 것에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석기 위원 일각에서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특정 지역을 지원한 선례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6년도에 우상호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제정된 아시

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도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광주 지역에 2004년부터 2023년까지 약 20년간 많은 국비가 지원되는 입법 선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여 공주 익산 등의 경우에도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 사업에 이미 많은 국비가 지원된 선례도 있습니다.

반만년 역사 속에서 1000년간 대한민국의 고도였던 경주는 한국 역사문화의 원형을 이루는 곳이라는 점 또 최대 사적 문화재 규모를 자랑하는 역사문화의 보고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조상들의 찬란한 문화유산의 복원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석기 위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은 경주라는 지역에 한정된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의 문화적 위상 확립과 글로벌 문화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국가 문화융성을 견인하는 핵심 자원으로 그 역할을 다해 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라왕경 복원 사업은 법적 근거를 통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특별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융성과 국익을 위해서라도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 문화재청장님을 위시한 관계기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예.

○김석기 위원 그리고 문화재청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청장 나선화 예.

○김석기 위원 우리나라 매장문화재 발굴과 관련해서, 중국이나 그리스 등 다른 나라에서는 국가가 전액 발굴 비용을 부담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사업시행자 부담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매장문화재가 상시적으로 발견되는 경북·경기·경남·충남지역을 문화재 발굴 특구로 지정해서 문화재 발굴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적극 검토해 볼 용의가 있으신지요?

○문화재청장 나선화 예, 지금 현행법으로는 개발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비용이 사업자 부담으

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정 소규모 이하의 개발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관계기관과 계속 협의·노력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석기 위원 이들 지역이 다들 문화재 때문에 굉장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국가에서 반드시 보안을 해 줘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문화재청장 나선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전 질의의 마지막으로 손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손혜원입니다.

먼저 나선화 문화재청장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통영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통영시가 소방도로를 내려고 철거하려고 했던 추용호 통영소반장의 1868년도 지어진 공방 가옥을 문화재청에서 나오셔서, 직접 오셔서 그것이 철거되는 것을 막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적극 나서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무형문화재의 보호와 그리고 육성에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바라구요.

아직 이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것이 보존 가치가 있다는 그런 자료를 봐야만 통영시가 이 철거를 보류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재청장 나선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혜원 위원 그리고 전문가들을 불러서 모여서 그 공방 가옥이 왜 보존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냉정하면서도 전문적인 판단으로써 이것을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재청장 나선화 예.

○손혜원 위원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문화재청장께 자료를 요청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에는 중요무형문화재가 있고요. 그리고 그냥 지방에서 나오는 무형문화재가 있습니다. 두 분 다 어떤 가치가 있는 분이나 하면 형

태로 해야될 수 없는 문화적인 소산을 갖고 있는, 역사성을 갖고 있는, 그런 전승될 만한 가치가 있는 기능을 가진 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남대문이나 이런 것들을 유형유산이라고 본다면 이분은 무형유산입니다. 남대문은 불나서 다시 복원하니까 다시 새것같이 만들어지지만 이 무형문화재는 이 양반이 돌아가시면 끝입니다. 그래서 전승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형문화재의 가치는 우리가 만날 수 없는 그런 무형적인 유산을 이어서 오늘날까지 전해 주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한지도 없고 한복도 없고 한옥도 없습니다. 굉장히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무형문화재가 왜 중요무형문화재와 지방문화재로 갈려서 중첩되는 부분들까지도 함께 따로 관리되고 있는지 저는 그것이 늘 의문입니다. 아마 이것은 문화재청장께서 지금 당장 답변하시기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 그렇게 생각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청장님이 아시는 대로 대답하시기를 저는 원치 않습니다.

왜 이것이 나뉘어져 있는지, 똑같은 옷칠도 전국의 중요무형문화재가 있고 지방별로 다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무형문화재가 과연 중요한 분들인가, 그분들이 가장 뛰어난 기술을 가지신 분들인가, 그게 아닌 것들은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경우도 물론 있지만.

그래서 이 중요무형문화재가 이렇게 이원화되어서 그리고 지역별로 따로 관리되고 있는 이유를,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아마도 문화재청이 나서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유와 그리고 그 불합리성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서 이 소중한 무형문화재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전승이 되고, 이번에 추용호 선생님 같은 그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지를 꼭 문화재청장님께서 준비해서 저희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장 나선화 예.

○손혜원 위원 두 번째는 김종덕 문화부장관에게 여쭙겠습니다.

아까 자료에서 국가브랜드 제고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봤고요. 그리고 한국 대표 이미지를 홍보하신다고 했고요. 코리아 프리미엄 얘기하셨고요. 대한민국 고유의 브랜드 마케팅 얘기하셨

습니다.

저는 오늘 솔직히 문화부장관님께 문화부의 총체적인 질문은 안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설명 듣고는 제가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문화융성위원 2년 했고요 국가브랜드위원 2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국가브랜드라는 것 그리고 한국 대표 이미지라는 것, 코리아 프리미엄이라는 것, 대한민국 고유의 브랜드 마케팅, 이것 문화방언입니다. 정치 업계에 정치방언이 있듯이 이것은 문화방언입니다. 실체가 없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이렇게 말로만 하시지요, 서류로만 하시지요?

그리고 공예, 한복, 콘텐츠, 한식, 식품들의 이것들을 갖고 마케팅하신다고요, 대한민국 고유? 어떻게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옛날에 그나마 한국스타일박람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이것을, 저 뒤에 계신 국장님 한 분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이 부분에 대한 제고를 한번 해 달라고 해서 거의 무료로 이 일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제가 나서서 한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말 벗고 나서서 한번 일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예산도 적고 관심도 없고 도움도 안 주는 그런, 10억 남짓 되었던가요? 그나마 없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 장관님, 이것 한국 대표 이미지, 마크 만들면 되나요? 태극 갖다 아무 데나 붙이면 되나요? 코리아 프리미엄 뭐지요, 도대체? 저는 장관님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과연 한국 대표 이미지가 뭔지, 이것을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는지,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지, '코리아 프리미엄'이라고 이름 붙이면 되는 것인지, 코리아 스파클링 갔다가 또 지금 뭐지요, 문화융성?

정말 2년 동안 제가 문화융성위원회에 있으면서, 국가브랜드위원회에 있으면서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이게 뭐하는 일들인지. 한 달에 한 번쯤 그냥 모여서 그냥 주는 자료대로 한번씩 보고, 무슨 보고용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발 이 문화방언 번역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자료들 제대로 좀 만들어 주시고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하시고 쌓여 나가는 문화를 좀 얘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문화가 있는 날' 얘기도 정말 간지러워서 못 들겠습니다. 다른 날은 문화 없습니까?

문화라는 것이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문화정책, 문화활동, 제발 좀 쌓여 나가는 것, 깊이 있게 연구하는 것 좀 부탁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중에 제가 말씀드린 것 자료로, 필요하시면 저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오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존경하는 손혜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 챙겨서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성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의에 출석하고 있는 국립중앙극장 안호상 극장장은 사전에 정해진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 발표 행사 참석을 위해서 오후 5시부터 이석을 요청해 왔습니다.

위원장이 이를 허가하고 대신 장영화 운영지원부장이 대리 참석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오후 속개 질의로 이은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恩宰 위원 오전 중에 보고하신 내용 잘 받았고요.

그러나 제가 상당히 문화재청과 문화체육관광부에 여러 가지 사감이 좀 있습니다. 사감이라고 그러면 좀 우습지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참석자 명단을 제가 보니까 아직도 이런 부처가 있나 할 정도로 어떻게 여성 간부가 하나도 없습니까? 참 너무 기가 막히고요.

그다음에 문화재청도 마찬가지예요. 청장님이 여성이시면서 여성 인재를 발탁하실 생각이 없으신가 봐요?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문화재청장 나선화 예.

○李恩宰 위원 그래서 이렇게 어찌면, 더구나 다른 부처도 아니고 문화 이쪽은 굉장히 소프트하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올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아직도 한 분도, 이 명단에 보고한 분들이 다 까만색 양복만 입은 분이 계세요. 그래서 꼭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유념하겠습니다. 지금 국장급 중에서 일부는 해외 문화원장으로 나가 있는 사람이 있고요.

○李恩宰 위원 그런데 왜 여기 사진에는, 그러면 그런 분을 올리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본부 국장들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李恩宰 위원 해외 출장이라고 그러든지 이렇게 하셨으면 괜찮은데 전부 다 이렇게 하나도 없이 말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최근에 여성 사무관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과장급에는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비례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李恩宰 위원 시간이 가니까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문화의 힘이라는 것은, 제가 보니까 그동안 맨 처음에 ‘겨울연가’로 시작으로 해서 ‘별에서 온 그대’라든지 케이 팝 또는 케이 푸드 등의 한류 열풍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아시아 변방에서 이렇게 세계의 중심으로 도약을 하는 원동력이고 경쟁력인데, 굉장히 유감스러운 것은 문화 재정을 봤더니 99년에 1% 달성 이후에 매년 1% 내외 수준으로 정체되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2017년까지 2%를 늘린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대선 공약 이행이 잘 되고 있는지 그것 제가 파악을 하고 싶고요.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그다음에 그와 아울러서 박정희 정부에는 중화학공업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중화학공업을 집중 육성하던 1970년대 후반에 당시 상공부와 동력자원부 예산을 정부 총지출 대비 약 3~4% 편성·집행을 했습니다. 또 김대중 정부도 IT 정보기술 산업 육성을 위해서 2000년 전후 당시에 정보통신부 예산을 2.5% 내외 유지

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따라서 문화 재정 2% 확보를 위해서 장관님의 의지와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올해 저희가 16년도 정부 재정 대비 문화 재정 비율이 1.72%입니다. 그래서 2% 달성이, 18년도에 2% 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저희는 지금 계속, 정부에서도, 기재부에서도 그렇고 재정 당국에서 2% 달성을 목표로 정해 놓고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李恩宰 위원 지금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과연 지금 여러 가지, 우리 국가의 여러 가지 경제 성장률이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달성할 수 있는지 그게 제가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어 보는 건데요.

사실 21세기는 문화가 상당히 경쟁력이 있고 복지인 시대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사회복지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출발점이라고 한다면 문화는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마침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는 기성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가 주역이 될 수 있는 최고의 능동적 복지인 동시에 신성장 동력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능동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정말 신성장 동력으로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유념하겠습니다.

○李恩宰 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조금 저거한 건데요. 최근에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두고 국제수영연맹 사무총장이 서신을 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습니다.

○李恩宰 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진행과 관련해 가지고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것 아닌가에 대한 우려의 서신이었습니다.

○李恩宰 위원 답신을 보내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광주에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恩宰 위원 장관님한테 서신은 갔는데 답신

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조직위원회로 간 겁니다.

○李恩宰 위원 조직위원회에서 보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조직위원회로 그 서신이 간 거고요.

○李恩宰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李恩宰 위원 그러면 지금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준비를 둘러싸고 굉장히 잡음이 많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알고 있습니다.

○李恩宰 위원 알고 계시지요?

우선 지난번에 사무총장 자리에 현재 2015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사무총장에 김윤석 씨를 내정을 했는데, 문체부가 승인까지 받았는데 조직위 출범을 앞두고 돌연 취소를 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李恩宰 위원 왜 그랬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광주시하고 약간의 이견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李恩宰 위원 어떤 거였나요? 그것 제가 듣기로는 조직위가 수영대회 사무총장에 정치인 출신 인사 조영택 전 의원을 내정을 해서 문체부와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습니다.

○李恩宰 위원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검토 중에 있습니다.

○李恩宰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맨 처음에 한 것은 취소하고 그다음 번에 내정된 사람으로 하시려고 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李恩宰 위원 검토 중에 있습니까? 왜 맨 처음에 한 것에 대해서는 취소를 하고 두 번째 한 사람은 검토를 하고, 그게 말이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 일은 광주시가 진행하는 일이고요. 광주시가 실제로 행사라든지 모든 것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의 의견을 일단은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저희가 김윤석 총장에 대해서도 내정, 협의단계에서 사실은 승인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李恩宰** 위원 위원장님, 저 1분만 쓰고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이따 보충질의하시지요. 어차피……

○**李恩宰** 위원 아니, 이어서 하기 때문예요. 1분만 하고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그러시지요. 1분 더 넣어 주시지요.

○**李恩宰** 위원 예, 1분 하겠습니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한 정치인의 공적을 치하하는 자리가 아니고 광주시민,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전 세계 수영인들의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하는 것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李恩宰** 위원 그렇다 그러면 장관님께서는 이를 명심하셔서,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유능하고 경험이 풍부한 스포츠 관리자가 사무총장으로 조속하게 임명이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李恩宰** 위원 확실히 약속하시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李恩宰**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수고하셨습니다.

또 뒤에서 양해를 해 주신 염동열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염동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열** 위원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지역 염동열입니다.

횡성 지역이 하나 더 늘어서 제가 별도로 소개를 했습니다.

지난 6월 17일 날 대통령과 함께 문화관광 경쟁회의를 진행한 바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습니다.

○**염동열** 위원 거기의 주된 역점 사항은 아마 서울과 제주에 편중되어 있는, 특정지역에 한정돼 있는 관광을 지방에 분산시켜서 지방관광산업도 좀 활성화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주요 내용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 관광경쟁력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염동열** 위원 어떤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전체적으로 봐서는 질적인 개선을 좀 해야 되겠는데 질적 개선

안에 지금 존경하는 염동열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 분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콘텐츠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확보돼야 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염동열** 위원 저도 분석해 보니까 새로운 시설, 인프라 구축, 그러니까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창의적 융합, 벨트화 이런 것들을 더러 지적하신 것 같아요. 가령 우리나라의 관광경쟁력으로 봤을 때 역사, 문화, 그리고 자연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케이팝, 케이 드라마, 한류가 경쟁력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ICT를 토대로 해서 말산업이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바다가 삼면이기 때문에 이것은 크루즈 관광과 연계시킨다 하면 엄청난 관광산업이 될 수 있다 하는 요지로 말씀을 주셨던 말이지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 때 2009년도 7월 달에도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아주 대대적인 회의, 이런 토론회 있었습니까라는 지금 전혀 거기에 대한 여파를 우리가 느낄 수가 없고, 특히 1차 관광진흥확대회의가 13년도 3월 17일 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지역활성화 관광을 얘기했어. 14년도 2월 3일 날 그때도 2차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활성화에 대해서 중점을 뒀는데 제가도표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변한 게 없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11년도, 15년도를 제가 비교해 보니까요. 제주도만 8.2%가 외래 관광객이 상승이 돼 있고 서울이 -1% 그리고 경기도가 -10%, 강원도가 4.7%,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지방의 관광은 사실은 후퇴를 한 거예요. 이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전체적으로 신규 관광객들, 처음 한국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보니까 지금 현재 중국에서 오는 단체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면서 처음 한국을 찾는 사람들이 대부분 수도권으로다가 몰리는 현상 때문에 그런 일이 좀 있습니다만 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역관광 활성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점 중의 하나라서 지역거점, 특히나 평창 동계올림픽과 같이 연계된 지역거점 활성화하는 것에 저희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염동열**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대통령이 말씀하셨듯이, 저는 잘 짚어 냈다고 봐

요. 이 자연의 가치, 지역 역사, 문화, 이것 사실 큰돈 들이지 않고 있는 것을 엮는 것이거든요. 융합하고 이것을 연계하고 하나의 벨트화를 시켜 나가는 작업인데 결국은 지역 경쟁력이 없다, 관광 경쟁력이 없다는 것은 이런 향토적 가치, 지역에 있는 자연의 가치를 활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산은 부산대로의 바닷가가 있고 강원도는 산과 계곡이 있고 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엮어 내지 못했다 하는 것에서 저는 실질적으로 지역관광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향토적 가치, 지역의 자연의 가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을 지렛대로 해서 지역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되는데도 이렇게 하지 못했다 하는 것이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요.

도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마는 13년도 7월 달에 기획재정부에서 7대 서비스 중목에 대한 사업계획을 발표합니다. 그 7대 서비스 중목이 뭐냐 하면 보건, 의료 그리고 교육, 관광, 그리고 소프트웨어, 콘텐츠, 물류 이렇게 일곱 가지 서비스 중목을 중점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송도 지역, 제주도 지역, 그리고 영종도 지역 2개 지역을 하는데……

이 도표에, 제가 그런 겁니다, 점선은. 올림픽이 열리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삼면이 바다이고 자연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강원도에 하나 정도의, 기획재정부와 의논해서 여기에 하나의 방점을 찍는다고 한다면 보기도 좋지 않아요? 안정돼 있고, 그리고 내륙 지역에 있는 관광객을 끌어들이 수 있는, 그래서 전 지역을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기획재정부에 제가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또 미래창조산업위를 통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실천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장관님한테 이 7대 서비스 중목을 기획재정부하고 좀 협의를 해서 상징적으로 선언만 해 줘도 실질적으로 지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관광인프라, 자연의 인프라를 연결해서 하나의 핵심, 지역관광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말씀하신 내용 제가 기재부하고 좀 협의를 하겠고요.

존경하는 염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봄이, 봄업이 사실은 7월 사업부터 굉장히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마스코트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D-500, D-1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그 행사가 진행될 때마다 또 문화관광 축제들이 같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하고는 다른 양상으로 좀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염동열 위원 혹시 강우현 남이섬 전 사장, 상상나라 아시지 않습니까?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징, 향토적 가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엮어서 나름대로, 물론 기업들이나 지자체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엮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꼭 예산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잘 들여다보고 조사하고 분석하고 그것을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것은 가치로 끌어내서 연결시켜야만, 꼭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역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많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강원도를 한번 시범으로 했으면 좋겠다, 제 지역이라서가 아니라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지역관광 활성화에 맞는 이러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 그리고 자연 이것을 연결해서 대한민국에 선도적으로 경쟁력 있는 하나의 관광상품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끝으로 장관님 말씀 듣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염동열 위원 이것 꼭 좀 실제적으로 액션 플랜을 가지고 진행 한번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동열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장관님, 하여튼 모든 정부가 다 문화·예술·관광·체육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많은 정책을 펴 왔는데 박근혜정부가 취임하면서부터 문화융성, 4대 국정기조의 하나로 가치를 내걸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변화가 있었지요. 정부 차원에서의 관심과 지원이 문광부에 많이 쏠리고 있는데, 우선은 아까 과거 정권에서 우리나라의 전체, 말하자면 정부 재정의 0.96%, 0.97%, 심지어는 0.93% 이렇게 하다가 김대중 정부 시절에 딱 한 번 박지원 장관님이 장관님 하고 있을 때 1.03%로 갔다가 그 다음 해에 바로 다시 영점으로 내려와서 전부 1% 이하 문화재정이었는데 모두가 다 2% 재정을 소원했었지요. 그리고 현 정부 들어와서 이게 매년 5000억 이상씩 문화재정이, 다른 부처에는 보통 평균 3%인데 10% 이상씩을 매년 증가를 시켜서 이 정권이 끝나는 2018년도 2월 달까지 해서 2%를 기어코 달성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그것은 장관님의 의지도 의지지만 일단 현 정부 모두가 다 이렇게 문화를 육성시켜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성장에 못지않은 그런 문화 수준을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걸맞게 지금 잘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이정현 위원 재정은 이렇게 뒷바라지를 해 주고 있고……

문광부의 가급 공무원들을 포함한 실장이 총 몇 명이지요,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지금 7명입니다.

○이정현 위원 7명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이정현 위원 다른 대부분의 부처는 몇 명입니까? 외교부라든가 행자부처럼 이렇게 특수한 상황이 아닌 그 밖의 다른 부처 중에서는 아마 제일 많을 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 자체가 뭘니까? 의미가 뭐라고 보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정부에서.

○이정현 위원 그렇습니다. 재정을 이렇게 밀어주고 있고 인원을 이렇게 밀어주고 있고, 그리고 꼭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매달 국내에 있는 동안에는 ‘문화의 날’ 이렇게 지정을 해서 직접 그 문화현장을 가고 또 그것과 관련된 많은 문화, 말하자면 향유 계층을 늘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도 하고 또 융합센터도 마련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장관 입장에서 평가를 했을 때, 다른 정부에 비해서 문화예술에 대한 이런 집중적인 지원과 실질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실제로 문광부가 거기에 부응해서 제대로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지원에 비해서 몇 점 정도 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스스로 점수를 매긴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최선은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아마 여전히 미흡하게 느끼실 겁니다.

○이정현 위원 한 몇 점 정도로 보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글썬요, 제가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정현 위원 제가 하나로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한데 혹시 ‘문화의 날’이 매달 언제인지 아세요?

○위원장 유성엽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인지. 죄송합니다.

○이정현 위원 우리 교문위 위원장님께서 모르신다고 하셨거든요. 제 옆에 계신 이은재 위원님께 제가 아까 확인을 했습니다. 모르신다고 합니다.

(웃음소리)

지금 이게 정말 웃을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몇 차례 참석했지요? 10여 차례 이상을 참석을 하시고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회의원님들도 모르시고 이럴 정도로…… 사실 인지도가 60%, 80% 나와 있는데 저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서울에만 집중해요. 대통령이 10여 차례 전부 수도권에서만 다니셨지요? 지방에 한 번도 가 보신 적 없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습니다.

○이정현 위원 정말 이것은요, 장관님 웃을 일이 아닙니다.

국민 전체를 다 같이 문화를 향유하는 그런 세력으로 키워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아까 재정이야, 인원이야, 그 밖의 다른 많은 관심을 쏟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융성의 기회를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체부가 교문위 위원장님도, 집권여당 국회의원님도 이 ‘문화의 날’을…… ‘문날’이라고 그러지요. 이 ‘문날’이 언제인지를 제대로 모를 정도로 이런 정도의 홍보를 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이게 지금 문화융성

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송구스럽습니다.

○이정현 위원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고, 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문광부의 정책대로 하면 중앙하고 지방 간의 문화 격차라든가 정책이 너무나 차이가 있습니다. 보여 주기 위해서 수도권에서 궁궐 중심으로, 뭘 중심으로 전부 이렇게 하고 있고 실제로 지방에 대해서는 매우 소홀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정부 정책에……

아까 여섯 가지 그게 뭐였었지요?

하여튼,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중국 관광객들이 지금 1년에 한 몇 명 정도 오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작년엔 600만 명 왔습니다.

○이정현 위원 600만 명이나 옵니다. 이 600만 명이 오는데 광주·전남·전북 여행사 다 합해 가지고 이 중국 관광객들을 맞이하려고 하는 전담 여행사가 있는 걸로 알고 계세요, 없는 걸로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지금은 이제 아…….

○이정현 위원 아니, 이것만 답변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취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호남에는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나머지 지방에도, 지방에 한 서너 군데가 2개 내지 3개 정도 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서울은 몇 개인지 아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170……

○이정현 위원 100여 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지방에 이렇게 관광이나 문화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의 관심도 없고 쏟아붓지도 않고 찾아오는 600만 명을 수도권에서 맞이하려고 그러니까 러브호텔에다 재우고 이렇게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전남·전북에서 그렇게 신청을 하고 해도 이 전담 여행사 하나가 없습니다. 아까처럼 일률적이고 획일적이고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대규모 여행사가 서울에 있고 지방에다 유치할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어렵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게 저는 큰 맹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만큼 문화융성의 시대를 맞이해서 정부가 이만큼 지원하고 있으면 문광부에서도 제대로 한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예.

○이정현 위원 시간이 없어서, 한 군데만 더 하겠습니다.

한예중 총장님 어디 계시지요?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김봉렬 여기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한예중 총장님, 제가 아까 보여 주신 통계를 봤더니……

2003년도에 출범했습니까?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김봉렬 예, 그렇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 이후로 최근까지 해 가지고 전 세계에서 1등 한 것만 팔백오십 차례 수상을 했더군요. 맞습니까?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김봉렬 예, 그렇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다음에 총 수상내역도 보니까 한 2898회에 걸쳐서 수상을 했고 어마어마한 급 성장을 했습니다.

시간이 곧 끝나 가니까요, 저는 문방위원으로서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회의원으로 한 예중 같은 학교와 이런 실적을 쌓고 있는 이곳에 정말 한없이 밀어 드리고 싶고 또 정말 격려와 경의를 표하고 싶은데, 지금 이 자리에서 장관님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계시고 국회의원들, 예결위원도 많이 계시는데 한예중 어디가 한계이고 뭘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는지 한번 말씀 좀……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김봉렬 감사합니다.

올 초에 세계대학평가에서 저희 학교가 전 세계 예술대학에서 46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차지해서 그건 정말 정부하고 많은 위원님들이 밀어 주신 결과로 생각하고요.

저희 학교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하여튼 캠퍼스, 좀 항구적인 캠퍼스를 확보해서 문화융성의 기치가 되고 케이 아츠, 케이 클래식의 고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의 날’ 저도 사실 몰랐었습니다. 몰라서 죄송한데, 우리나라는 너무 청와대만 알고 있고 청와대만 하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서 유감스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다음에는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반갑습니다.

제주시출신의 오영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장관님

께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22페이지에 학교위생정화구역 내 호텔건립 규제완화 정책을 펴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해 예산안 정국에서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통과가 돼서 서울·경기 지역에 한정돼서 호텔 설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예,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런데 또 지금 이와 관련해서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제정될 것을 기정사실화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규제프리 특별법 안에 관광진흥법의 이런 호텔건립과 관련된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그건 검토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제가 확인한 규제프리존 특별법 발의안 내용 제59조 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죄송합니다. 들어가 있네요.

○오영훈 위원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예.

○오영훈 위원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지난해 여·야·정 합의했던 관광진흥법 개정 시에 서울·경기 지역에 한정해서 2021년 3월 22일까지 시간제한을 해서 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통과된 지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다시 전국적으로 이것을 풀겠다는 얘기와 다르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전국적인 것은 아니고 부산·제주·강원도만 특수성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제주 같은 경우 또 강원도는 올림픽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숙박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후시나……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잠깐만요, 장관님.

작년 12월에 이 문제를 논의하면서 서울·경기 지역에 한정해서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정책이 변화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제주·강원·부산 이렇게 해서 확대를 해 나가겠다, 그러면 국회와 협의가 있어야지요.

협의를 있었습니까, 협의 과정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아마 이 규제프리

특별법과 관련돼 가지고……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무슨 얘기냐 하면 여·야·정 합의사항에 의해서 추진됐던 관광진흥법 개정사항이 통과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통과될 것을 전제로 하는 양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학교와 호텔 건립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업무보고 자료에도 또 나와 있습니다. 공유 민박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공유 민박업 문제가 지금 제주에서도 반발 여론이 있어요. 강원도에서도 반발여론이 있고요.

강원도에서는 아마 공식적으로 도청 차원에서 시행의 불합리성을 문체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예,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저희 지역의 경우에도 관광호텔이 과잉 공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숙박시설 옆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다 반대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중국 관광객들이 러브호텔에서 자고 오피스텔에서 자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즉 불법영업이 성행하고 있다고요. 그런 상황에서 공유민박업이 허용되었을 때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인지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첫째는 규제를 일단은 좀 풀자는 의미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그야말로 또 다른 종류의 관광 숙박에 대한 옵션을 주자는 것이지 경쟁을 시키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숙박, 이를테면 여인숙이라든지 여관이라든지 이런 데가 넘친다 한들 그것이 모자라 가지고 지금 숙박이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종류의 관광상품을 제공함으로써 해서 사실은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장관님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제가 볼 때, 관광 1번지라는 제주에서 관광 시설들을 살펴봤을 때 그렇게 가지 않을 것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오피스텔 불법영업활동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전환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이 있다고 칩시다. 임대주택 몇몇 사람들이 소유를 해서 이것 공유민박업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충분히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됐을 때 저는 이와 관련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이러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하고 이 정책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지난번에 제주도 하고 강원도 또 부산 지역의 숙박 하시는 분들하고 담당하시는 공무원들하고도 저희가 간담회를 했고요. 지금 존경하는 오영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쪽에는 저희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시행 시기와 시행 방법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할 수 있게끔 논의를 하겠다, 충분히 협의를 통해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지금 장관님께서서는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을 기정사실화하시고 이 문제를 접근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그렇지 않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걸 국회에서 논의하실 문제입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국회에서 논의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 상임위원회와 충분히 협의한 뒤에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술강사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서 예술인들의 창작활동과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예술인 강사 지원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오영훈 위원** 2015년도에는 정부 예산이 442억이었는데 2016년도에는 521억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참여 학교 수도 늘었는데요. 예술강사 수도 늘었습니다. 예술강사 수는 4916명에서 5304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낮은 강의료가 문제가 됩니다. 낮은 강의료가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지금 4만

원으로 책정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알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런데 기존에는 강의 시수가 476시수였어요. 그런데 이 강의 시수를 연간 373시수로 제한을 해 버립니다. 그래서 예산은 그렇게 증액시키지 않고 시수 시간을 줄임으로써 보다 많은 예술인 강사를 채용한 거예요. 실제로는 예술인 강사한테 혜택이 더 안 돌아가게 되는 구조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정부에서 추경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추진 중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오영훈 위원** 일자리 창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청년 일자리 창출. 그러면 예술인 강사 수 대폭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체육 강사 수준의, 5만 원 수준의 처우 개선을 해 주는 조건으로 이 부분에 대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진행할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재정당국하고 이 얘기를 그동안 꽤 오랫동안 저희가 해 왔습니다.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풀리고 있고 거의 10년째 동결된 상황이라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도와주시면 재정당국하고의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오영훈 위원** 이번에 추경안이 편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

**○위원장 유성엽**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섭 위원** 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이동섭 위원** 장관께 묻겠습니다.

통합체육회 출범한 이후에 17개 시·도지사가 지금 회장을 맡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예.  
 ○이동섭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예, 그렇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시장, 군수, 구청장이 228명인데 통계에 보니까 177명이 회장을 겸직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예, 그렇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러면 국회의원은 겸직금지를 통해서 홍문종 국기원 이사장이 사퇴를 했고, 또 대한태권도협회장 김태환 의원이 사퇴를 했어요.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도 공직자인데 왜 그 사람들이 겸직해야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왜냐하면 말이지요. 저도 지역에서 지구당 위원장을 해서 잘 아는데 시장·군수·구청장이 체육단체장을 맡으면, 요즘에는 제일 단체가 생활체육단체예요. 체육단체를 맡으면 선거에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곧바로 선거조직으로 이어지고 정치세력화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장관, 막을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저희가 그 규정 개정을……  
 ○이동섭 위원 정관 규정을 통해서 좀 막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저희가 규정 개정을 하려고 지금 대한체육회 쪽 규정 개정을 하거나 또 지방자치법에도 개정을……  
 ○이동섭 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장관, 우리나라 국가가 애국가지요? 그러면 체육에서 국기는 뭐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태권도입니다.  
 ○이동섭 위원 태권도지요? 태권도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71년 3월 20일 날 국기 태권도를 명명하고 국방 무술로서 시작한 게 태권도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해외순방 시 카타르와 이란에서 태권도 시범을 통해서 국위선양한 것 보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예.  
 ○이동섭 위원 그런데 왜 활용만 하고 도와주지는 않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계속 저희가 태권도 분야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정말 도와주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예.  
 ○이동섭 위원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그동안에 말이지요, 김운용 총재나 우리 엄운교 원장이나 이런 태권도인들이 정말 잘했어요. 그렇게 해서 민간 외교사절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고 지금 현재 210개국에 지부를 두고 있어요. 월드 태권도 페더레이션을 만들어서 올림픽 종목까지 올려놨어요. 그런데 최근에 정치인들이 정치세력 때문에 국기원도 장악하고 대한태권도협회도 장악하고 정치세력화를 하고 있어요. 정치인들 때문에 엉망으로 만들고 있어요, 저도 정치인이지만. 전문성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동섭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체육단체장은 정치인이 배제돼야 합니다. 전문체육인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정관을 바꾸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국기원 정관은 사실 국기원에서 해야 하는 일이라서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동섭 위원 태권도는 말이지요. 우리 고유 문화예술이기는 하지만 하느님이 주신 우리의 가장 보배로운 문화유산이에요, 인류의 원조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예, 그렇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리고 밖에 외국 나가 보시면 알겠지만 태권도인들이 상당한 민간 외교사절 역할을 해요. 그러면 많이 도와줘야 돼요, 재정적으로 정책적으로.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예, 그렇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런데 정치인들이 도와주기는 커녕 방해하고 있어요. 꼭 이 문화를 바꿔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기원 원장 문제도 한번 거론하겠습니다.  
 국기원은 세계적인 기구입니다. 세계에 8000만 명의 태권도인이 있어요. 대한민국과 북한 인구와 걸맞은 태권도 인구가 있어요. 그 사람들을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210개국에 1단부터 9단까지 단증이 나가요. 그런데 지금 낙하산 인사로 왔던 오현득 국기원장

이 현재 전 이사장이 임명해서 국기원 원장을 대행하고 있는데 그분이 인품적으로 훌륭하고 행정력도 뛰어나요. 부원장까지는 봐 줄 수 있어요. 태권도 5단이에요. 태권도 5단이 블랙벨트 체계에서 9단을 단증을 줄 수 있어요?

장관, 장관은 누가 임명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대통령께서 임명합니다.

○이동섭 위원 대통령이 임명하지요? 국장이 장관을 임명하면 임명장 받겠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

○이동섭 위원 태권도는 블랙벨트 체계가 있고, 세계적인 사람들이 국기원을 왜 존경합니까? 왜 방문합니까? 왜 단증을 신뢰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태권도 단증은 9단에서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국내에 9단이 한 200명 돼요. 9단 협의회가 있어요. 9단에 보면 대학 총장 출신도 있고 태권도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동안 김운용 총재부터, 엄운규 회장부터 죽 내려왔던 그런 원로, 존경받는 사람이 국기원 원장을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위원님께서 워낙 오랫동안 이 태권도 분야에서 해 오셔서……

○이동섭 위원 그렇게 해서 저는 직선을 해서 그중에서 선출된 사람이 인준하는, 국기원 원장이 그래야만 정통성과 정체성과 역사성을 가지는 거예요.

장관, 그렇게 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국기원장 문제는 정부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국기원 이사회를 통해 갖고 그것이 결정되는 일이라서……

○이동섭 위원 알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간섭하세요. 자체적으로 안 되는 건 문체부에서 당연히 간섭해야지요. 꼭 그래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태권도라는 게 이사회가 있어요. 그 이사들을 말이지요, 그냥 정치적으로 이사장이 자기 필요한 사람, 정치인들 찍어서 하지 말고 전문성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겠어요.

한국체육대학교 태권도학을 전공한 총장, 경희대학교 총장, 용인대학교 총장, 나사렛대학교 총장, PARA회장, 아시아회장, 미국회장, 유럽회장,

태권도 고단자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 가지고 이사를 구성해서 이 국기 태권도가 국위선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책적으로 서포트, 어드바이스 해 주시고 재정적으로 많이 도와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유념하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리고 태권도 비리, 한 사람이 30년 동안 장악하고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두 번만 하게 해요. 회장 두 번만 하게 하세요.

그리고 간단해요. 국기원 원장 국기원에서 그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1분 더 드리지요.

○이동섭 위원 국기원 원장은 고단자에서 하고, 대한태권도협회장, 17개 시·도 회장, 구 회장은 그게 직선으로 하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그렇게 앞으로 해 주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북핵 때문에 지금 남북관계가 엄동설한에 있어요. 이것 그냥 놔두면 안 돼요. 남북 간에 교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만나야 정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 교류가 아주 중요합니다. 본 위원은 얼마 전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용도에 남북 간 체육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를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어요. 남북 간에 태권도 관계자들도 왔다 갔다 하고, 체육도 왔다 갔다 하고 남북평화팀도 만들고 말이지요. 이렇게 남북교류 협력을 통해서 체육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예.

○이동섭 위원 확실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그동안에도 계속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지금 적합한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아닙니다. 이건 대통령한테 건의 해서요, 스포츠 교류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 좀 하도록 하십시오. 약속한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동섭 위원 그리고 국기원에 3년 동안 인사 발령했던 내역, 그다음에 그동안에 예산 집행한

내역 3년 동안의 것을 저한테 보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가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성엽 이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 대한민국 중심 고을 또 중원 문화의 중심지 충주 출신 이종배 위원입니다.

장관님, 또 우리 관련 직원들 모두 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관광시장, 세계 여행객 수는 점차 늘어나고 있지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연 얼마 정도 늘어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거의 한 10% 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연간 보면, 최근 5년간 보니까 4.7% 정도 이렇게 평균 늘어나고 있네요.

방한 관광객 수는 지난해 1323만, 그렇지요? 14년 대비해서는 6~7% 정도 줄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메르스 때문에 조금……

○이종배 위원 중국인 관광객도 전년 대비해서 지금 약 600만 명 정도, 전년 대비해서는 2.3%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메르스 원인도 있지만 그 관광객들이 결국 일본이나 태국으로 관광지를 옮겼다, 그렇게 보는 평이던데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올해 4월~5월까지의 추세를 보면 작년에 메르스가 있기 이전에는 정상적으로 10% 늘고 있었습니다. 그것보다도 또 10%가 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거의 800만을 채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종배 위원 가능하시겠습니까? 세계경기가 장기적으로 이렇게 침체돼 있고 그래서 내수를 좀 활성화시켜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관광을 제2의 내수로 봐 가지고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동의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리고 지속가능한 관광도 우리가 갖춰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비전이 좀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2010년을 전후해서 우리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일본을 압도했지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죽 했다가 표에 보시듯이 지난해에 1974만 대 1323만 크게 한국을 앞질렀습니다. 메르스 이런 원인도 있겠지만 다른 원인도 여러 가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지난해에는 목표치에 우리가 달성을 못 했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금년도에는 목표 달성이 가능합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양적인 목표는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양적으로는 가능하겠습니까? 결국 우리 관광 패턴을 보면 이런 외적 요인에 따라서 관광객이 늘었다 줄었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결국 근본원인은 관광자원의 질적 고도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래서 몇 가지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이 관광시장에 관광객들도, 해외관광객 시장도 좀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일본이 한 50% 가까이 되잖아요. 중국 관광객이 2010년경에는 한 22~23% 정도 됐다가 지금은 45.2%, 너무 중국 관광객에 의존하고 있는 것 같다, 좀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종배 위원 그리고 관광객도 너무 저가, 또 이런 관광객 숫자에만 치우쳐서는 안 되겠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좀 더 고부가가치·고품질·고품격 이런 여행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예를 들면 의료관광이라든지 마이스관광이라든지 크루즈관광 같은 것, 그런 쪽에 좀…… 관광을 총괄하시니까 좀 적극적으로, 크루즈관광은 해수부에 맡기고 이렇지 마시고 전

체 총괄을 해 나가셔야 될 필요성이 있지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크루즈관광과 관련돼 가지고는 해수부하고 하여튼 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스포츠관광도 그렇고 의료관광도 복지부에 맡기지 마시고, 지난해 해외 의료관광객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도 만들어졌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이런 걸 잘 활용해서 고부가가치 여행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동의하시지요?

또 관광자원도 여러 분 말씀하셨는데 외국인의 입장에서 관광자원도 패키지로 해서 잘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랜드마크 같은 것, 대표 브랜드도 좀 더 확실히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업무보고에서도 나오고 그랬던데요.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구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정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방관광 활성화 이 부분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지자체에서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동의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이종배 위원 얼마 전에 문화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회의에서 여러 가지 대안도 만들어 내셨는데 이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지만 관광정책의 어떤 비전과 이런 정책방향도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큰 틀에서 그렇게 한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저도 노력할 테니까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면 보고를 개별적으로나 또는 우리 위원회에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문화재청장님, 인간문화재 지원금이 연간 100억 정도 되는 거지요?

○문화재청장 나선화 예,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문화재청 예산의 1.4% 내지 1.7%,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체 134개 종목에 보면 이수자가 많은 데는 한 500명 가까이 되고 없는 데는 0명입니다. 그렇지요?

○문화재청장 나선화 예,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서 새로운 개선방향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인기종목의 경우 인간문화재 지정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태평무 인간문화재 지정할 때 이 문제점 알고 계시지요?

○문화재청장 나선화 예,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어쨌든 인기종목 인간문화재는 이제 그만둬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하겠습니다. 1분만 주시지요.

○위원장 유성엽 1분 더 주시지요.

○이종배 위원 말이 끊어져 가지고……

○위원장 유성엽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래서 인간문화재가 되면 특혜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인기 있는 인간문화재가 되면 특혜도 많고 한마디로 부와 명예가 다 따라오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인간문화재를 사라질 무형문화 같은 것, 이런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해 놓았는데 지금 몇백 명씩 이수자가 되어 있는 이런 것은 이제 인간문화재에서 좀 빼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명맥이 끊길 위험에 있는 취약종목에 대해서는 지금 얼마 조금 더 주잖아요, 그렇지요? 월 몇십만 원씩 더 주시는데, 한 40만 원 정도 더 주시는데 이렇게 몇 십만 원 더 주셔 가지고 이것이 될 것이 아니고 저쪽 잘라내고 이쪽을 아주 적극적으로 대폭 지원해서 살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재청장 나선화 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종배 위원 그리고 개인 말고 단체도 지정하는 방안, 이런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장 나선화 예, 그래서 지금 저희 문화재청에서 인간문화재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인기종목과 취약종목의 구분이 확실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종목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히 그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점검을 하기 위해서요. 그것이 금년 11월이면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보완하는 4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 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

○위원장 유성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혜 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은혜입니다.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유은혜 위원 저는 지금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문제가 청년실업 문제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습니다.  
○유은혜 위원 올해 2월에 청년실업률이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제가 그런 것을 잘.....

○유은혜 위원 12.5%로 역대 사상 최고의 기록을 보였는데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앞으로 3, 4년 동안에 경제상황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청년 고용절벽, 그러니까 이제 일자리가 급감할 것이다 이런 우려를 매우 심각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더 덧붙이지 않아도 이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나 지금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전체적인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제가 보니까 청년 예술가들의 실업 문제가 또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한국예술종합학교 청년예술가 일자리 지원센터의 자료를 좀 분석을 해 봤더니 2013년도 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해서 예체능 전공자 취업률이 45%이고 7개 계열 중에 최하위로 나타났습니다.

넘겨 주시지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술 전공자들의 졸업하고 3년 내의 월수입 현황을 살펴봤더니요, 저기 보시는 바와 같이 '50만 원 이하'가 24%, '100만 원 이하'가 46.7% 그리고 '예술을 통한 월수입이 전혀 없다, 0원이다' 24.3%나 됩니다. 그리고 '50만 원 이하'가 49.7%.....

이런 조건 속에서 청년 예술가들이 창작의 꿈을 과연 펼칠 수 있을지,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같은 분야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정말 저희도 참담하게 생각합니다.

○유은혜 위원 매우 심각하다는 것에 동의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습니다.  
○유은혜 위원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문화콘텐츠산업은 34세 이하가 57.7%에 이르러요, 40세 이하가 77.8%, 그러니까 청년들이 거의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분야인데 이 분야의 사업체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유은혜 위원 그리고 사업체 수가 줄 뿐만 아니라 고용형태도 비정규직이 많아서 굉장히 불안정한 그런 고용형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문화콘텐츠산업이든 문화예술 분야든 청년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고 찾고 있어도 제대로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고요.

지난 4월 7일에 문체부가 산업연구원하고 함께 실시해서 '예술의 국민경제적 위상과 고용 및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 이 연구결과 발표하셨지요?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유은혜 위원 이 발표에 따르면 전체 산업의 평균 취업유발효과가 13.9%인데 비해서 문화예술의 취업유발효과는 17.2%로 굉장히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돈을 다른 산업에 투자하는 것보다 문화예술 분야에 투자하면 그만큼 청년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다는 결론인데요. 이것도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습니다.  
○유은혜 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 3년간 문화부에서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관련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11개 사업에 2014년에 1584억, 15년에 1592억, 16년에 1790억이고요. 청년 일자리 수가 보시는 바와 같은데 이것이 추가로 고용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예술강사와 같이 매년 재계약하는 숫자가 조금 늘어나거나 해서 신규로 만들어진 일자리는 거의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한 가지 자료를 더 분석해 봤습니다. 문화부 산하의 공공기관들이 청년고용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청년고용 현황인데요.

한 가지 자료를 더 분석해 봤습니다. 문화부 산하의 공공기관들이 청년고용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청년고용 현황인데요.

한 가지 자료를 더 분석해 봤습니다. 문화부 산하의 공공기관들이 청년고용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청년고용 현황인데요.

장관님도 2014년 1월부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유은혜 위원 30인 이상의 공공기관은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 28개 공공기관 중에 앞으로 채용 예정되어 있는 7개 기관을 제외한 21개 기관의 고용 현황을 분석해 봤더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 시행되기 3년 전에 비해서 시행 후에 오히려 줄었습니다.

오히려 총 8.3명이 이 특별법이 시행되고 난 다음에 줄었습니다. 이런 상황도 혹시 알고 계시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 내용은 제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은혜 위원 그래서 제가 장관님께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오히려 지금 좀 늦은 감이 있고요. 그래서 정말 실효성 있는 추가고용 확대 정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유은혜 위원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부 내에 청년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정책과 방안을 만들 TF팀을 구성해서 좀 종합적으로, 법 제도, 정책, 예산, 사업 추진체계와 같은 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그 진행상황을 저희 의원실하고 좀 공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제가 얼마 전에 문화 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간담회를 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모아 봤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그 자리에서 나온 많은 공통된 의견이라서 제가 좀 제안드리는데요.

청년 예술가가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 하고 확인을 해 보았더니 ‘취업정보가 부족하거나 잘 몰라서’가 ‘수입이나 보수가 많지 않아서’에 이어서 두 번째로, 그러니까 ‘수입이나 보수가 많지 않아서’가 30%였는데 ‘취업정보가 부족하거나 잘 몰라서’가 27.3%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을 기준으로 할 때 20개 부처별 159개 청년고용 지원 사업이 추진 중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 정책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책인 지도가 20% 미만이었습니다. 이 정책을 잘 모르니까 역시 참여도 저조해서 19.7%밖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제가 앞서 TF팀 구성과

관련해서 요청을 드렸고 지금 이렇게 취업이나 창업을 함에 있어서 제대로 정보가 없고 접근이 안 되고 있어서 잘 못 하겠다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화 분야 청년 일자리 포털을 구축할 필요가 있지 않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하겠습니다. 30초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예, 마이크 좀 넣어 주십시오.

○유은혜 위원 그래서 이 두 가지,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TF팀의 구성과 정보에 대한 접근과 또 실효성 있는 포털들을 만들기 위해서 문화 분야 청년 일자리 포털 구축하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빠른 시간 내에 이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존경하는 유은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 아깝게 들었습니다.

TF 구성은 충분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어떻게든 좀 구성을 해서 문제를 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취업정보 부족과 관련되어 가지고는 문화부 자체 내에서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것은 정말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저희도 노력하겠고 또 고용노동부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실제 취업, 고용이 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은혜 위원 종합대책을 좀 신속하게 만들고 저희 의원실하고도 상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경 위원 긴 시간 업무보고해 주셔서 업무 파악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들으면서 제가 몇 가지 좀 의문이 있는 것이 있어서 말씀을 여쭙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문화융성을 박근혜정부의 정책 어젠다로 하면서 매해 문화 관련 예산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습니다.

○전희경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문화의 중요성이라든지 문화강국으로 가야 된다는 방향성에는 모두가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문화산업의 가장 큰 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습니다.

○전희경 위원 그러니까 정부가 사 주고 정부가 봐주고 또 정부가 만들도록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자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어떤 동력을 잃어버리게 하거나 예술가 혹은 예술산업이 이런 쪽으로 포획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전희경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큰 줄기에 대해서 지금 부처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거의 시드머니에 해당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고용을 해 가지고 고용을 일으키거나 이러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저희가 이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희경 위원 전적으로 그 방향성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고요, 장관님께서 해 주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문체부 입장에서도 뭐 기금이라든지 또 분배 가능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향적인 검토를 하시지 않으시면…… 지금 보면 문화예술위원회나 이런 쪽하고 관련해서 지원금의 배분이나 이런 것을 놓고서 계속 정치적인 이슈로 시비들이 붙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되풀이될 것이고 이번 정부뿐만이 아니라 다음 정부에서도 저는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예산의 확보 부분이 아니라 예술의 본질은 자생적으로 그리고 수요자들의 선택을 따라야 한다는 그 기초에 대해서 부처 차원에서 꼭 강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유념하겠습니다.

○전희경 위원 두 번째는 제가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저도 생소한 기관들이 참 많았습니다. 오늘 듣게 되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아마 국민들께서도 이런 기관이 있었나, 이런 연구원이

있었나, 박물관이 있었나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의 내용을 보면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나 기관의 성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있는데 얼마큼이 와서 이것을 이용하고 수요를 어떻게 하고 있고, 이 프로그램의 그 실질적인 수요치가 보여 주는 성패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 빠져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자료요구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항상 어떻게 무엇을 한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특히나 이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서는 그것이 국민들의 삶에 어떻게 다가가느냐 이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런 수요 측면을 꼭 가미해서 저희 위원들께서 다 아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률 포함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희경 위원 다음은 도서정가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여쭙고자 합니다.

2014년 11월 도입된 도서정가제에 따르면, 그 룰에 따르면 18개월이 지난 구간에 대해서도 이것이 15%로 제한되어 있고 특히 가격할인은 10%까지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습니다.

○전희경 위원 이때 도서정가제가 도입될 때 도서정가제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가 뭐라고 되어 있었는지 혹시 장관님 기억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신간 발행을 좀 촉진하고 실제 가격거품을 뺏으로써 오히려 전반적인 도서가격의 하락을 저희가 촉진시키려고 그러는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전희경 위원 그것이 도서시장에도 활력을 주고 그리고 수요자들에게도 좋고 특히나 골목상권이라고 하는 그런 군소 소규모의 서점이나 이런 데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로 도서정가제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5년 12월에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나온 도서정가제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보고 내용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잉여가 상당한 규모로 감소했고 큰 부분이 온라인 서점으로 이동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골목상권이라고 하는 그런 중소 출판사 또 중소서점 보호를 위한 그런

효과들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혹시 이 보고서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그 보고서 내용은 제가 몰랐습니다만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또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신간 가격은 분명히 6.2% 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베스트셀러 신간 비중도 그동안에 60%였던 것이 90%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거점의 중소서점 매출도 분명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출판유통계하고 또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2017년도에 이것을 보완하는 것으로 초기에 이것을 할 때부터 이미 협의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곧 아마 이것들을 반영한 새로운 계획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전희경 위원 그래서 현실에서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도서정가제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희경 위원 그리고 아까도 언급이 되었지만 우리가 관광산업이든 뭐든 규제들을 풀어 주어야 새로운 산업도 발달을 하고 이리는데 개별 관광 수요들이 늘어나면서 개별 가이드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예, 그렇습니다.

○전희경 위원 예를 들면 우리 대학생이나 아르바이트로 개별 관광 가이드를 현행법상 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가이드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전희경 위원 가이드 자격증만 있으면 누구라도 가이드를 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예, 그렇습니다.

○전희경 위원 좋습니다. 에어비앤비 등 공유민박을 통한 그런 부분도 지금 이제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님, 이어서 딱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마무리하세요.

○전희경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오피스텔은 지금 원천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국인들은 사실은 아파트나 이런 형태보다 그냥 심플한 오피스텔 형태를 선호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현재로는 숙박법에 위반, 불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광진흥법을 개정할 것이고 그것이 새로운 종류의 중저가 호텔들이 들어서게 되면서 그런 문제들을 조금은 해소할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전희경 위원 그러니까 호텔이나 이런 데하고 오피스텔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핵심은 다양한 수요를 어떤 틀에 가두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 있어서 부처에서 깊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대로 실제 오피스텔도 호텔에 어울리는 그런 정도의 안전시설을 갖추고 있다면 얼마든지 호텔로 등록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오피스텔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불법으로 하다 보니까 창문도 없는 방이 많은 경우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단속하고 제대로 양지로 가게끔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희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훈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작권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3월에 알파고 대 이세돌 9단의 대국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인공지능의 시대가 왔구나 하는 것을 실감을 줬습니다. 이 대국을 조명 한 책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관님도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예.

○조훈현 위원 혹시 바둑 두실 줄 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아니요, 문외한입니다.

○조훈현 위원 그런데 이번에 출간한 책들 중에서 일부는 이세돌 9단의 기보를 사용하면서도 아무런 대가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기보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자들에게 기보 사용에 대한 저작권료를 내라고 하면 기보가 저작물이라는 관례를

제시하라는 식으로 대응하는 환경입니다. 소송을 할 태면 하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개념 정의까지 필요한 이러한 저작권의 문제를 소송을 통해 해결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개인으로는 쉽게 업무를 내지 못합니다. 장관께서는 이러한 불편한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알고 있습니다.

○조훈현 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별로 조치는 안 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그간에 이것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어 왔던 것은 아마 존경하는 조훈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간에 이것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고 판례나 해외사례에서 이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아마 이것을 인정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훈현 위원 저작권은 창작물을 보호하지만 그 권리를 실제 사업자로부터 보호를 받으려면 또 다른 벽이 가로막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저작물이라는 것을 예시한 저작권법 제4조에 반드시 포함을 시켜서 저작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4조제1항제8호는 2000년 1월에 개정된 후에 16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예시 추가도 없었습니다. 장관께서는 문체부가 저작권법 제4조제1항제8호를 기보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나서도록 추진할 의사가 있으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법적인 문제라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저작권위원회와도 여러 차례 이것에 대해서 그간에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훈현 위원 그러면 이 저작권법 도와줄 수 있다는 의사이신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논의를 좀 진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저작권위원회를 통해서요.

○조훈현 위원 이번에는 체육인 복지와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인 복지 강화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난

2014년 3월 10일 제3차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직접 체육인 복지에 관심을 나타낸 바가 있는데 현재 문체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체육인 복지사업은 무엇이 있고 예산은 얼마나 배정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지금 체육인 복지하고 장애인 복지 2개가 따로 되어 있는데 합치면 152억 9000만 원 정도 지금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훈현 위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체육인 복지 관련 사업을 보면 대부분 국가대표 선수나 국제대회 메달리스트에게 집중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체육인 복지사업은 국제대회 입상에 대한 보상적 성격이 강하며 통합체육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은퇴선수 지원 사업도 국가대표 선수에 치중되어 있고 예산도 지난해와 동일한 6억 원밖에 되지 않아 수혜대상은 극히 적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서는 체육인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또 수혜대상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존경하는 조훈현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체육인 복지 강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확대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좀 도와주시면 좀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조훈현 위원 체육인 복지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통합하여 체육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련법의 제정이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지난 19대 국회 때도 아시다시피 이것이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진행이 되었었는데, 또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공감을 했고 진행이 잘 되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별도의 재단을 설립하자는 주장 때문에 새로운 기구를 늘리거나 재단을 설립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재부의 반대가 조금 있어서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조훈현 위원 그런데 신규 기관 설립이 어렵다면 체육인 복지사업을 통합해서 집행할 수 있는

사업부서나 기구를 만들어서 사업을 전문적 효율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저희 생각에는 기존의, 신규 기관 설립보다는 기존에 있는 기관에서 충분히 관리 가능한 정도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기관을 활용해 가지고 하는 방식으로 법을 진행하는 게 지금 현재 재정 당국하고 부딪힘을 최소화하면서도 체육인 복지를 위해 갖고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훈현 위원** 어느 정도 진행하고 계십니까, 지금 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재단 설립 신규 기관만 뺀다면 제가 볼 때는 기재부에서도 반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훈현 위원** 장관님, 프로나 실업팀에 소속된 선수라도 스타급 선수가 아니면 최저임금도 못 받는 어려운 선수들이 많습니다. 체육인 복지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장관님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수고하셨습니다.

시간도 아주 정확하니 지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조승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래 위원** 안녕하십니까? 대전 유성갑 출신 조승래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경미 위원께서 위안부 유네스코 세계기록 등재 관련된 질문을 청장님께 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확인할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들도 이 문제에 관심을 두고서 문화재청에 이러저러한 자료 요청을 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자료를 요청했다면 ‘문화재청에서 위안부 기록물과 관련해서 토론회 등을 하신 적이 있는가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내용이 저겁니다.

‘위안부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관련하여 문화재청이 토론회를 개최하거나 주최한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맞습니까?

○**문화재청장 나선화** 예, 토론회를 한 적은 없습니다.

○**조승래 위원** 한 적이 없으시다고요?

○**문화재청장 나선화** 예.

○**조승래 위원** 2014년도에……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토론회를 개최했다…… ‘문화재청은 여성가족부와 한국유네스코위원회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어떡하지요?

○**문화재청장 나선화** 아니요, 14년도에는 여가부와 문화재청과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모여서 같이 MOU를 체결하면서 이 문제를 효율적으로 관련 기관이 협의해서 가자 하는 협약식을 하면서 인사말씀을 했지 토론회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간담회 형식의, 훨씬 적은 인원이기 때문에 간담회 정도의 의견을 나눈 적이 있지만 토론회를 한 적은 없습니다.

○**조승래 위원** 업무협약식과 토론, 같은 내용이다?

○**문화재청장 나선화** MOU를 체결했습니다.

○**조승래 위원** MOU 체결한 내용이라는 건가요, 저게요?

○**문화재청장 나선화** 예.

○**조승래 위원** 사실관계가 다를 텐데요?

주무 국장님,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문화재청문화재활용국장 김대현** 저희들도 파악하기로 여가부와 문화재청 그리고 유네스코한국위가 업무 협약을 체결한 그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별도의 토론회를 개최했다고는 저도 듣지 못했습니다.

○**조승래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들고 있는 게 보도자료입니다. ‘위안부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위해 머리 맞댄다’ 7월 18일, 2014년입니다. ‘위안부 기록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정책토론회 공동 개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하고 어떻게 업무협약식하고 같다고 얘기할 수 있지요?

○**문화재청문화재활용국장 김대현** 제 기억은 문화재청 주최로 했던 위안부 관련……

○**조승래 위원**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개최 계획에 보면 ‘붙임’, 이게 다 저희들이 확보한 자료인데요. ‘7월 18일 금요일 10~12시, 국회의원회관(제2세미나실), 주최 : 여성가족부, 문화재청,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문화재청장 나선화 그게 MOU 체결하고 간단한 간담회를 한 거지요.

○조승래 위원 그게 아닌데요.

○문화재청장 나선화 토론회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조승래 위원 자, 제가 마저 읽어드릴게요.

주요 참석 인사, 국회 여성가족위원장·문화재청장·유네스코한국위원장 등등 참여하셔서…… 주요 내용, 주제발표1-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사업의 목적과 의의, 주제발표2-세계사적 가치와 의미, 지정토론……

아니, 이렇게 한 게 무슨 간단한 MOU를 하신 건가요?

○문화재청장 나선화 그때는 분명히 MOU를 체결하면서 의견을 나눴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승래 위원 그러면 기억에 착오가 있으신 걸 인정하셔야지요.

○문화재청문화재활용국장 김대현 위원님 그것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재청장 나선화 자료 확실히 보내……

○조승래 위원 그리고 협약서와 관련해서 한번 여쭙 볼게요.

넘겨 주세요.

그 협약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약을 한 관련 기관들은 서면으로 통고를 하지 않는 한 이 협약은 계속 유효하다, 이렇게 협약서가 되어 있습니다.

서면으로 이 협약을 취소하셨나요?

○문화재청장 나선화 ……

○조승래 위원 그런 사실은 없지요?

○문화재청장 나선화 그런 사실 없습니다.

○조승래 위원 그런 사실은 없다고 저희들도 답을 받았습시다. 그러면 이 협약은 유효한 겁니까. 그렇게 되겠지요?

○문화재청장 나선화 서면 동의는 없었습니다.

○조승래 위원 그렇지요? 그 협약은 유효한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저렇게 위안부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관련해서 문화재청이 여성가족부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라는 민간기구와 함께 이 유산을 등재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MOU까지 한 겁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박경미 위원의 질의 과정에

뭐라고 답변을 하셨다면 문화재청장님은 ‘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해서는 문화재청은 들어오면 그냥 올릴 뿐이다’ 아주 소극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문화재청장 나선화 예.

○조승래 위원 그런데 그거는 아까 업무보고 내용하고도 달라요. 업무보고 23페이지인가요, 그것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지속적 발굴·확대’ ‘세계유산의 발굴 및 등재 관리 활동’, 여기에 다양한 유산들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올라오면 우리는 그냥 올릴 뿐입니다라는 소극적 행정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발굴·관리라는 것은 문화재청이 세계기록유산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두고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또 문화재청의 업무와 맞는 것이지요.

○문화재청장 나선화 제가 아까 답변을……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조승래 위원 자, 그런데 유독 이 문제에 대해서만 소극적으로 일관하신 이유가 뭐니까?

○문화재청장 나선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승래 위원 자, 2014년 시점에는 업무 협약을 하고 토론회까지 하시며 적극적으로 임하시다가……

저희들이 민간 쪽에서 움직이신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 보니까 어느 시점에서인가 문화재청이 소극적으로 변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저희도 증언을 받았고요, 그게 사실입니다. 왜 그렇지요?

○문화재청장 나선화 아니요, 소극적으로 변한 사실은 아니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승래 위원 자, 그러시면 앞으로 이 유산 등재와 관련해서, 위안부 기록 등재와 관련해서 문화재청이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장 나선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승래 위원 예.

○문화재청장 나선화 저희 문화재청은 세계유산 담당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유산이 됐든 기록유산이 됐든 무형유산이 됐든 또 그 지정 신청은 개인이든 지자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게 유네스코에서 통과되도록 자료 보완도 시키고 또 필요한 자료는 더 요청도 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렇게 참여를

하겠다는 것이고.

또 세계유산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발굴하는 일은 지자체가 하거나 개인이 하거나 단체가 많이 하시지요. 그럴 때 가치의 우열 순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문화재청 산하에. 심의위원회에서 철저히 심의를 해서 순서를 잡고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자체마다 단체마다 다 세계유산이 되기를 희망하시기 때문에 엄청나게 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승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좀 정리 해서 주시고요.

제가 10초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것 관련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유성엽** 한 30초 하세요, 30초.

○**조승래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이 과정을 보면서 물론 의혹이길 바랍니다. 실제로 업무협약식도 했고 토론회도 했고, 다른 전임자가 하신 것도 아니고 직접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문화재청장 나선화** 예.

○**조승래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자까지 다 토론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라고 공식적인 답변을 한 겁니다.

○**문화재청장 나선화** 예, 토론회는 제 기억에 지금 없고……

○**조승래 위원** 아니, 청장님은 그럴 수 있어요, 워낙 바쁘시니까. 2년 전 일을 어떻게 다 기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실무자들은 다 기록을 가지고 있을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자, 그러면 제가 느끼기에는 위안부 기록과 관련해서 민간한테 떠넘기면서 뭔가 소극적으로 변하는 계기가 있지 않았는가? 사람들은 지난번의 일본과의 협상 때문에 그렇다라고 의심을 하는 겁니다. 문화재청이 그 의심에 사실상 약간의 확증을 주신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재청장 나선화** 제가 좀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그런 단체나 지자체가 하시는 일을 도와서 순서를 잘 가려서 엄청나게 심사위원회가 해서 올리는 결과와 드린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지원에 관한 일입니다.

어느 지자체가 됐든 어느 단체가 됐든 개인이

됐든 저희가 지원하는 일은 행정적인 일을 지원하는 것이지 예산을 지원한다거나 하는 일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거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겠고.

저희 문화재청 산하에 세계유산팀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서 가능한 한 우리나라의 모든 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되기를 바라는 시대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임한다, 지원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유성엽** 제가 이렇게 들어 보니까……

○**문화재청장 나선화** 그리고 한 가지 조금 보완 설명을 드리면……

○**위원장 유성엽** 잠깐만, 이제 그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지금 우리 청장님 답변은 적극적으로 문화재청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세계유산에 대해서 행한다 그러는데, 지금 아까 우리 조승래 위원님 질의는 왜 갑자기 위안부 기록물 관련해서는 열심히 가다가 주춤거리는 것 같더라는 부분에 대한 질의인데, 서로 정확하니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무자 아까 어느 분이 일어서셔서 이따 확인한다고 그랬습니까?

○**문화재청문화재활용국장 김대현** 문화재활용국장입니다.

○**위원장 유성엽** 2014년도에 간담회가 됐든 아니면 협약식이 됐든 기안, 입안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재청문화재활용국장 김대현** 예, 확인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그래서 오늘 주질의 끝나기 전까지……

금방 어디 사무실에 직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담당자가? 확인해서 그 사본을 빨리 받아 보세요.

○**문화재청문화재활용국장 김대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2014년이니까 아마 캐비닛에 자료가 그대로 남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바로 우리 조승래 위원님한테 제출을 좀 해 주세요, 그 내용들을 사본 해서.

그러시고 나중에 좀 더 필요한 답변이나 이런 부분들은 개인적으로도 해 주시고 나중에 서면으로도 또 자세하게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장 나선화** 예, 사후에…… 그리고 자

료를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다음에는 우리 존경하는 한선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교 위원 우리 조승래 위원님 질의와는 상관없는데 혹시 또 이어질까 봐.

새마을운동 유네스코 등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새마을운동, 문체부 쪽이나 문화재청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았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저희가 진행은 안했던 것 같은데…… 행자부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한선교 위원 18대부터 얘기 나왔던 건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행자부에서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청기획조정관 박영근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

○한선교 위원 그래요? 잘 하십시오.

한식 세계화, 오늘 업무보고에 있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한선교 위원 어떻게 하시려 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한식 세계화……

○한선교 위원 역사박물관장한테 마이크 좀 주세요.

말씀하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한식 세계화 관련돼 가지고 계기별로, 특히나 정상 방문 계기 때마다 문화행사 통해 갖고 저희가 많이 알리고 있고요.

○한선교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음식의 세계화는…… 일본 스시는 세계화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베트남 쌀국수는 세계화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저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나라한테는 예를 들어서 콩을 원료로 하는 좀 개량화된 양념이라든지 이런 걸 해 갖고 한국의 두부 요리, 순두부, 이런 쪽으로 어프로치해야 되는 거지 너무 거북하게 궁중요리 뭐 이런 것들을 하면 전혀 세계화 안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한번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한선교 위원 역사박물관장님.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김용직 예.

○한선교 위원 제가 작년에 혼자 몰래 조용히 역사박물관에 갔었어요. 다 봤어요.

지금 역사교과서를 우리가 아주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개정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김용직 ……

○한선교 위원 아닌가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김용직 그거는 교육부에서……

○한선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들으세요.

이유는 이게 어디에 치우치면 안 되겠다…… 사실 역사박물관은 여기 방선규 아시아문화전당장 와 계시지만 이분이 주체적으로 관여를 하셨…… 어디 가셨나?

그런데 내가 가 보니까, 조용히 제가 1층부터 4층인가를 다 천천히 봤는데 이명박 정부 때 그걸 만들려 하니까 야당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도를 갖고 만드는 것이 아닌가. 사실 이렇게 가 보니까 제 입장에서 볼 때 반대쪽 의견을 굉장히 많이 받아들여 주셨더라고요. 역사교과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듯이 역사박물관에 전시된 여러 가지 기록이라든지 그런 것들 꼭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김용직 예.

○한선교 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 좀 비유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박정희는 정권이고 노무현은 정부예요.

앞으십시오.

민속박물관은 이전이 용산으로 언제 확정이 됐어요?

○국립민속박물관장 천진기 작년에 이전 기본계획비가 예산당국에 의해서 반영이 되었는데……

○한선교 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국립민속박물관장 천진기 예.

○한선교 위원 그리고 민속박물관 지금 경북궁에 있지 않습니까?

○국립민속박물관장 천진기 예, 그렇습니다.

○한선교 위원 거기 무슨 불국사 모형을 만들어 놓고 이런 이유 없는 구조물들 다 제대로 바꿔 갖고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장 천진기 문화재청 계획에 의하면 2031년에 철거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한선교 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국립국악원 원장님, 여기 참석자 명단 사진을 너무 젊을 때 사진을 쓰셨어요.

(웃음소리)

작년에 공연연습장 건립하려다가, 예산 받으려다가 못 하지 않았습니까?

○국립국악원장 김해숙 예.

○한선교 위원 올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립국악원장 김해숙 올해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선교 위원 장관님, 그것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선교 위원 제가 방문해 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그렇지 않아도 뒤쪽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선교 위원 아니, 준비가 아니고 예산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시설물이 오래됐고……

알겠습니다.

문화홍보원장님, 파리문화원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해외문화홍보원장 김갑수 지금 건물 매입을 완료해 가지고요.

○한선교 위원 매입입니까, 임대입니까?

○해외문화홍보원장 김갑수 기존 건물을 매입을 해서 리노베이션을 합니다.

○한선교 위원 기존 건물이 어디쯤에 있는 건가요? 내가 잘 모르지만, 중심가에 있습니까?

○해외문화홍보원장 김갑수 예, 파리 중심가에 있습니다.

○한선교 위원 아무리 한류를 갖고 K-컬처를 하고 뭘 하면 뭐 하겠습니까? 유럽의 중심 문화의 장소에 우리 문화원이 번듯하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문체부장관님도 관심을 가져 주셔 갖고 정말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한선교 위원 다음에 국립중앙도서관장님, 중앙도서관도 그렇고 용인시, 예를 들면 용인시 주민이 내가 책을 보고 싶은데 도서관에 없어요. 그러면 자기 돈으로 책을 사 갖고 보고 그걸 도서관에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도서 구입에 관한 선택을 주민이 하고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국립중앙도서관장 임원선 위원님께 처음 들었습니다.

○한선교 위원 저는 그것 굉장히 바람직한 일 아닐까, 1년 예산이 얼마라서 이걸 다 그냥 도서관 책임자가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필요한 분들이 그 책을 사 보고 반납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훨

씬 다양화되고 내용도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국립국어원장님, 1년 예산이 어떻게 되세요?

○국립국어원장 송철의 한 150억 좀 넘습니다.

○한선교 위원 그것 갖고 충분히 사업을 합니까?

○국립국어원장 송철의 많이 부족합니다.

○한선교 위원 저는 원장님들이 정말 뛰어야 될 것은 내용적인, 소프트웨어보다도 막 뛰어나면서 예산 좀 더 늘리시는 게, 저희가 도움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여기 예산 보니까 이것 갖고 과연 국립국어원이 어떠한 국어정책을 펼칠 수 있을까 그런 점이 제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국어원장 송철의 기재부에 지금 뛰어나고 있습니다.

○한선교 위원 국립중앙박물관장님!

○국립중앙박물관장 이영훈 예, 이영훈입니다.

○한선교 위원 박물관 방문하시는 분들이 내국인과 외국인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국립중앙박물관장 이영훈 지난 3년간 통계가 외국인이 약 4.6% 정도로 잡히고 있습니다.

○한선교 위원 조금 더 늘려야 될 것 같은데요.

○국립중앙박물관장 이영훈 예, 그런데 저희들 고민이 외국인과 내국인을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표를 받는 것도 아니고 외국인 전용입구가 있지 않아서 4.6%밖에 없습니다만 아마 좀 놓치는 숫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교 위원 그래야 10%가 되겠습니까?

○국립중앙박물관장 이영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선교 위원 우리가 외국 가면 가장 방문해야 될 곳이 박물관 아니면 미술관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박물관 자체가 외국 관광객들이 더 많이 방문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하고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장 이영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선교 위원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님, 공연장이 있나요?

○한국예술종합학교장 김봉렬 공연장이 작은 게 2개가 있습니다.

○한선교 위원 몇 석입니까?

○한국예술종합학교장 김봉렬 500석짜리가 있고

요. 300석짜리가 있습니다.

○한선교 위원 매일 활용이 되나요?

○한국예술종합학교장 김봉렬 거의 매일은 안 되고요. 1년에 한 3분의 1 정도 활용을 합니다.

○한선교 위원 그러니까 국립국악원에 좀 빌려 주시면 되지, 옆집인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성엽 기왕이면 문화재청 소속도 다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역시 중진 의원이시다 보니까 구석구석까지 살펴 주시는 게 대단히 인상적입니다.

다음은 강길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부 위원 강길부 위원입니다.

반구대암각화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반구대암각화는 아시다시피 7000년 전 바위에 그려진 우리나라 역사책으로 불리고 사람이나 해양·육지동물 등 300여 점의 형상과 세계 최초 30여 점의 고래와 고래잡이 흔적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선사시대 우리 선조들의 생활을 파악할 수 있는 세계적으로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장님, 인정하십니까?

○문화재청장 나선화 예.

○강길부 위원 반구대암각화의 중요성과 보존대책이 정치권은 물론 각종 언론과 시민단체들에 의해 부각되면서 이제 반구대암각화를 모르는 국민은 거의 없을 정도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010년에는 세계문화유산의 잠정목록으로 등재된 바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1971년 최초 발견 이후 풍화작용과 불법 탁본 등으로 훼손되었고 발견된 지 24년이 지나서야 1995년 국보 제285호로 지정되었지만 1965년 준공된 사연댐으로 인해 연중 8개월 정도 수몰되기를 반복하면서 발견된 지 45년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보존방안이 확정·시행되지 못하고 훼손이 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선진국에서도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화재청장님,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재청장 나선화 이게 세계적인 유산이기 때문에 절대 안전하게 보존을 하여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동안 보존안전책에 대해서 미비했던 것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보존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

니다.

○강길부 위원 그런데 1995년도에 발견된 지 25년 만에 국보로 지정됐는데 그 당시에 보존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보로 지정되었습니까?

○문화재청장 나선화 예, 제가 알기로는 보존대책이 없이 자연상태 그대로 보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길부 위원 그게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발견된 지 24년이 지나 가지고 지정이 됩니까? 그것 이상하잖아요. 설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그랬는지?

○문화재청장 나선화 중간에 사연댐이 생기면서 물에 잠기기 시작하는 횡수가…… 또 우리나라의 강우량이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잠기는 일자가 많아지면서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길부 위원 그건 대답이 못 됩니다.

반구대암각화 보존 문제는 그간에 수위 조절, 차수벽 설치, 생태제방 설치, 터널형 유로 변경 등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가 되었지만 결국 2013년 6월 가변형 임시 물막이, 소위 말하는 카이네틱댐 설치를 시도했지만 이걸 세계 유례가 없고 임시방편에 불과했던 임시 물막이이고 설치 모형 실험은 세 차례에 걸쳐 시행한 끝에 결국 지난 5월 24일 최종 실패됐지요?

○문화재청장 나선화 예.

○강길부 위원 그러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재청장 나선화 지금 이게 국내에서 처음 하는 기술이고요. 또 문화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문화재위원회에서는 1년 이상 안전을 위한 자료 요구를 계속해서 시설 자체,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검토를 한 후에 실제로 하기에는 그래도 무리이니 실험을 하자 그래서 실험이 돼서 몇 개월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험하는 지난달에 이음새에서 물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지금 문화재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7월에 문화재위원회가 열려서 중단 여부를 법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길부 위원 사실 반구대암각화 보존의 최선책인 수위조절이 문화재청이 요구했던 당초 안이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재청장 나선화 예?

○**강길부 위원** 당초에 수위조절안이 문화재청에서 주장했던 안 아닙니까?

○**문화재청장 나선화** 예, 알고 있습니다.

○**강길부 위원** 그래서 한승수 총리가 계실 때 2009년 보존대책을 수립해서 국토부의 2025년 수도정비기본계획에 고시가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문화재청장 나선화** 예.

○**강길부 위원** 여기 내용에 울산과 대구·경북 맑은물 공급사업을 통해서 사연댐 수위조절에 따른 대체수원, 그러니까 우문댐이지요. 울산 청정수원 확보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맞지요?

○**문화재청장 나선화** 예.

○**강길부 위원** 그렇지만 2011년에 와서 지자체간 정치논리에 의해서 구미공단 확장을 할 경우에 지역개발에 제한을 받는다고 반대해서 울산과 청도 사이의 우문댐에서 7만t을 공급받는 울산 맑은물 공급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현재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재청장 나선화** 예, 그렇습니다.

○**강길부 위원** 그 뒤 국토부의 용역 결과에 의하면 안동댐의 수량은 대구·경북 주민 500만 명보다 많은 8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수량이라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지요?

○**문화재청장 나선화** 예, 알고 있습니다.

○**강길부 위원** 이후 대구시가 음용수를 상류 쪽에서 취수하지 않고 구미시가 취수하는 하류 해평지점에서 동시에 취수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지요? 알고 계시지요?

○**문화재청장 나선화** 그 사실은 정확히 잘 몰랐습니다.

○**강길부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강변여과수 취수방안을 채택하면 현재 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가 절반 정도로 더 줄어들기 때문에 그간에 많은 진전이 있었다는 겁니다. 문화재청은 내용도 잘 모르고 있는 사이에 저희들은 열심히 주장을 했습니다. 문화부 쪽에서도 관심이 없고 문화재청에서도 관심이 없고 자기가 주장했던 것이 관철되어서 고시했는데 왜 방치하느냐 이겁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문화재청장 나선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강길부 위원** 이 사실이 맞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수위조절안이 문화재청이 요구하는 안이었고 즐기치게 주장을 하다가 그 뒤에 정홍원 총리 있을 때 카이네틱댐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때도 저는 이해를 못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갖고 반구대 앞에 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도 문화재청의 태도가 너무 이상했어요. 카이네틱댐을 하는데 동의를 하면 안 되지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문화재청장 나선화** 예,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때 상황을요?

○**강길부 위원** 이야기해 보세요.

○**문화재청장 나선화** 그때는 무조건 사연댐을 낮춰서 수위 조절을 하자는 문화재청의 안과 또 그렇게 해서만이 아니고 맑은 물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시민들이 건강을 위한 맑은 물에 지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안을 충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을 모색을 하다가 카이네틱댐 안이 채택이 됐고 그 안에 대해서 국무총리실, 문체부장관, 울산시장, 문화재청장, 네 기관이 공동으로 합의해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문화재의 안전관리이기 때문에 아무리 최선의 방법이라 할지라도 처음으로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증이 필요해서 위원회에서는 오랫동안 검증 자료를 요구하고 검증을 해서 실험을 하게 됐던 겁니다.

이상 설명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길부 위원** 그러니까 카이네틱댐은 임시 물막이이기 때문에, 이름 자체가 임시잖아요?

○**문화재청장 나선화** 예, 임시 물막이였습니다.

○**강길부 위원** 그러면 원래 했던 그것은 그대로 간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 안에 대해서 계속 추적을 해야지요. 이것은 아예 기술도 검증되지 않은 것이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 안 되는 걸로 됐으니까 이러다 보니까 또 다른 얘기가 들리는데……

○**위원장 유성엽** 강길부 위원님, 어때요? 보충질의에서 한 번 더 하시면 어떨까요? 지금 또 다른 위원님들이 기다리……

○**강길부 위원** 1분 내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아니, 아까 1분 더 드렸거든요, 사실은. 1분을 더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1분을 드려도 좀 부족할 것 같은데 다음 보충질의에서 해 주시고……

○강길부 위원 예.

○위원장 유성엽 감사합니다.

○문화재청장 나선화 위원님께 더 상세한 자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개인적으로도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김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 위원 용인율의 김민기 위원입니다.

문화재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재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 몇 가지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MOU는 체결하신 것 맞지요?

○문화재청장 나선화 예.

○김민기 위원 그게 4월 3일이에요. 그다음에 토론회 하신 것 맞지요?

○문화재청장 나선화 제가 지금 토론회를 기억을 못 하고요.

○김민기 위원 인사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문화재청장 나선화 MOU에 가서 인사말 하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요. 그 이후에 구체적인 회의에는 제가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김민기 위원 잠깐, 제 말씀 들으세요. 제 말씀 들으세요.

4월 3일 날 MOU 작성한 것 맞습니다. 근거가 있고요.

○문화재청장 나선화 예, 세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기 위원 제가 지금 바로 드릴 수 있다가요! 좀 가만히 계세요.

○문화재청장 나선화 예.

○김민기 위원 그리고 7월 18일 날 토론회 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는 거지요?

○문화재청장 나선화 세부 자료 확인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기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 토론회 자료가 여기 있고요. 여기 인사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 아니라고 그러시지 마시고 기억이 없으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옳아요.

○문화재청장 나선화 예, 기억이 없습니다.

○김민기 위원 사실입니다, 이것.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유네스코 기록유산이 몇 개나 등재돼 있지요?

○문화재청장 나선화 기록유산이요? 정확하게 제가 숫자를 잘……

○김민기 위원 지금 13개입니다. 13개예요.

○문화재청장 나선화 모르겠는데 몇 개 안 됩니다.

○김민기 위원 그런데 문화재청에서는 ‘그것을 요구하면 다들 서포트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지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딱 하나 안 했습니다, 13개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훈민정음,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등등 이런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 13개 중에 딱 하나는 5·18 기록이에요. 그것은 문화재청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문화재청장 나선화 개인, 단체가 할 수 있습니다.

○김민기 위원 그런데 아까 다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지금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말하는 게 위안부 기록입니다. 자, 그러면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것에 대한 추론이 가능한 겁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처음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위안부 기록을 유네스코 기록문화재로 등재하기로 했다는 것은 문화재청과 여가부가 공히 공통된 사안이었어요. 그리고 문화재청에서도 2014년, 15년 ‘반드시 하겠다. 2017년까지 하겠다’라는 업무보고가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업무보고가 확 바뀌었습니다, 올 2월에 한 것. 그 내용 쪽 들어갔어요. 내용이 들어간 것은 고사하고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중일 경쟁 과열 및 역사 갈등 심화’ 이 얘기는 뭐예요?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바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바뀌면 상황이 바뀌었거나 인식이 바뀌었거나입니다, 청장님이. 그런데 이때 다 청장님은 본인이세요. 기억하시지요?

○문화재청장 나선화 예.

○김민기 위원 그래서 잘해 보려고 보도자료도 내고 국회 토론회도 하고 MOU도 체결하고 열심히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가부에서는 이 지원 예산을 4억 4000이나 만들어요. 올해 예산이 4억 4000이 있다니까요, 여가부에? 그런데 여가부에

서 작년에 위안부 합의가 딱 일어나고 나더니 이 예산을 안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푼도. 그래서 왜 안 쓰느냐 이렇게 물었겠지요. 국회에서도 묻고 이 신청한 민간단체에서도 묻고 그랬더니 여가부장관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얼마 전에 한 거예요. '문화재청에서 컨설팅을 받았다.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는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컨설팅을 받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쓰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이런 컨설팅을 했느냐 이게 제 질문이에요.

○문화재청장 나선화 답변 올릴까요?

문화재청에서 컨설팅을 한 적은 없습니다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MOU를 체결하고 그런 자리에서, 아까 박 위원님 질문하셨을 때도 제가 답변드렸는데요 이 문제가 일본과의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피해 국가들, 동남아시아의 여러 피해 국가들과 함께 민간단체들이 노력하고 있으니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정도의 의견이 공유된 것으로 알지 저희 문화재청이 컨설팅을 한 적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김민기 위원 아까 컨설팅했다고 그랬어요. 자문했다고 그랬어요.

○문화재청장 나선화 그런 자문 한 적은 없습니다. 실무적인 내용은 제가 몰라서 모르겠지만 제가 보고받은 바 없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런 민간단체가 하는 게 좋겠다는 사실이 MOU 체결하는 회의 장소, 간담회에서 얘기가 됐기 때문에 공유됐을 수는 있겠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민기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문화재청에서는 이것을 포기하는 겁니까?

○문화재청장 나선화 그렇지 않습니다.

○김민기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재청장 나선화 일단 저희 문화재청을 경유해서 올라가는 자료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자료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5·18 기록유산 같은 경우는 문화재청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올린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를 경유해서 올릴 경우에는 저희가 잘 검토해서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김민기 위원 청장님!

○문화재청장 나선화 예.

○김민기 위원 말씀 고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등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지금 그 말씀은?

○문화재청장 나선화 예, 등재가 신청이, 지금 제가 조금 보완을 드릴 것 같으면요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들, 8개국을 해서 지난 5월 31일 날 기록을 등재를 올렸더라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김민기 위원 청장님!

○문화재청장 나선화 그다음 저희가 열심히 땀 것입니다.

○김민기 위원 잠깐만요, 청장님!

그러면 지금 한 가지를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 의지가 계신 것을 제가 확인했으니까 부탁드립니다.

여가부장관은 국회에서 이런 말씀 하신 거예요. '문화재청에서 컨설팅을 받았는데 민간단체에 그냥 넘기는 게 좋겠다라는 컨설팅을 받아서 이 예산은 쓸 필요가 없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예산을 쓰지 않으면 그 일은 무너집니다. 그러니 이것에 대해서 여가부에다 얘기를 좀 해주세요.

○문화재청장 나선화 예, 그 역할은 하겠습니다.

○김민기 위원 마치겠습니다.

○문화재청장 나선화 장관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상도 위원 새누리당 대구 중구남구 광상도 위원입니다.

장관께 좀 묻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실태조사한 결과를 확인해 봤더니 쇼핑이나 음식, 패션 때문이라는, 한국을 찾는 이유가 이렇다고 하는 실태조사가 얼마 전에 있었고 또 다른 기관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한국이 친절하고 음식이라든가 쇼핑이 좋아서 다시 찾는다' 하는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빠진 게 뭡니까? 관광에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먹는 것, 친절한 것, 옷 보는 것, 옷 사는 것 이것 외에 여기 구비가 돼야 되는 게 뭡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불거리가 빠져 있고요.

○광상도 위원 불거리가 빠졌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곽상도 위원** 케이 팝이라든가 이런 일회용 공연 외에 우리가 외국인한테 보여주는 한국을 나타내는 상징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곽상도 위원** 에펠탑 같은 것,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같은 이런 것들은 상당한 상징성을 갖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자체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는 내놓고 자랑할 수 있는 이런 상징적인 건축물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아시다시피 에펠탑이라고 하는 게 철강산업사회가 찾아왔다는 것을 알리는 이런 형식의 구조물이 그 자체로 프랑스를 상징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그 나라 역사를 상징하는 하나의 상징물인데 우리나라도 이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습니다.

○**곽상도 위원** 경주 왕릉이라든가, 우리나라도 경주 왕릉 때문에 사실은 경주 분들이, 1000년을 후손들이 먹고살지 않습니까? 우리도 과거에 물려받은 게 없으면 지금부터라도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어떤 상징물을 만들어서 이것으로 우리 후손들이 먹고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방안 중에 하나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어느 누구한테 얘기하더라도 우리가 단기간에 근대화하고 또 산업화해서 OECD에 진입했다는 게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견해차는 좀 있겠지만 이런 상징적인 건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후대들이 먹고살 수 있는 토대를 지금부터 만들어서 새롭게 우리나라 관광이 도약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큰 비전을 한번 그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저희가 이번에 관광과 관련된 몇 가지 안 중에 하나가 잘되는 곳을 더 잘되게 만드는 것 그것에 핵심을 갖고 있습니다. 질적으로 개선하고 잘되는 곳을 더 잘되게 하자라는 것인데 그것은 현재 서울 같은 경우에 보면 고궁들을 굉장히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궁의 현재 상태만 보여 주는 것이 아니고 ICT하고 접목된 것들도 보여줄 수 있게끔 야간개방도 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하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고 지역 거점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근대 건축물을 포함해서 다양한 콘텐츠

들이 갖춰져 가지고 거기 가서 최소한 하루 이들은 둘러볼 곳이 있게끔 저희가 미리 마련해 놓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곽상도 위원** 종교적인 시설을 굳이 얘기해서 조금 그렇습니다만 스페인 같으면 사그라다 파밀리아라든가 아부다비에 가면 모스크 같은 이런 것들, 지금 현대적인 건축물들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그 자체로 굉장한 예술성도 가미하고 있고 그 나라 문화적인 수준을 높여 주는 재료가 되고 있는데 우리도 옛날에 있었던 고궁 이런 것만 가지고 자꾸 얘기할 게 아니고 지금 현재를, 이 시대를 대변하거나 대표할 수 있는 이런 상징을 좀 만들었으면, 저는 그런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고궁 가는 것 그것 한두 번은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를 보여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시대를 보여 주는 게 없다는 그런 뜻에서 뭔가를 좀 만들어 주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장관께서도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동대문에 있는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자하 하디드의 건물 같은 경우에 관광객들이 꽤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역에도 여기저기 들어설 수 있게끔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곽상도 위원** 그런 건물들 같은 경우는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를 대변해 주는 이런 상징성은 좀 모자라지 않습니까? 한국의 과거나 역사라든가 어떤 통합이 필요하다는 한국 사회를 나타내는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음속으로 많이 다가가지는 않는 건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뜻하고 우리를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것을 좀 만들어 주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유념하겠습니다.

○**곽상도 위원** 또 하나는 아까 문화의 날 관련해서 이런저런 말씀이 좀 있었습니다만 문화시설이 수도권에 굉장히 편중돼 있는 것으로 지금 통계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문화기반시설이 36%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지방은 상대적으로 문화기반시설이 없으니까 문화적인 행사를 할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돼서 아까도 여러 번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지방의 문화적인 것을 향유하거나 하는 게 부족하고 할 수 없다

하는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문화의 날도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지방을 배려할 수 있는 정책적인 안배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존경하는 박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곽상도 위원 영화에 편중돼 있는 문화의 날 행사도 사람들에게 상당히 부담을 주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행사가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국립현대미술관장님께 한번 여쭙보겠습니다.

이우환 씨 위작 문제도 있고 천경자 씨 위작 문제도 있는데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앞으로 그림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구입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입할 때 이런 위작 문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우리 국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좋은 팁이 있으면, 말로 하시면 지금 시간이 안 되니까 나중에 서류로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통역됐습니까?

○국립현대미술관장 바르토메우 마리 리바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상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 위원 안녕하십니까?

분당을의 김병욱 위원입니다.

문화재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중국의 난징대학살 기록물이 유네스코에 등재된 것 아시지요?

○문화재청장 나선화 예.

○김병욱 위원 확실히 아시나요?

○문화재청장 나선화 그런데 등재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주 확실히 제가……

○김병욱 위원 제가 유네스코 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는 등재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네스코 등재가 민간 사이트에서도 추진할 수 있고 정부 사이트에서 추진할 수 있고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서 추진할 수도 있는데 중국은 어디가 주체적으로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문화재청장 나선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병욱 위원 중국은 정부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중국은 이렇게 자주적으로 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잘 추진했던 것을 아까 청장님 말씀은 민간이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변명으로 이렇게 일을 소홀히 하시는지 정말 속마음을 알고 싶어서 여쭙는 것입니다.

○문화재청장 나선화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김병욱 위원 예.

○문화재청장 나선화 세계유산이나 무형유산은 국가가 직접 합니다. 그런데 기록유산은 여러 개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체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가가 전면에서 나서서 하지 않고 그 자료가 유네스코 위원회의 위원장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욱 위원 저희가 알고 있는 자료로는 쿠바의 체게바라 기록물도 정부와 민간이 함께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재청장 나선화 예, 정부도 할 수 있지만……

○김병욱 위원 그런데 우리는 가장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청장 나선화 예.

○김병욱 위원 그리고 있던 예산도 삭감하고 불 사용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이 추진하는 것을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와주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예산 아닙니까?

○문화재청장 나선화 예, 그렇습니다.

○김병욱 위원 그런데 예산을 삭감하고, 뭘 지원하겠다는 것이지요?

○문화재청장 나선화 그러니까 지금 세계유산에 관한 모든 것은요 기록유산뿐만 아니라 세계유산, 무형유산 모두 다 지자체나 아니면 개인이 그 자료 준비를 예산을 투입해서 합니다. 저희 문화재청에서의 예산 지원은 지금까지 한 건이 없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이 시간에 답변…… 자료는 아닐 것……

○김병욱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선왕조실록이라든지 승정원 다 이게 문화재청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예산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청장님께서 팩트를 틀리게 말씀하는 게 너무 많아요.

○문화재청장 나선화 그것은 고궁에서 소장하고 있는, 우리가 실록이라든지 그 궁중유물은 고궁에서 합니다.

○김병욱 위원 그러니까 솔직하게 ‘이러이러해

서 못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솔직하게 이리이러해서 못 하겠다고 말씀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문화재청장 나선화** 이게 거짓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김병욱 위원** 이런저런 핑계가 전혀 저는 설득력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이리이러해서 못 하겠다고 말씀하십시오.

○**문화재청장 나선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대로 말씀드렸지 그것을 왜곡하거나 덮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단지 제가 아까 기억이 잘못된 것은……

○**김병욱 위원** 자, 그러면 무엇을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뭘 지원하시겠습니까? 예산도 안 주고 그러면 뭘 지원한다는 것이지요?

○**문화재청장 나선화** 저희가 행정 지원을 다 합니다.

○**김병욱 위원** 무슨 행정 지원을 한다는 것이지요?

○**문화재청장 나선화** 등록이 되도록 하기 위한, 또 여러 가지 저희가 유네스코와 연결된 조직들이 있기 때문에……

○**김병욱 위원** 그러면 그 행정 지원에 돈이 안 들어갑니까? 행정 지원에 돈이 안 들어갑니까? 예산을 하나도 반영 안 하고 어떻게 지원이 된다는 것이지요?

○**문화재청장 나선화** 행정 지원은,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가부에서 기획해서 하는 일은 여가부에서 하는 일이고요. 또 지자체에서 하는 일은 지자체 예산으로 이루어집니다. 문화재청 예산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병욱 위원** 이것으로 하고요.

우리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김병욱 위원** 리우올림픽이 곧 열리는데요. 출전선수 엔트리 마감일이 언제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18일 날……

○**김병욱 위원** 그런데 지금도 박태환 선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박태환 선수 문제는 지금 현재 국가올림픽위원회에서 그것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욱 위원** 그러면 장관님 입장은 어떠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제가 견해를 밝히는 게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 말을 하게 되면 결국은 올림픽위원회가 압력을 받지 않겠습니까?

○**김병욱 위원** 그런데 저희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면요, 물론 박태환 같은 스타가 보호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공정하고 평등하게 업무를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보면 오히려 과도하게 불이익을 받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도핑 판정받은 후에 징계를 받았지 않습니까? 제가 1년 4개월인가 출전금지, 자격정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나서 올해 또 이사회에서 징계를 받았어요.

IOC나 또는 상급단체의 규정에 따르면 이중처벌을 금지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규정과 글로벌 기준이 다를 때 어느 것을 우선시해야 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그 문제 역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알고 있기로는 CAS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서 진행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 아마 한국의 NOC에서 그것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김병욱 위원** CAS는요 이중처벌을 금지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알고 있습니다.

○**김병욱 위원** 그런데 그게 판결이 나면 우리 엔트리 마감일이 지날 수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그것은……

○**김병욱 위원** 왜 국제 기준은 이중처벌을 금지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체육회에서는 과도하게 특정 선수에 대해서 징계를 많이 내리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박태환 선수한테만 특별히 징계가 더 강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전에도 똑같은 룰이 계속 적용이 되어왔고 이런 도핑 문제뿐만이 아니라 성희롱, 성추행 이런 것과 관련되어 가지고도 똑같은 징계 절차를 다 밟아 왔습니다.

○**김병욱 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왜 그 문제만큼은 글로벌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제가 알기로는 스포츠계의 여러 가지 비리 문제라든지 4대약 문제 관련되어 가지고 강력한 처벌을 하다 보니까 동시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것으로 제가 이해하

고 있습니다.

○**김병욱 위원** 박태환 선수를 출전 안 시키면 기록상 출전할 자격이 있는 다른 남자 수영선수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것은 개별 선수의 출전 여부하고 상관이 없는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김병욱 위원** 제가 언론을 보면 선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박태환 선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출전할 선수도 없고,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이중처벌을 하고 있고, 그런 비상식적인 행위가 계속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주무 장관으로서 그것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글썽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올림픽위원회……

○**김병욱 위원** 제가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뭔가 보이지 않는 체육계의 손이 움직여서 이러한 이상한, 국민의 정서와 다른 결론을 계속 유도하고 있지 않느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보고요.

○**김병욱 위원** 그런데 설명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올림픽위원회는 독자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기구입니다.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개입하기가 어려운 것이고요. 올림픽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잘 판단할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병욱 위원** 그 판단의 시기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7월 18일을 넘어가면 어떻게 하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그 문제까지 함께 고려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문제를 NOC가 모르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김병욱 위원** 나중에 다시……

○**위원장 유성엽**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보충질의 또 하시지요.

다음은 나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동작을 출신 나경원입니다.

제가 5년 만에 상임위원회에서 문화부랑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5년 전에 있었을 때하고 달리 한국전통문화대학교가 그때 막 법이 통과되었는데 이제 만들어졌고 새로운 기관도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문화부가 그동안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애써 주신 것은 여러 가지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오늘 업무보고 8쪽에도 보면 ‘콘텐츠산업의 새로운 성장 전환점 요구 증대’ 이렇게 나오면서 콘텐츠산업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위험한 사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한때는 IT 강국, 게임 강국 이런 이야기 듣다가 지금은 그 이야기 못 듣고 있는 것 잘 아실 겁니다. 사실 그에 비해서 최근에 중국의 텐센트가 슈퍼셀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나경원 위원** 그것을 인수하는 등 이렇게 중국의 발빠른 변화를 보면 우리는 사실은 오히려 산업을 선도하는 법을 만들기는 커녕 중복규제 또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서 끊임없이 콘텐츠산업화의 발목을 잡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환점 요구 증대’ 이렇게만 써 놓으시고 해법은 자세히 안 써 놓으셨는데요.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걱정이 되면서……

혹시 ‘별에서 온 그대’가 중국에 얼마에 팔렸는지 아십니까, 방영료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제가 정확한 그 숫자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나경원 위원** 별에서 온 그대가 6억 7000만 원에 팔렸습니다. 별그대를 사서 중국의 아이치이라는 업체는 광고료만 1000억 원을 넘게 벌었다고 합니다, 광고료만.

자, 그러면 최근에 인기 있는 ‘태양의 후예’는 얼마에 판 줄 압니까, 방영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나경원 위원** 그것은 48억 원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태양의 후예가 회당 평균 2억 뷰 이상의 조회 수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이 자국의 콘텐츠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벽을 계속 높이 쌓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류 콘텐츠가 방송을 통해서 못 보여져서 유튜브 플랫폼을 지금 바꾸고 있는 것도 잘 아실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나경원 위원 그래서 저는 전환점 요구 증대만 나오고 해법이 안 나왔는데 우리 국내에서의 규제를 없애는 것은 물론이고 이렇게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지금 중국이 지나치게 자국의 콘텐츠 산업을 보호하는 부분, 실질적으로 방영권 외에는 아무것도 팔지 못하게 하고 그들이 모든 여러 가지 광고 수입은 물론이고 관련된 여러 가지 판매수익을 다 올리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뭔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결국 콘텐츠를 만드는 작가들은 마음껏 만들게 하고 정부가 이것을 산업화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문화부가 지금 전환 요구 증대만 써 놓으셨는데 혹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님, 이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한중 FTA 후속 협상과 관련되어 가지고도 산자부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 그래서 방송이나 영화, 애니메이션 같은 콘텐츠들, 특히나 또 게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공동제작 활성화를 좀 지원하면서 우회전략을 통해서라도 이것을 풀어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콘텐츠산업이 전반적으로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경기 하락하고 조금 맞물린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과도한 규제가,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과도한 규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자꾸 이것을 증독이라는 어떤 질병 코드화하는 그런 움직임들, 이런 것들이 사실 이 문제를 자꾸만 발생시키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콘텐츠산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게 벤처기업들, 새로 창업하는 벤처기업에 의해서 이렇게 유도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 분야에 많은 투자를 지금 하고 있고 시드머니를 그쪽에 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위원 그래서 문화부 차원에서 좀 더 아주 대대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공동투자 부분도 실질적으로 좀 더 들

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해외문화홍보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나경원 위원 지금 해외문화홍보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하면서 사실상 확대되고 있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직…… 이제 31개 정도 되는데, 지금 국제 문화 교류나 또는 문화 외교나 갖고 계속 영역 다툼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해외문화홍보원의 사실상 관할이 외교부의 관할하고 같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습니다.

○나경원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조정을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답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님께서 외교위원장 하시면서 이미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나경원 위원 예, 공공외교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그래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가 외교부에서 너무 취약파라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나경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는데요. 조금 조정을 하시고, 관할 부분이라도 좀 조정을 하시는 것을 한번 첫 발자국으로 정리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나경원 위원 제가 문화재청장님께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청장 나선화 예.

○나경원 위원 오늘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보니까 고생하실 만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여가부가 잘못해서 이 예산을 삭감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야당 위원님들이 오해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작년에 사실 위안부 협상 이후에 예산을 삭감함으로써 이렇게 오해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재청이 직접 무슨 문화유산 등재를 신청한 적은 없으신 것이지요?

○문화재청장 나선화 예, 그렇습니다.

○**나경원 위원** 그러니까 MOU를 체결한 것은 결국 문화재청이 신청이 들어오면 그러한 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뜻으로 MOU를 체결하신 것이지요?

○**문화재청장 나선화** 예, 그 일을 협력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나경원 위원** 그래서 저는 오해가 없도록, 이것은 왜냐하면 작년 2015년 위안부 협상에는 국제적 비난과 비판을 못 한다, 그러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일본이 성실히 이행했을 때’……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유성엽** 예.

○**나경원 위원** ‘일본이 성실히 이행했을 때’라는 단서 조건도 붙어 있고, 그랬을 때 국제적 비난과 비판을 못 하는 것이지 이렇게 사실을 등재하는 것은 전혀 한일 위안부 협상과 관련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성가족부가 이 민간단체 지원 예산을 삭감한 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은 위안부 협상 전이나 후나 똑같은 자세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다른 부분이 있다면, 지금 아까 업무보고의 내용이 바뀌었다 이런 부분도 지적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한일 위안부 협상하고 전혀 관계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문화재청장 나선화**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성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웅래 위원** 서울 마포갑의 노웅래 위원입니다.

장관께 먼저 하나 확인할게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노웅래 위원** 전에 있었던 쪽지파문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노웅래 위원** 쪽지파문, 알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노웅래 위원** ‘여야 국회의원끼리 싸움 붙여라’ 국회를 모독하고 국회 품위를 훼손한 막말이지요, 그렇지요? 그것 상응하는 조치 한다고 그랬는데, 조치 어떻게 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그 후에 그것에 대한 조치를 취했었고요……

○**노웅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그래서 그 쪽지를 썼던……

○**노웅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징계가 어떻게 되었느냐고요? 그것만 얘기하면 돼요, 설명하지 마시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징계 그때 받았습니니다.

○**노웅래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받았느냐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정직이었지요, 제가 알기로는.

○**노웅래 위원** 감봉 1개월이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감봉인가요? 예.

○**노웅래 위원** 그런데 최근에 어떻게 되었어요, 봐줬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봐줬다기보다는 그야말로 징계가 끝났는데……

○**노웅래 위원** 견책…… 결국 징계도 봐줬잖아요, 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징계가 끝났는데 계속해 가지고 징계를 이어 갈 이유는 없었기 때문에……

○**노웅래 위원** 감봉 1개월에서 견책으로 바뀌었잖아요, 최근에.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제가 그것 잘 기억 못 하겠습니다.

○**노웅래 위원** 이렇게 봐줘도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봐준다고…… 따로 봐준 적은 없습니다.

○**노웅래 위원** 관리감독 책임자로서 이렇게 해도 됩니까? 국회 무시하고 국회 깔보고 막말 하고 이러는데 이렇게 봐줘도 돼요, 제 식구라고?

당사자인 우 국장 어디 있어요? 일어나 보세요. 얼굴 들고 온 거예요? 할 말 있어요? 얘기해 봐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행정관 이상일** ……

○**노웅래 위원** 조심해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행정관 이상일** 예, 알겠습니다.

○**노웅래 위원** 얘기하라고! 조심하라고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행정관 이상일** 예, 알겠습니다.

○**노웅래 위원** 앞으로 한 번 더 하면 국회모욕

죄로 처리돼요, 예? 명심해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이상일** 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위원님, 이미 공식적으로 사과도 했고 징계도 받았습니다.

○노웅래 위원 그런데 왜 봐줬냐는 얘기에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봐준 적 없습니다.

○노웅래 위원 감봉 1개월에서 견책 되었으면 봐준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직원이 이미 징계를 받았고 징계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징계할 이유는 없습니다.

○노웅래 위원 아니, 감봉 1개월에서 견책 되었는데 안 봐준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감봉된 것도 제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일입니다.

○노웅래 위원 소청심사위도 똑같은 정부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그러면 그것은 거기가 바로 그런……

○노웅래 위원 아니, 그것 봐준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그런 징계와 관련된 것을 심판하는 곳입니다.

○노웅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봐준 게 아니라는 얘기에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봐주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웅래 위원 봐준 게 아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노웅래 위원 그러면 도와준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

○노웅래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펀드는 것은 아니지요, 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본인이 결정한 것 아니라 하더라도.

질문할게요.

체육진흥공단 위탁을 받아서 하는 국가수탁사업, 체육복권사업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노웅래 위원 이것 연매출이 얼마예요? 3조 원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노웅래 위원 어마어마한 사업이지요. 당연히 이것은 경영과 소유를 분리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노웅래 위원 횡령 배임 이런 얘기 나오면 안 되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노웅래 위원 사업권 뺏기고, 박탈당하고.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노웅래 위원 그런데 이것 국가수탁사업자가 작년 7월 달에 바뀌었지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습니다.

○노웅래 위원 스포츠토도에서 케이토토로 바뀌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노웅래 위원 그런데 적자가 계속 나고 있어요, 작년도도 7억 올해도 7억.

새 수탁자 케이토토, 대주주가 누구냐? 사모펀드 두 곳이에요. 사모펀드가 뭐하는 데입니까? 일 터지면 책임지지 않는 데잖아요. 책임소재가 모호한 데지요. 이 사모펀드의 투자운용사가 케이토토의 경영권을 장악했다 이러면 경영과 소유가 분리가 안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케이토토가 입찰 당시에 소유와 경영 분리하겠다고 분명히 제안서에 냈지요, 당연한 것이지만? 그런데 실제로는 거짓말이지요? 전혀 거짓말 했습니다.

케이토토 경영진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국회 관련 상임위 수석전문위원 출신, 전직 기재부 차관보, 전직 국정원 지부장, 전직 판검사, 여기에 포진해 가지고 경영권 장악하고 있어요. 뭐예요, 일 터지면 막아 달라는 것 아니에요? 이것 투명하고 공정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사모펀드의 투자운용사 간부들이 다 고문으로 들어가서 1년에 1억 이상씩 받고 법인카드 수천만 원씩 쓰고 있어요, 흥청망청. 이러니 적자 안 나오?

과거 어떻게 되었습니까, 스포츠토도? 횡령해 가지고 결국에는 사업권 박탈당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노웅래 위원 그래서 새 사업자로 바뀌었지요?

지금 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공단이 이것 특별 감사 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습니다.

○노웅래 위원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노웅래 위원** 이것 정확하게 관리감독 철저히 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웅래 위원** 또 배임 횡령 생기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박탈당하면 안 되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노웅래 위원** 박탈당할 것 같으면 확실하게 빨리 손을 대야지요, 문제가 있으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웅래 위원** 지금 내가 얘기한 것만 갖고도 이것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감독 특별히 하시고요, 감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웅래 위원** 확실하게 보고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문화부에서 잘하는 게 있지요. 우리 문화의 날 하고 있는 것이지요, 문화의 날이요. 그런데 여기 아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문화의 날 우리 국민 인지도가 57.6%라고 되어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노웅래 위원** 그런데 진짜 그렇습니까? 과장한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노웅래 위원** 57.6%면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둘 중의 하나는 알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습니다.

○**노웅래 위원** 그런데 그렇게 알까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사는 패브리케이션트(fabricate)하지 않았습니다.

○**노웅래 위원** 이것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노웅래 위원** 이게 정착되어야 되는데, 실제 관람객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착되고 있어요? 아니지요? 정착 잘 안 되고 있지요?

이것 실제로 보면 예술의전당 같은 데 어때요? 문화의 날 관광객 늘어야 되는데 더 줄었습니다. 보통 날 2600명, 문화의 날은 2800명. 민속박물관, 문화의 날은 1만 2000, 저기 1만 1000. 국립현대미술관 과천점 2900명, 이것은 더 적었어요

문화의 날이. 3700명, 보통 날. 그래서 아직 정착 단계는 아니라고 보이는 것이고요.

지금 매달 마지막 수요일 날 하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노웅래 위원** 그런데 이것 바꿀 생각 없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래서 문화가 있는 날 플러스로 해 가지고 국립기관들은 마지막 주 전체를 할인하고 있습니다.

○**노웅래 위원** 그러니까 이것 수요일 날은 월말 정산하잖아요. 날짜가…… 정착시키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그냥 전시행정으로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게 법으로 이미 확정이 되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노웅래 위원** 그러니까. 문화부가 잘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노웅래 위원** 1분만 더 쓸게요.

○**위원장 유성엽** 예.

○**노웅래 위원** 정착되도록 이것 뭐 꼭 법으로, 헌법으로 정해진 것 아니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것도 한번 검토는 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웅래 위원** 그래야지, 전시성이나 보여 주기 식 이런 얘기 안 들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노웅래 위원** 그렇게 하시고.

아까 만족도도 굉장히, 67%인가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만족도가 이렇게 나오기 어렵지 않습니까?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서 좀 1년이고 2년이고, 우리 대통령이고 우리 문화부장관이고 총리고 빠지지 말고 지속적으로, 이게 자리매김 제대로 하도록 좀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좀 솔선수범해서 하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웅래 위원** 대통령이 여러 번 가시기는 하셨지만, 또 영화만 보면 되시는 것 아니잖아요? 미술관도 가고 서점도 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연도 보셔야 되고?

그래서 이것 문화부가 대표적으로 잘하는 것이니까 그냥 전시성으로 하지 마시고 정착되도록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석 위원 안 오셨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안 오셨어요? 안 오셨으면, 그다음 순서가…… 우리 송기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장관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송기석 위원 월드컵, 다음에 올림픽, 육상선수권대회,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이런 것은 우리 국내 국민들뿐만 아니고 전 세계인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은 대회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습니다.

○송기석 위원 이게 광주시는 2012년 10월 19일 날 정부 승인을 받아서 유치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7월 19일 날 최종 확정이 되었는데요. 그렇지만 개최지 확정 과정에서 약간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좀 부정적 시각이 존재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2017년도 국비 요구액이 74억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국비가 아마 156억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송기석 위원 세계수영선수권대회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송기석 위원 아닙니다. 2017년도에 74억 요구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아, 올해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송기석 위원 19억이 지금 반영이 되었습니다, 확정되었다는 것은 아니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송기석 위원 이렇게 19억으로 확 줄인 이유가 뭐니까? 아직도 무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조직이 출범이 아직 안 되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송기석 위원 출범이 안 되어서 그렇다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송기석 위원 조직이 출범이 안 되어서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조직위원장, 아마 조직위 사무총장……

○송기석 위원 사무총장 이야기 말씀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

○송기석 위원 아니, 그것은 설명이 안 되는 게 이것은 2017년도 예산이고 사무총장은 곧 임명되어서, 계속 추진되는 상황입니다. 사무총장 임명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이 이야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제가 살펴보고 만약에 이것이 다른 이유로 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이 안 되는 거라면 곧바로 저희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석 위원 그리고 세계수영연맹에서 우려를 표명하는, 그리고 정부의 보증을 요구하는 우편물 받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송기석 위원 수신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 차관님 그리고 광주시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답변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아마 대회 주체가 광주라서 그래서 그런 것이고요. 저희 정부 쪽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재정 보증만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기석 위원 세계수영연맹, 그 국제기구에서 정식으로 대한민국 정부, 주무 부처에 이렇게 우편물 보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만약…… 아직 답변을 안 했어요? 그러면 현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재정 지원할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당연히 그렇습니다. 차관이 조금……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그것은 비딩(bidding) 파일에 나온 대로 저희가 재정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답변을 안 한 것은 광주시키고 협의를 해서 광주에서 대신 모든 것을 책임지고 답변하겠다고 합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안 보내고 광주시가 대신 보내고……

기본적으로 정부가 대회를 주체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세계연맹에서 보내온 것은 어떤 우려 사항을, 정부에 대한 우려 사항을 얘기한 것

이기 때문에, 그중에는 사무총장 견도 있고 그다음에 대회 운영이나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안 보낸 겁니다.

○송기석 위원 알겠습니다.

사무총장 관련되어서 통상은 광주에서 요청을 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습니다.

○송기석 위원 아까 답변할 때 검토가 아직 안 끝났다고 그랬습니까? 내부 검토 중이라고 그랬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송기석 위원 누가 검토하고 있습니까,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담당자들하고……

○송기석 위원 보고는 언제 받았습니까?

담당자가 누구인가요, 주무 국장님? 차관님께 보고 언제 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제가 직접 받았습니다.

○송기석 위원 광주에서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송기석 위원 언제 받았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지난주에 받은 것 같습니다. 시장한테 직접 받았습니다.

○송기석 위원 지난주 무슨 요일 날이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날짜가 기억이, 지난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송기석 위원 지난주 주말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주말은 아닙니다.

○송기석 위원 그러면 장관님께 보고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장관님한테는 그전에 보고드렸습니다.

○송기석 위원 어떻게 보고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광주에서 그분을 추천했다는 보고는 드렸습니다.

○송기석 위원 그러면 언제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그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 보고…… 지금 광주시의 여론도, 광주 여론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분에 대한 역량을 좀 더 평가를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가에 대해서.

○송기석 위원 그것을 누가 평가합니까? 그것을

광주에서 이미 다, 아까 신청한 광주시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 안 그랬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습니다.

○송기석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다 그것을 감안해서 신청한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승인해 주는 것은, 사무총장에 대한 승인은……

승인 사항이 지금 문체부에서 장관이 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후에 곧바로……

○송기석 위원 결국 지금 사무총장 임명이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FINA에서도 우려를 표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일주일 지났는데 최대한 빨리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송기석 위원 운영비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운영비 지원에 대한 입장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운영비는 제가 알기로는 국비에서 지원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기석 위원 우리 국내 대회에서 운영비 지원 안 하고 세계대회를 치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원할 겁니까, 불가 입장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일부 지원하기로 약속이 됐었습니다.

○송기석 위원 그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해야 되겠지요.

○송기석 위원 사업비 관련되어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신청 당시 사업비가 635억이었습니다. 그 뒤에 광주에서는 남부대에 있는, 기존에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치렀던 그 체육관, 그다음에 그 앞에 있는 운동장 이런 것을 재활용해서, 그래서 지금 산정한 게 총 예산이 1900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러면 아직도 유치 신청 당시 635억 이 기준으로만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의사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재정 당국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저희가 남부대체육관을 지을 때 그때 세계선수권대회를 유치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U대회를 같이 쓰는 조건으로 유대회 시설 지원비로 같이 나간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기석 위원** 위원장님, 1분만 더 계속해서 쓰겠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예, 1분으로 마무리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정 당국하고 협의를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기석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 질문했던, 올해 국비 지원했던 74억 중에 19억 원만 반영한 게, 그 계산을 해 보면 유치 신청 당시 그 액수를 기준으로 한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평창동계올림픽, 지금 유치 당시보다 2조 5000억이 더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멀리 갈 필요 없이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 이때만 봐도 유치 당시에는 대회 전체 비용으로 538억을 했는데요. 실제로는 1653억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2011년 대구세계육상대회 볼까요? 신청 당시에는 356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확정 예산은 무려 10배가 늘어난 3572억이었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하면 광주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남부대 시설 다시 활용한다거나…… 그것 별로 그렇게 많은 액수 증액된 것도 아닌데 왜 아직도 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죄송합니다, 2차관입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서 그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예산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광주시하고 협의를 하고 재정 당국하고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한 상태에 있고 지금 최소한도로 예산이 이번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기석 위원** 지금 불미스러운 일 그것으로 변명할 수 없는 게 그 사건이 있는 다음에 2014년 3월 11일 날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개정되면서 여기에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도 다 포함시켰어요. 그것으로 해서 입법적으로 다 해결이 된 거라고요.

○**위원장 유성엽** 송기석 간사님, 가까우니까 마이크 안 넣어도 충분히 대화는 가능하지만 방송

에서는 잘 안 들립니다. 이따 보충질의로 해 주시고요.

○**송기석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성엽** 다음은 도종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종환 위원** 청주 흥덕구 도종환 위원입니다. 장관님, 문예기금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문예기금 고갈 문제는 19대 국회 때도 내내 문제가 되었고 아직도 대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올해 문예기금 편성 내역을 보니까 문예기금 고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체육기금에서 500억, 관광기금에서 500억을 편입을 시켰어요. 1000억이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예산 편성 현황을 보니까 기존 관광기금·체육기금 사업 예산 339억이 문예기금으로 그대로 옮겨 오고 복권기금으로 운영되던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재원 553억이 문예기금에 편입이 되었어요. 결국 1000억을 투입했다고 했지만 실 전입 효과는 892억을 빼고 나면 108억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또 복권기금과 추경예산을 제외한 순수 문예기금 예산 현황을 보니까 2015년에는 1032억에서 16년 1824억으로 전년 대비 792억 원이 증가를 했어요. 체육기금과 관광기금이 문예기금에 전입이 되고 복권기금 재원이 문예기금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892억이 늘어나야 하는데 수치상으로 보면 792억이 증가했거든요. 관광기금·체육기금이 전입이 되었는데 순수 문예기금 사업이 100억 원 감소를 한 거예요.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그렇지 않아도 이런 문제들 때문에 재정 당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정 당국에서는 아직 기금의, 문예기금 자체가 좀 남아 있으니까 그게 다 소진되고 난 이후에 논의하자는 입장이라서 기금에 관련되어 가지고……

○**도종환 위원** 소진되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게 몇 해 전부터 계속되는 문화예술인들의 요구인데요. 장관님께서 소진되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근본적인 대책을요. 그리고 또 문예기금 편성 및 이런 방식의 사업 방향 이런 것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를 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저도 동의합니다.

○도종환 위원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한 것 61쪽 주요 현안 1번, 문화창조융합벨트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까.

61쪽에 나와 있는 개념도 맨 앞에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창조융합센터는 누가 운영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CJ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종환 위원 그렇지요? 문화부 직원이 상주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그렇지 않습니다.

○도종환 위원 상암동 CJ 건물 1층을 쓰고 있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습니다.

○도종환 위원 민간에서 거의 일을 다 하고 있는 거란 말이예요.

문화부가 이사회에 참석하고 있지요, 일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습니다.

○도종환 위원 예산 보조 정도 하고 있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도종환 위원 그다음에 도표 오른쪽 맨 위에 나오는 케이 컬러 벨리는 누가 추진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CJ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종환 위원 그것도 CJ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도종환 위원 1조 4000억이 투자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정부 투입 예산이 여기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정부 투입 예산이 아마……

○도종환 위원 없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홍보관에 약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종환 위원 민간 기업이 경기도하고 계약을 맺고 진행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습니다.

○도종환 위원 케이 컬러 벨리 사업이 잘못됐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이것대로 진행을 하는데,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정부가 원하는 정책이나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닌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민관이 함께 하던, 원래 그런 모델이었기 때문에 지금 딱 잘라 가지고 센터가 기획만 한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도종환 위원 그 밑에 있는 케이 익스피리언스 있잖아요. 이것 2017년에 착공 예정이고, 이 사업을 누가 추진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대한항공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종환 위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도종환 위원 대한항공에서 추진하는 것이 문화부의 바람처럼 전통문화 중심의 문화복합공간이면 좋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확실히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케이 익스피리언스 처음에 저희한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서를 낸 거에는 분명히 전통문화 중심의……

○도종환 위원 계획서는 저도 봤는데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간섭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대한항공이 계획을 나중에 어떻게 수정할지 보완할지 이런 것은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현재로서는 저런 계획서를 낸 것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진행하기를……

○도종환 위원 원하고 있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허락을 한 거고 또 한 가지…… 그렇게 원하고 있는 거고요.

○도종환 위원 원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이게 우리 문화부 정책의 성과는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글썬요, 민관의 협력 모델이라서 어떤 것을……

○도종환 위원 민관 협력 모델을 해 가지고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정부 사이트에서 딱 하는 것만 이렇게 제한해 가지고 말씀하시면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도종환 위원 어쨌든 주도가 민간 주도라는 거지요. 민간 주도의 대규모 사업이고 또 시작 단계인 사업이고 정부에서 아직 투입한 예산은 없는 거고 그런데 이게 정부의 성과로 부풀려지는 것 아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하나의 사이클이기 때문에…… 정부 예산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존경하는 도종환 위원님께서도 심사하셨습니다마는 거의 이것과 관련된

벤처 단지라든지 아카데미 이쪽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100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도종환 위원 실제로 케이 컬러 벨리 같은 경우에는 1조 4000억에서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대통령도 국회 개원 연설하시면서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케이 컬러 벨리가 착공됨으로써 문화 콘텐츠의 기획, 제작, 구현, 재투자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문화창조융합벨트가 완성되어 가고 있다, 이것을 통해서 진정한 문화융성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그래서 이것은 좀 부풀려진 보고를 누가 문화부에서 대통령께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주요 현안 1번으로 보고하신 건데 이것은 너무 부풀린 형식적인 보고다, 대기업의 문화 산업에 우리가 손가락을 얹고 이것 같이 하는 거다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것대로 두되 정부 차원에서 무슨 정책을 할 것인가 이 고민은 계속 되어야 되고 그리고 정책으로 평가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존경하는 도종환 위원님, 전체 그림은 정부가 그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여할 민간 업체들을 구한 것이고요. 그래서 민관으로 협력해 가지고 하는 사업 모델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도종환 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에 있는, 62쪽에 있는 KCON 같은 경우도 민간 대기업에서, CJ에서 한 5회째 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매년 여는 케이 컬러 페스티벌인데 우리 문화부에서 하는 것은 뭐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KCON하고 이것 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도종환 위원 뒤에 62쪽에 보시면 거기 KCON 나오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KCON은 CJ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도종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게 우리 주요 성과에 이런 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게 벨트 사업하고는 상관없는 건데요.

○도종환 위원 민간에서 하는 것을 우리 성과로 자꾸 넣지 말고 우리는 우리대로 정책을 전반적으로 끌고 가는 그런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

할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도종환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살펴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런 일들을 잘 꾸려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1분 더 하십시오.

○도종환 위원 차관님, 코리아 둘레길, 4500km 코리아 둘레길 조성하면서 550만 명 방문하게 하고 7200억의 경제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코리아 둘레길?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도종환 위원 지리산 둘레길이나 제주 올레길 가 보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도종환 위원 산티아고 가 보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아니, 못 가 봤습니다.

○도종환 위원 이런 세계적인 길 또 우리 올레길 같은 데를 사람이 찾아갈 때는 삶에 지쳐 있을 때예요. 그렇지요? 삶에 위로가, 치유가 필요할 때, 걸으면서 생각할 때 이럴 때 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길들이 많은 사람에게 호응을 받고 사람들이 찾아가는 것은, 이것은 경제효과를 이끌겠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이게 경제효과 이런 것 따지기 전에, 따지지 않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길들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1만 5000km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종환 위원 1만 8000km 아니고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1만 8000km입니다. 죄송합니다.

○도종환 위원 어쨌든 좋은 사례들도 많이 보시고 개선할 사항이 뭔지 조사하고 분석한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경제효과 따지기 전에 좀 더 분석해서 정말 국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길로 갈 것인가, 접근 방식,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이 사업이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저는 적극 동감입니다. 이것이 어떤 경제적 효과는 부수적인 것이고요. 지금 존경하는 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힐링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의 어떤 문화, 지역의 전통시장, 그다음에 지역의 환경, 자연환경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서 누구나 편하게 설렘을 가지고 여행을 떠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의식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대부분 해외여행을 주로 많이 가는 이유가 편리함입니다. 가기 편리함이고 지금 1800명, 1900명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해외여행을 가는 것을 우리 국내의 구석구석, 우리가 아는 지역을 가 보자고 하는, 그래서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주도하고 민간이 주도함으로써 스스로……

지금 우리가 부산에서 고성까지 770km 해과랑길이 있습니다. 동해안 해변길도 있고……

○도종환 위원 차관님, 이것 구상 몇 달 정도 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한 석 달 했습니다.

○도종환 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우선은 아이디어 차원이고……

○도종환 위원 두세 달 고민해 가지고서 지금 말씀하신 것 구현되겠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하여튼 저희 정부에서 끝나기보다 이제 시작점이고,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국내여행을 즐기자는 그런 차원에서 이걸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도종환 위원 한반도 전체를 걷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두세 달 준비해서 하시지 말고 더 깊이 고민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주질의의 맨 마지막으로 이장우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장관님, 혹시 스페인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 유럽 분관 가 보신 적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가 보지는 않았지만 알고는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조선산업으로 흥행했던 빌바오시가 사실 폭삭 망하고서 도시를 재건하는 과정에

서 구겐하임 미술관을, 유럽 분관을 유치하면서 본격적으로 관광객을 유입하고 그런 과정으로 도시가 재생됐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장관님 소관기관 포함해서 각 건축물들도 지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런데 우리가 조상들이 남겨 준 것 가지고 관광상품화도 하고 또 먹거리 창출하고 또 관광상품화 해서 국가 부를 키우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과연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남길 것은 뭐냐? 여러 가지겠습니다만 특히 작은 건축물 하나도 장관님 소관에 새로 짓는 건축물은 나중에 100년, 200년 후에 후손들에게 문화재적 가치를 남길 수 있는 건축물을 지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건축물이라는 것이 대개 그냥 입찰해서 당선작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정말로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제가 구겐하임 미술관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이런 발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바로 창조적인 생각들이 결합하는 건데 우리가 그게 부족한 것 같아요.

서울시 건축물을 제가 다니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어떻게 대한민국 수도 서울특별시의 건축물들이 이렇게 단조로울 수 있을까, 이 도시를 외국 사람들이 오면 뭐라고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부터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장관님 소속기관에서 짓는 건축물 하나하나도 후손들에게 어떤 건축물을 남겨서 어떤 가치를 유지해 줄 건지 이것도 반드시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이장우 위원 그리고 어쨌든 국립한국문학관 공모 중단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습니다.

○이장우 위원 아주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저는 평상시 소신이 국가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한 사업들은 공모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왜냐하면 첫째는 지역 간 갈등이 굉장히 심하고 지자체 간 경쟁을 해서 출혈경쟁이 심하고 행정력 낭비가 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조금 늦긴 했습니다만 그런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문학관 선정을 일단 보류하신 것은 너무 잘했다 이렇게 보고, 대신에

후속대책이 꼭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습니다.

○이장우 위원 다시 협조해서 정밀하게……

저는 문학관 부분은 지역 향토에 맞는 문인들을 총망라해서 집대성할 수 있는 문학관을 중앙에서 지역별로 특성에 맞게 밀어 주는 정책이 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장관님께서도 한번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2004년도에 태권도공원 공모해 가지고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렇지요? 최근에는 동남권 신공항 문제 때문에 또 지역 간 갈등 이렇게 많았고,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철도박물관 가지고 또 공모를 하고 있는데 제가 국토교통위 하면서 몇 차례 얘기했습니다. 공모 중단하는 게 좋겠다, 공모하지 마라. 공모하는 게 좋은 것 같지만 그건 중앙부처 공직자들이 면피하기 위한 방안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립문학관이 정말 필요하다면 문학관을 어느 위치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세우는 지 충분히 내부 검토해서 위치와 동시에 발표하면 됩니다. 그걸 공모해 가지고 지역 간…… 그런 것 해서는 안 된다, 그건 중앙정부가 책임성을 갖고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존경하는 이장우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동감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장우 위원 그래서 각 지자체가 또 그것 때문에 그동안 굉장히 여러 가지 행정적인 낭비가 상당히 있었던 걸로 보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 사과의 공문은 보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렇게 하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제대로 돼서 대한민국 문학을 정말 체계화시킬 수 있고 모든 사례를 총정리할 수 있는 이런 국립한국문학관 문제만큼은 잘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이장우 위원 그리고 평창올림픽……

올림픽에 흑자를 낼 수 있을 것이냐 적자를 볼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그다음

에 사후에 이 막대한 투자를 했던 경기장을 과연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이게 돈 먹는 하마가 될 것이냐 아니면 정말 평창 포함한 강원도 전체를 일으키는 동력이 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올림픽을 치르고 나서 적자 때문에 굉장히 고생한 도시들이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 대표적인 도시가 나가노 아키타니까?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나가노가 그렇습니다.

○이장우 위원 저는 월드컵 경기도 그렇고, 우리가 유치하고 경기장을 만들고 경기를 끝내는 것, 대개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후에 과연 이 경기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단순하고요. 그냥 여기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지금 평창 올림픽 시설도 사후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걸 보면서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기야말로, 정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여기다 접목을 시켜서 이 경기장을 정말 하나의 부를 일구는 어떤 중심지로 만들어 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예.

○이장우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월드컵 경기든 모든 경기를 보면 다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냥 단순해요. 그런 시각으로는 이걸 바로 세울 수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 여러 가지 나왔는데, 지금 보니까 경기장 총 12개 중 6개가 신설 중인데 이 중에서 강릉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하고 정선 알파인경기장은 아직 사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지금 진행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습니다.

○이장우 위원 저는 이걸 상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활용방안을 만들어야 된다, 그걸 단순하게 우리가 기존에 하듯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왜? 이것도 하나의 국가의 부를 이룰 수 있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관께서, 제가 구체적으로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사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정말로 심도 있는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존경하는 이장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문제들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후활용 문제는 올림픽 레거시(Legacy)를 남겨야 된다는 그런 점도 있지만 또 동시에 이것이 적자 올림픽이 되거나 나중에 계속해 가지고 골칫덩어리가 되지 않게끔 문체부 전체가 나서서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고 2차관이 또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실제 그걸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후활용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게끔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겠고요. 또 올림픽 그 자체가 적자가 되지 않게끔, 올해부터 저희가 봄을 일으키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들을 이제 곧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올림픽 기간 동안에 적자 올림픽이 되거나, 이렇게 결산했을 때 적자가 되지는 않게끔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이제 주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문화재청장님.

○**문화재청장 나선화** 예.

○**위원장 유성엽** 업무보고서 15페이지 보니까 ‘동학농민혁명 유적의 가치 제고 및 확산’ 이렇게 잘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전체 동학농민혁명 유물·유적이 한 353건 중에서, 국가든 시도든 지정문화재로 등재된 것은 국가지정문화재가 6건, 시·도지정문화재가 15건, 등록이 1건 이렇게 돼 있는 거지요. 비지정도 상당히 많이 있네요? 비지정이 오히려 328건이……

○**문화재청장 나선화** 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우리 동학농민혁명은 그 정신이 근대 역사에서 면면하게 이어져 온 정신이지요. 의병운동으로 이어졌고 독립운동으로 이어졌고 또 우리 건국 이후에는 4·19 민주혁명으로 또 광주 5·18 민주항쟁으로 이렇게 이어지면서 우리나라의 근대화, 민주화를 견인했던 참으로 숭고한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 자료 보면 전라북도가 국가지정문화재가 3건이고 시·도지정문화재가 8건인데요. 그 구체적인 내역을, 그 자료를 이따 저한테 하나 보내 주시지요. 여기 숫자로만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3개가 어디 어디이고 여덟 곳은 어디 어디인지.

○**문화재청장 나선화** 예.

○**위원장 유성엽** 지금 정리가 된 것 있으면 해당 국장이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위원장 유성엽**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문제인데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법률이 2004년도에 제정·공포가 되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위원장 유성엽** 그런데 지금 현재 무려 12년 세월을 거치면서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을 지정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것 왜 그렇습니까? 왜 기념일을 이렇게 지정하지 못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위원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처음에는 정읍하고 고창이 서로 조금 이견이 있었다가 공주하고 또 전주까지 같이 붙으면서 아마 이게 조금 일이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에서 이걸 정하기로 했는데 거기서 투표를 통해 가지고 결정된 게 아마 전주화약일로 다 결정이 됐는데,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해서 또 현재 정읍이나 고창에서는 수용 못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정부가 어떻게 결정하기가 조금 난처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그래도 국가기념일이라는 것은 최종적으로는 정부에서 정하는 것이지요, 대통령령에 반영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문화관광부, 정부가 그동안 너무 이것을 지방에다가 맡겨 놓고 또 한편으로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다가 맡겨 놓고 방치한 감이 없지 않아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한번 문화관광부가 좀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가장 적절한 날짜로…… 또 그것도 시기도 12년 세월이 흐르도록 아직 지정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금년 안에는 좀 지정되는 것이 맞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문광부에서 그동안에 좀 진행됐던 여러 가지 경과를 종합해서 한번 판단을 해 보시고 금년 안에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제가 한 가지 조언을 드리면, 물론 정부가 이것을 직접 정하기에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마는 전문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기념일 제정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 한번 상의를 해 보고……

제가 아까 전라북도의 국가지정문화재 3건, 시·도지정문화재가 8건 지정되어 있는 것의 구체적인 내역을 달라고 하는 것도 그 구체적인 내역들도 한번 좀 참고해서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학농민혁명 문화재나 유적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353건인데 전남에 80건, 전라북도에 156건이 지정 또는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기념일은 전라북도 내의 어느 날짜로 가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예요, 전국적으로 동학농민혁명 유적을 보더라도. 또 전북 내에서도 구체적으로, 굳이 지역을 기준으로 한다면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는 아까 그런 지정된 문화재들의 분포 같은 것도 한번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질의의를 끝내겠습니다. 잠시……

○문화재청장 나선화 위원장님.

○위원장 유성엽 예.

○문화재청장 나선화 제가 아까 조승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안부 토론회에 관해서 지금 확인 자료가 들어왔기 때문에 잠깐 보고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속기록에 꼭 남기셔야 할 사유가 있는 모양이지요?

○문화재청장 나선화 예,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말씀하십시오.

○문화재청장 나선화 조승래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토론회는 7월 18일 날 개최된 게 확실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제가 기억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자료에 대해서 이의를 다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단지 이 토론회가 여가부에서 예산 지원을 하고,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주관해서 하는 토론회에 제가 인사말을 하러, 참석을 하러 갔었기 때문에 제 기억에 또렷이 안 남았던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토론회가 어떠한 작은 토론회라도 확실히 기억을 해서 지적을 했을 때 틀림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동학 자료에 대해서는 지정된 문화재는 활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개발할 것들은 관련 기관들과

협의해서 더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성엽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5시 15분에 속개하여 보충질의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성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씩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더불어민주당의 박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미 위원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위원입니다.

화면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박근혜정부에서 문체부가 업무보고 때 밝힌 비전입니다.

2013년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 2014년 ‘문화가 있는 삶 행복한 대한민국’ 2015년 ‘문화로 행복한 삶’ 2016년 ‘문화융성을 통한 창조경제 국민행복 실현’

장관님, 여기에서 공통 단어가 뭐지요, 이 네 번의 비전 중에서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행복입니다.

○박경미 위원 그런데 이렇게 ‘행복’ ‘행복’ 하는 걸 보면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세계행복보고서가 발표한 대한민국 순위는 2013년 41위, 2014년 47위, 2015년 58위로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런 것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박경미 위원 갈수록 행복과 멀어지고 있다는 시민들의 체감은 저성장과 양극화의 시대, 사회적 안전망이 해체되고 성공의 사다리가 꺾여 버린 시대 탓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문화의 역할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지요. 경제가 아닌 인간의 관점에서 사회를 바라보는 것, 소외되는 문화생산자, 사각지대로 밀려난 문화향유자를 시선에서 놓치지 않는 것, 이 시대가 문체부에게 간절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장관님, 근로자 100명 이상인 공공부문에 적용되는 장애인의 의무고용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박경미 위원 그것까지 세세한 것까지 사실 기억하시기는 어려울 텐데요. 2016년 의무고용률은 국가기관, 공공기관이 3%입니다. 그런데 문체부 자료를 보니까 100명 이상을 고용하는 12개 소관 기관 중에서 한국문화진흥원 0.8%, 그랜드코리아 레저는 1.2%, 한국언론진흥재단은 1.4%, 국제방송교류재단은 1.75% 이렇게 4개 기관이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화에 큰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문체부가 장애인 고용에서 모범이 되지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깝고요. 이것은 앞으로 좀 시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미 위원 장관님, 문화 소외계층, 취약계층을 위한 문체부 사업으로 혹시 기억나시는 것이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방곡곡 사업이라고요. 찾아가는 문화 사업이 있고요.

○박경미 위원 소외계층,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으로 저희 의원실에서 조사한 것으로는 소외계층 문화역량 강화 사업을 포함해서 5개인데 저희가 내 본 통계는 2015년 1900억 그러니까 전체 예산 대비 3.6%요. 2016년에는 2040억이고 전체 예산 대비 3.7% 정도로 매우 미미합니다.

그래서 장관님과 문체부의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이런 사업들의 예산 또 최근 3년간 실적 그리고 문제점을 좀 정리해서 저희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미 위원 특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외계층, 취약계층을 위한 문체부 사업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박경미 위원 그리고 지난 대선공약에서 2017년까지 문화 재정 2%, 오늘도 언급이 되었던 부분인데, 2018년까지로 시기를 조정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박경미 위원 그런데 이 문화 재정에 문체부와 문화재청 예산뿐 아니라 미래부와 방통위 일부 예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습니다.

○박경미 위원 그런데 장관님 보시기에 이런 예산들, 미래부와 방통위 일부 예산을 문화 재정으로 볼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문화와 관련된 모든 사업,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엄밀하게 보면 전체 문체부 재정만으로는 그렇게 2%까지 되지 않습니다.

○박경미 위원 그래서 2%를 정량적으로 달성해야 되겠다 그런 일념하에 관련성이 약한 예산까지 무리하게 포함시킨 것은 아닌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저는 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문화를 사치재로 인식하고 있고 또 경제논리만을 앞세울 때 우선순위가 밀리기도 하지마는 사회통합, 갈등 치유와 소통을 위한 문화의 역할을 생각하면 문화 역시 민생의 문제이고 또 최고의 복지인 것 같습니다. 최소한 문화의 영역에서라도 불균형과 좌절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지 않도록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박경미 위원 그래서 저도 감시자로서 또 동시에 동반자로서 함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신청하는 분에 한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는 죽 돌면서 우리 행정실에서 할 테니까 보충질의에 뜻이 없는 분들은 의무적으로 참여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번 차례는 손혜원 위원님입니다. 손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행정실에 협조해서 보충질의 의사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원 위원 저는 제 이력에서 여러분들 많이 보신 분도 계시지만 나전철기랑 소반이랑 이렇게 우리나라의 유물들을 수집을 하다가 그것이 박물관을 만들 정도로 깊이 좀 빠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그 작품들을 사게 되었는지를 보면 나전철기 하는 현대의 무형문화재들이나 장인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의 물건을 파는 판로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작품들을 하나씩

사면서 모아 놓았다가 나중에 어디 필요로 한다는 박물관에 기증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박물관이 근대나 현대의 작품을 사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참 의아해서 제가 유럽에 있는 박물관 수장고들을 다 미리 신청을 해서 돌면서 그들이 유물을 어떻게 사는가를 봤습니다. 우리나라는 제가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야 그 자료를 받아 보게 되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대영박물관의 총소장품 42만 8900여 점 중에서 1900년 이후 현대까지 소장품들이 거의 10만 점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들이 거의 다 그 당대에 산 것이라는 거지요. 19세기에 사고 20세기에 사고 21세기에 사고. 그리고 또 우리가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같은 데들도 보면 23% 정도가 근현대의 소장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23%나 지금 여기서 한 7% 이런 유럽 박물관들의 근현대 소장품들은 다 당대에 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박물관이라는 의미를 제가 한번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박물관이라는 뜻은 고고학적 자료 또는 역사적 유물, 예술품, 그 밖에 학술자료들을 수집·보존하고 진열하고 일반에게 전시하고 연구하고 교육에 기여한다라는 목적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우리나라가 고고학이라든지 역사적 유물을 혹시 19세기 이전 것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요? 인류가 생활의 증거로 남긴 인류의 역사를 고고학적 자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역사라는 것이 인류사회의 변천과 흥망의 과정을 얘기합니다. 지금 당대도 포함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책무는 20세기, 21세기의 가장 훌륭한, 우리가 지금 시대를 알려 줄 만한 것들을 지금 박물관에 소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23세기, 24세기의 후손들이 21세기에는 이런 물건들이 있었다, 이 사람들의 문화의 그리고 이 사람들의 변천과 흥망의 예를 우리가 보여 줘야 되는 것이 바로 박물관의 유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작업을 하다가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일을 해 봤습니다.

PPT 잠깐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문화부하고 같이 2013년, 2014년에 우리

나라의 전통공예품들을 들고 유럽에 전시를 나갔습니다. 극성으로 제가 만들어서 이 전시를 해서 나갔고 여기서 너무 놀라운 자료들을 보여 드렸어요. 이 작품이, 이 작가가 대영박물관 그리고 빅토리아 앤드 알버트 뮤지엄에 전부 다 이분의 작품이 소장되었어요, 68세 되신 선생님.

저는 적어도 이 작품이 대영박물관이랑 빅토리아 앤드 알버트 뮤지엄에 소장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한국의 박물관이 관심 가질 줄 알았어요. 아무도 갖지 않았습시다.

다음, 이 작품은 2014년에 나갔던 작품들 시리즈인데 얼마 전에 필라델피아 뮤지엄에 소장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것이 현재 전시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의 아시안아트 뮤지엄입니다. 여기는 고려시대 나전부터 시작해서 한국의 나전칠기 전체가 전시가 되고 있는데 아까 그 황삼용 작가의 작품 세 작품을 출품을 했습니다. 했는데, 고려시대의 작품들과 함께 전시가 되었는데 가장 최고의 인기가 있어서 이 세 작품을 1억 1000만 원에 소장을 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박물관에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우리나라 박물관에는 근대 작품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현대 작품이 얼마나 있는지. 근대 작품들을 보면, 여기서 보면 일제강점기 이후, 광복 이후까지 우리가 총한 270점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 우리나라 국립박물관 정말 너무 가난한 것이 총 5800점 정도의 소장품이 있고요. 그런데 광복 이후가 몇 점 있는지 아세요? 7점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세요.

○위원장 유성엽 1분만 더……

○손혜원 위원 7점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70년대 이후 뭐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단 1점 있습니다. 70년대 이후의 우리나라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도 산 것이 아니고요. 김희진 선생님, 서울시 무형문화재 매듭장 선생님이 기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서 제가 국립박물관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혹시 우리나라에서는 법으로 근현대 것 못 사게 되어 있습니까? 저는 그것이 너무 궁금했어요. 오늘에서야 제가 이 질문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 어찌 보면 다행입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국립중앙박물관장 이영훈 중앙박물관장입니다

다.

지금 손혜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타당한 말씀이고요, 그런데 문체부 안에는 저희 중앙박물관과 또 국립현대미술관 그리고 국립민속박물관이 있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3개 기관이, 또 대한민국역사박물관도 있습니다만 4개 기관이 서로 역할분담을 하면서 되도록이면 중복되지 않게 작품을 소장하고 또 수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대 작품도 당연히 당대에 구입해서 소장해야 된다는 말씀에 저희 적극 동의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손혜원 위원 그런데 70년대 이후의 작품이 전혀 소장이 안 되었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 메트로폴리탄이나 대영박물관에 거기에는 현대미술관이 없는 것 아니거든요.

○국립중앙박물관장 이영훈 예, 그렇습니다.

○손혜원 위원 그렇지요?

○국립중앙박물관장 이영훈 예.

○손혜원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같은 생각으로 나아가시기를 기대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장 이영훈 예, 알겠습니다.

○손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성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례가, 염동열 위원님하고 이은재 위원님하고 아까 바꾸셨던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실 거예요, 아니면 바꾼 대로 갈 거예요?

어떻게…… 염동열 위원님 하시렵니까?

○李恩宰 위원 제가 먼저……

○염동열 위원 먼저 하시지요.

○위원장 유성엽 원래대로 하면 염동열 위원님인데 바꾼 대로 하면 이은재 위원님인 것이지요. 그런데 두 분이 동시에 앉아 계시니까 다시 확인을 했던 것입니다.

○李恩宰 위원 아까 장관님께서 FINA에 관해서 답변을 좀 이상하게 하셔서 제가 이것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李恩宰 위원 아까 FINA에 대해서 답변을 어떻게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제가 지금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그거 좀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뭐라고 했느냐 하면 FINA 사무총장이 장·차관에게 보낸 서신에 대한 내용을 제가 확보를 했는데……

한번 띄워 보세요. 죽 그다음 페이지 넘어가고……

분명히 우리 장관님과 차관님께 서신을 띄웠는데 아까 뭐라 그러셨느냐 하면 ‘답변을 광주조직위원장이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李恩宰 위원 그러면 장관님과 차관님께, 이런 내용을 보면 ‘사무총장이 빨리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왜 답변을 장관님과 차관님이 안 하시고 조직위원장이 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그거 제가 실수로 잘못 말씀드렸고요. 그 후에 나중에 존경하는 송기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우리 2차관이 제대로 답변을 했습니다.

○李恩宰 위원 그러면 정정하시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습니다.

○李恩宰 위원 그러면 바로 정정을 하셔야지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李恩宰 위원 제가 질의했을 때는 그렇게 그냥 어떻게 보면 허위로 답변을 하시고, 그래서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제가 좀 세계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李恩宰 위원 우선 호화 해외출장으로 물의를 빚고 퇴사한 방석호 전 아리랑TV 사장 공금유용 문제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알고 있습니다.

○李恩宰 위원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현재 검찰 수사 중에 있습니다.

○李恩宰 위원 지금 특별조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검찰에 수사 의뢰되어 있습니다.

○李恩宰 위원 검찰 수사 의뢰하셨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李恩宰 위원 그런데 그전에 문체부가 방 전

사장의 사표를 수리하기 전에 명예퇴진의 길을 열어 주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

○李恩宰 위원 그래서 1400만 원의 퇴직금, 5월에 지급될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과금 수천만 원을 받게 만들어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제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李恩宰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지금 일각에서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장관과 방 전 사장이 같은 대학, 홍익대학에서 교수로 함께 재직을 했기 때문에 봐주기식 조사를 했다는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오늘 제가 아침부터 우리 장관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장관님의 답변은 너무 스무스하게 잘 넘어가십니다. 그래서 봤더니 다 이렇게 이런 식입니다, 장관님. 안 통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런 식이라는 것이 어떤 말씀이시지요?

○李恩宰 위원 어디 그런 식의 답변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런 식이라는 것이 어떤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유성엽 위원장, 도종환 간사와 사회교대)

○李恩宰 위원 이런 식이라니요! 아까 FINA 부분에 대해서도 저한테 허위보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 놓고 뭐 이런 식이냐? 그게 어디서 통합니까,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소리 안 지르셔도 다 들립니다. 그렇게 소리 지르지 마시고요.

○李恩宰 위원 뭐라고요? 누구 교육시킵니까, 여기서? 어디서 정말…… 막 나가시는 거예요, 장관님!

아니, 제가 맨 처음에 굉장히 정말 스무스하게 잘 여쭙어 보고 했는데 태도가, 이 FINA에 관련되어서 제가 모르는 줄 알고 그렇게 허위답변하시고 그러고도 제가 다시 물어보지 않았으면 그냥 넘어가시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지금 이것도 홍익대학에서 교수로 같이 있어서 일각에서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뭐? 파악을 해 보시겠다고? 벌써 지나간, 문체부에서는 지나간 얘기를

이제서 파악을 합니까, 지금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다면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렇게 하시고 제가 뭐 소리 지른다고? 제가 흥분하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아니, 장관이 국민들 앞에서 거짓말하는데 어떻게 제가 국회의원으로 그냥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가슴이 아픕니다, 정말. 장관님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문체부가 이렇게 안일한 태도, 이것이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검찰에 물론 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잘못된 사람에게 퇴직금 주고 성과금 주고 도대체 그것이 누구의 돈으로 주는 것입니까? 그것이 어디서 난 돈입니까? 장관님 개인 주머니에서 나온 것입니까? 국민의 혈세입니다. 국민의 혈세를 그런 식으로 쓰셔도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여기 위원님들 많이 계시는데 위원님들한테 뭐 목소리 높이지 말라? 장관님 정말 심하지 않으세요? 어디 그런 표현을 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묻는 사람이 오죽 화가 나면 그렇게 표현을 했겠나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 얘기를 들으면 어느 국민이 흥분하지 않겠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도종환 이은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장관님 답변하실 때 ‘소리 안 지르셔도 다 들립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이런 식의 답변을 하시면 곤란하시고요. 감정을 서로 자제하시고 질문하시고 답변하셔서 위원회의 진행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제 표현이 과했던 것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답하지 않았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도적으로 제가 왜곡하거나 거짓말을 시키려고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잘못 파악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곧바로 이어지는 질문에서 제대로 정정해 가지고 2차관이 제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방석호 사장이 퇴직금을 받아갔는지에 대해서 제가 몰랐기 때문에, 잘 몰랐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李恩幸** 위원 지금 제가 말 안 하겠는데요. 만약에 장관님이 그것을 모르셨다면 무슨 업무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게 장관으로서, 방석호 사장이 그렇게 되어서 그만뒀는데 퇴직금을 받아왔는지 안 받아왔는지 그것도 확인 안 하고 계신다고 그러면 도대체 업무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것이 말이 안 되는 표현입니다, 장관님.

○**위원장대리 도종환** 이은재 위원님 거기까지 발언해 주시고요.

○**李恩幸** 위원 예.

○**위원장대리 도종환** 또 다른 위원님들, 지금 발언을 준비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더 하실 말씀이 있으면 이따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염동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열** 위원 분위기 좀 바꾸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부처의 정책이나 사업들을 질의도 하게 되고 또 제안도 하게 됩니다. 19대 국회나 20대 국회나 연장선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우리 장관님이나 문화재청장님도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이 상임위가 상임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정부부처의 사업들을 실제로 저희들이 들여다보고 또 계속 함께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제가 제안했던 또 지적했던 사안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선화 청장님, 제가 올림픽 문화재 로드 말씀 드렸잖아요?

○**문화재청장 나선화** 예.

○**염동열** 위원 꼭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 창의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 아이디어거든요.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직접 지역에 내려오셨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니까 파생상품을 만드셨어요. 보니까 성화봉송로를 문화재를 이렇게 거쳐서 하겠다는 것 하나하고 문화재 로드를 만들어서 결국은 탐방하게끔 제안했었는데 이것도 루트별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1차 것 2차 것.

○**문화재청장 나선화** 예.

○**염동열** 위원 그런데 이 루트를 보니까 사실은 페이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시군에 보면 문화해설가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시군에 있는 것만 알게 하지 말고 타 시군도 알게 해서 결국은 이것을 패키지로 벨트로 엮어서 할 수 있게끔 세세하게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브로슈어도 영어, 일어, 중국어 이렇게 만들어서 결국은 외국인들이 우리의 이런 훌륭한 문화재를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문화재청장 나선화** 감사합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동열** 위원 그리고 장관님, 제가 올림픽로드, 동북아 한중일 아마 15년도 7월 대정부질문과 상임위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장관 한중일 한번 만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습니다.

○**염동열** 위원 그리고 이번 9월 23, 24일 용평 알펜시아에서 한번 만나기로 되어 있고, 그 주요일젠다가 뭐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정기적인 스포츠 장관회의를 앞으로 신설하는 것과 또 조직위원장들끼리의 협의체를 좀 만들자, 그리고 인적·물적 교류를 좀 해서 3국이 스포츠마케팅을 함께 해 나가자, 올림픽마케팅이라는 것이 사실은 한 군데 와 가지고 세 군데 다 볼 수도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 나가자는 이야기와 또 올림픽 티켓에 관련되어 가지고 함께 마케팅하자 그런 얘기들도……

○**염동열** 위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한중일 동북아는 말씀드렸듯이 유럽에 우리 한중일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래서 저는 좀 더 면밀하게 관광경쟁력을 벨트화시켜서 정말 올림픽로드라고 하는 이런 상품으로 좀 탄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유럽인들한테 우리 아시아, 우리 동북아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촘촘히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물론 8월 달에 조직위원장끼리 만난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민간단체도 좀 함께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면 좋겠고요, 지자체에도 실질적으로, 강원도에 제가 제안을 해서 강원도도 만나고 있습니다마는 해당 지자체도 함께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문광부가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4월 달에 우리 관광실과 체육실이 분리가 되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예, 그렇습니다.

○염동열 위원 이 부분도 제가 싱가포르와 중국, 일본 여러 가지 선진 관광 나라와 비교를 해 보니까 우리가 관광청을 해도 모자람이 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나마 관광실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제 10명이 늘어났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예, 그렇습니다.

○염동열 위원 10명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우리 롯데관광 사장 하셨던 황명선 사장이 지금 실장으로 되었지요?

그런데 좀 우려하는 것은 저는 혁신처장이 사실은 우리 민간인 전문가가 들어오셔서 성과급제 도라든가 또 저성과자에 대한 퇴출, 이런 획기적인 아이디어들을 우리 공직사회에 불어넣었는데……

여기 와 계시지요, 황명선 사장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예.

○염동열 위원 혹시 그 관광업을 하면서 현지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구상들이 너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 공직사회에서 너무 경직되게 묶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바로 공직사회에서 갖고 있는 노하우, 그리고 민간 전문가로서 노하우를 결합을 시킨다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바랐던 관광청은 아닙니다마는 이 관광실이 독립적이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담으면서 우리나라 관광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을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그것을 정책으로 차곡차곡 진행함으로 인해서 2000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대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예.

○위원장대리 도종환 마치셨습니까?

○염동열 위원 예,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대리 도종환 염동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국립중앙도서관장님, 그냥 가볍게 좀 물어보려니까 답변 좀 해 봐 주세요.

혹시 문화접대비, 문화로 접대하자, 문화로 인사하자, 이거 뭔지 아세요? 설명할 수 있어요?

○국립중앙도서관장 임원선 ……

○이정현 위원 모르시면 그냥 ‘모르신다’, ‘안다’

만 얘기해요.

국립국악원장님, 지금 이것 아세요? 설명할 수 있어요?

○국립국악원장 김해숙 술이나 그런 것이 아닌 문화를 가지고……

○이정현 위원 정확하게 잘 모르시지요?

해외문화홍보원장님, 아세요?

○해외문화홍보원장 김갑수 ……

○이정현 위원 잘 모르시지요? 모를 줄 알았어요.

장관님, 지금 중소기업들이 과거에 술, 밥, 골프 이런 것으로 접대하다가 2007년 12월 달부터 이제 그러지 말고 우리 중소기업인들이 문화로 접대하는 것도 세금에서 감면 혜택을 줘라 해 가지고 조세특례제한법에 이 항목이 삽입된 것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그렇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문위에 참석하는 상당히 활동적인 저런 분들조차도 이 제도가 있는지를 지금 모릅니다. 그만큼 홍보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이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예.

○이정현 위원 그런데 중소기업인들은 그러면 이런 제도가 있는지를 제대로 알 수 있을까 좀 의심스럽습니다.

말하자면 굉장히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정말 어렵게 삽니다, 문화예술 활동을 함에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었는데 이분들의 연봉이, 연봉입니다. 연봉이 200만 원, 300만 원, 700만 원, 1000만 원, 연봉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예, 그렇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렇게밖에 되지 않는…… 문학은 214만 원, 미술은 614만 원, 사진은 817만 원, 무용은 861만 원, 이게 지금 연봉이거든요, 연봉. 이러한 예술인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면서도 창작공간이 없는 사람들이 65%나 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술인 70%가 연평균 2000만 원을 넘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형편 속에서 중소기업인들이 자기 직원들 또는 자기 거래처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영화도 보고 연극도 보고 그 밖의 다른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를 해서, 말하자면 예술의 향유자로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문화예술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제도를 실시를 하고 있으면서도 이

런 부분들을 모르고 있다면 이 제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장관님, 어떻습니까? 이것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예, 홍보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현 위원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예.

○이정현 위원 이것 저는 진짜 적극적으로,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예.

○이정현 위원 혹시 이것 담당하는 국장 누구 계시면 잠깐만 일어서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이상일 예.

○이정현 위원 이것 일몰이지요? 이것 계속 가는 것 아니지요? 아마 이 규정이 일몰 규정일 겁니다. 언젠가, 2018년인가 19년인가에 끝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앉아 주세요.

이 제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정말, 중소기업인들은 지방에도 많이 계시니까 지방 예술인들도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장관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문광부의 여러 직원들에게, 장관님에게 대신 건의를 좀 드리면서 다른 사람들도 참고를 좀 해 봐 주십시오.

과거에 전국체전이라는 것을 처음 시작할 때는 워낙 체육시설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지방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시도로 돌아가면서 집중적으로 그해에 그 지역의 체육시설들을 갖춰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잘 갖춰져 있거든요. 그리고 전 국민들이 또 체육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장애인들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문화예술인 전국대회를 이런 식으로 체전하고 똑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이제 과거하고 달리 그 지자체가 이를테면 40%를 내고 정부가 40%를 내고 나머지 지자체들이 그 규모에 따라서 30%를 서로 부담을 하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 가지고 매년, 1년 내내 장애인 문화예술인 축제가 한 지역, 지역에서 이렇게 열리게 되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예측 가능하게 그런 대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장애인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준비도 하고 기능도 더, 자기 자리도 늘리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게 된다고 한다면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서 장애인들의 참여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늘어날 것 같은데, 이것 사실 일본에서 실시하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예.

○이정현 위원 이것 한번 조사를 좀 해서 가지고 장관님 계실 때 한번 토대를 마련을 해서 우리나라 장애인 문화예술인들이 향유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서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하고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접대비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아시다시피 9월 28일을 기점으로 김영란법이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인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에 실제 티켓 세일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련되어서도 위원님들께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좀 풀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대리 도종환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접대비 질문에 대해서 소속 기관장님들께서 답변을 다 못 하시는 것을 보고 저도 놀랐습니다. 지난해 국감 때도 이 문제가 거론되었는데요.

이어서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제주시를 출신 오영훈 위원입니다.

장관님께 간단히 여쭙 보겠습니다.

국정과제로 NCS 기반 직무능력 중심 채용과 관련된 일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예.

○오영훈 위원 지금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이 32개 공공기관입니다. 올해까지 이 적용 대상이 되었던 공공기관은 24개 기관입니다. 이 24개 기관에서 직무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하고 있고

입사원서란에 스펙 또는 학력란을 기재하지 않고 있는 공공기관은 4개 기관에 불과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오영훈 위원 24개 기관 중에서 4개 기관만이 국정과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파악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고요. 내년까지 32개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직무능력 중심의 인재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사원서에 학력란이 반드시 철폐될 수 있도록 장관님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리고 지금 국어기본법에 대해서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오영훈 위원 국어기본법 제4조에 보면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즉 지역어를 국어의 수준에 맞게끔 보전하고 활용해야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오영훈 위원 문화의 다양성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도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예산이나 사업의 내용들은 계속 축소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어 보전, 지금 사라져 가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제주도 관련 지역어의 보전을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하시겠다는 의지를 좀 표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어와 관련된 것도 국어기본법 안에서 반드시 다뤄야지 되는 항목 중의 하나라고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국립국어원장님, 잠깐만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국립국어원장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현재 지역어의 보전과 관련된 예산과 그리고 조직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한 상황이라고 보시는지,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국립국어원장 송철의 충분하다고는 생각할 수 없는데요. 국립국어원에서는 그동안 지역어 조사 사업을 한 10년 동안 했고 민족생활어 조사 사업도 한 육칠 년 하고 지금 현재는 약간 규모는 작지만 사회방언 조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역어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좀 더 확보되어야 되고, 그전에 지역어 사업을 했던 정도의 규모로 지역어 사업 조사나 정리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지금 4개의 사업이 이미 종료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진행되는 사업은 2개 사업밖에 없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국적인 차원에서 지역어 보전 계획 그리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저희 의원실하고도 협력을, 협조 체계를 좀 구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국립국어원장 송철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리고 다음은 문화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재청장 나선화 예.

○오영훈 위원 지금 중점 과제에 보면—22페이지, 업무보고 자료—세계유산등재 관련해서 해녀 문화가 한일의 경쟁, 한일 간의 경쟁 과정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재청장 나선화 예, 일본도 등재……

○오영훈 위원 그런데 일본은 지금 마지막 단계에서 등재를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재청장 나선화 예, 아직까지 등재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오영훈 위원 신청 단계가 지난 것 아닙니까?

○문화재청장 나선화 예, 지났습니다.

○오영훈 위원 지났으면 업무보고 자료에 그것을 정확히 기재를 해야지요.

○문화재청장 나선화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여전히 경쟁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어서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요.

지금 제주 해녀 문화가 무형유산 대표목록 등재 대상으로 되었고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문화재청장 나선화 예,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재청장 나선화 큰 무리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혹시라도 그 자료 보완이 있을 시 즉각 보완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최종 결정은 언제 시점이 되겠습니까?

○문화재청장 나선화 최종 결정은 11월 말, 올

겨울이 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예, 좋습니다.

제주 해녀 문화는 세계적인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게 또 상당히 독창적인 문화로 세계인들이 긍지로 가져갈 수 있도록 육성해야 된다고 보고요.

등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등재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제주의 해녀 문화를 어떻게 보급하고 세계인들에게 알릴 것인지, 대한민국의 문화유산을 증진시키는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소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된 각별한 관심을 문화재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문화재청장 나선화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도종환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섭 위원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이동섭 위원 온라인 게임에 대해서 몇 마디 묻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이동섭 위원 혹시 장관님은 ‘오버워치’라는 것 아십니까, 오버워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오버워치요?

○이동섭 위원 게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아니요, 모르고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잘 모르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이동섭 위원 저도 좀 생소한 이름인데요. 한 통계에 따르면 국민의 60% 이상이 온라인 게임을 접하거나 즐기고 있습니다, 현재. 특히 ‘오버워치’라는 게임은 출시 한 달 만에 전 세계에서 3100억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버워치는 우리나라에서도 PC방 점유율 현재 1위입니다. 대흥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본 위원은 이처럼 게임이 젊은이들의 단순한 놀이터가 아니라 문화 산업으로서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큰 시장으로다 변했습니다.

○이동섭 위원 예, 그렇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많은 훌륭한 게임을 개발했을 뿐만 아니라 e-스포츠 산업 규모가 4600억에 달하는 e-스포츠 중주국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외국산 게임이 온라인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게임 산업과 시장은 고사 직전에 있습니다. 최근 급속하게 성장하는 e-스포츠 시장 또한 중국에게 지금 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 알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이동섭 위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과거의 선입견에 사로잡혀 온라인 게임을 단순히 중독과 규제 대상으로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젊은이들을 보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스포츠처럼 게임으로, 이렇게 재미로 즐기고 있습니다, 이런 각박한 세상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래서 상당히 이것도 좀 많이 이렇게 우리가 도와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게임도 건전한 여가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공감의 형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침체된 국산 게임도 다시 부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내 게임 산업과 e-스포츠를 부흥시키기 위한 문체부 차원의 견해와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우선은 중장기 계획을 최근에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계획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온라인 게임을 비롯해 가지고 전체 게임 콘텐츠 시장 자체를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 회사들을 지원해 주는 것도 지원해 주는 것이지만 그것들이 수출될 수 있도록 또 돕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이 아니고 앞으로의 시장을 위한 그런 R&D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투자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질병 코드화하고 이것을 중독으로서 하면 정말 안 되는 것이라고 자꾸 이렇게 사회적 담론을 만들어 가는 것에 대해서 게임 쪽에서도 게임에 관련된 이런, 훌륭한 하나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고 이것이 하나의 문화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담론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이동섭 위원 우리 김종 차관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이동섭 위원 아까 제가 질의 중에 국기원 이사장 문제를 말씀을 안 했는데, 지금 공식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이동섭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국기원 이사장이라는 게 세계적인 그런 자리입니다, 그 자리. 그냥 대한민국의 국기원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기 때문에 높은 도덕성과 능력과 자질이 있고 태권도인들 누구나 봐도 존경할 수 있는 인물로 해야 되는데 그런 인물을 좀 할 수 있도록 국기원 측에 좀 개입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원장과 다르게 이사장은 저희가 승인 사항입니다.

○이동섭 위원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존경하는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사들을 WTF 5개 대륙연맹 회장들이나 우리나라 태권도 인재를 양성하는 주요 대학의 총장님들 그다음에 우리 태권도 주요 단체장님들 그런 중심으로 가고, 이사장님은 글로벌 마인드가 있고 전체적으로 도덕성과 태권도인들한테 존경받는 사람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천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리고요 아까 제가 남북체육교류 말씀드렸는데, 이게 좋아요. 얼마나 신선하고 좋은 겁니까, 스포츠가? 그것 좀 하도록 추진해보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다음에 박태환 선수 문제를 좀 거론하겠는데, 결국은 결과가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금메달 딸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신중하게 고려해서 우리 국익을 위해서…… 메달 수를 가지고 점수를 매겨요, 국익의 순서를. 그렇기 때문에 박태환 선수가 선수 생명이 끊어지지 않도록 한번 추천하는 방향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그것은 저희가 지금 당장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우선 지금 CAS에 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위원님이 아까도 태권도 이사장 말씀하신 대로 도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일부 언론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덕성과 메달 관계에 있어서 과연 어느 게 나은지도 좀 더 검토를 해 보고, 우선 결과가 나온 다음에 저희가 입장을 정리를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도종환 이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 장관님, 늦은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장관님, 화이트 엘리펀트 현상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지자체에서 관광객들 모으고 또 지자체 이미지 개선 또 홍보 이런 것을 위해서 국제대회 유치하고 그럴 때 정부에서 시설 건립 지원도 하고 해서 건물 지어 놓고, 그것을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는 유지비용이 많이 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지어 놓은 상태인데 이것을 그냥 그대로 묵힐 수는 없으니까 계속 관리를 해 주어야 되거든요, 이런 시설을. 처음에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서 국제대회 유치할 때는 돈도 많이 들지만, 비용도 많이 들지만 일단 지어 놓고 대회 유치하는 것은 그렇게 많이 안 들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이종배 위원 이건 스포츠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상당히 좋은 일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더니 자료가 없어요. 관리를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국제대회 시설물 지원이라든지 관리하는 것 또 사후 활용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이종배 위원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자료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라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이종배 위원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은 돈이 많이 안 들잖아요, 그렇지요? 돈이 많이 안 드는 것을 통해서 우리나라 국제적인 이미지도 높이고 또 스포츠의 활성화도 시키고 또 스포츠 경기력

도 향상시키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아요, 또 스포츠 관광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용역을 좀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용역을 하실 그런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제가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해 보지는 않았습시다마는 아마 체육진흥관리공단에서 이런 유사한 연구들이 그동안에 몇 차례 있었던 것으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대부분이 국제경기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치르게 되면 큰 경기장이 생기고 나면 그것의 관리 주체가 대부분 지자체에 남게 되면……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그냥 방치하고, 또 요즘에는 국제대회 무분별하게 하지 못하도록 평가를 하고 이러니까 더 위축되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이왕 지어진 것 그냥 그대로 방치되는 것보다는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노력해 보면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지원 방안도 좀 강구해 보시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문화재청장님.

○문화재청장 나선화 예.

○이종배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가 도난당했다던 지광국사탑 사자상이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되고 있다고 해서 금년도에 좀 얘기가 되었지요?

○문화재청장 나선화 예,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기왕에 알고 있었고 또 문화재청이 나중에 알았고 그리고 또 국민들에게는 공개가 늦다 보니까 언론에 먼저 공개가 되어 가지고 정부로서는 망신스러웠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렇지요?

○문화재청장 나선화 예, 면목이 없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박물관장님도 열다섯 분이냐 와 계시고 이러는데 같이 국가관리문화재 통합 베이스가 구축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서로 공유도 하고 하면 이

런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문화재청장 나선화 예,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런 것을 한번 우리 장관님하고 같이 잘 협조해서, 돈도 많이 안 드는 것이니까 한번 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문화재청장 나선화 예, 관계기관과 협력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중앙박물관에는 그 내용들을 지금 현재 DB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 파편화되어 있는 것들조차도 전부 다 한 건씩으로 기록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거의 큰 자루 같은 데 담겨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데이터베이스화 해 가지고 서로 자료를 공유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그렇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고 저희가 그것에 대한 지원이나 실제로 진행 자체는 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국보 문제, 국보 1호 변경 입법 청원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국보가 그냥 관리 번호인데 우리는 서열 가치 1호, 2호, 3호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문화재청장 나선화 예.

○이종배 위원 이렇게 나가는 데가 우리하고 북한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문화재청장 나선화 예,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우리도 이것을 다른 나라같이 지정 회차라든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형이라든지 순서 이런 것으로 해서 유형별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문화재청장 나선화 예, 도서 정리하듯이 코드 번호화하는 것,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지정 체계도 50년이 넘은 제도이기 때문에 효율적인지 아닌지, 또 여러 선진국가의 문화재 관리실태 같이 다 해서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합리적인 안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도종환**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재청장님께, 제가 지난 국정감사 때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관련해서 요청한 것 있는 것 아시지요?

○**문화재청장 나선화** ……

○**유은혜 위원** 모르세요?

○**문화재청장 나선화**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유은혜 위원** 멸종 위기에 있는 천연기념물인 산양에 대한 실태조사 그때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문화재청장 나선화** 아, 예. 하고 있습니다.

○**유은혜 위원** 하고 계시지요?

○**문화재청장 나선화** 예.

○**유은혜 위원** 그런데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작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는 오색 지구에서 하고 5월부터 10월까지는 장수대 지구에서, 이렇게 나누어서 조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문화재청장 나선화** 예.

○**유은혜 위원**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되면 조사의 목적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양양군에서 지금 문화재위원회 심의 요청이 들어왔습니까, 아직 안 들어왔습니까?

○**문화재청장 나선화**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다.

○**유은혜 위원** 아마 곧 신청이 들어올 텐데, 이게 환경영향평가도 지금 진행 중인데 환경영향평가 끝나기 전에 문화재위원회 심의 요청이 들어오면 이게 일의 순서가 맞지 않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서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진행되어야 절차상 맞는 것 아닙니까?

○**문화재청장 나선화** 이 결과를 가지고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유은혜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 앞서 말씀드렸던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지금 실태조사 하는 것 하고요, 이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위원회 심의 요청 이 절차에 대해서 제가 시간이

좀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문화재청장 나선화** 예, 계획을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유은혜 위원** 그리고 한예종 김봉렬 총장님.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김봉렬** 예.

○**유은혜 위원** 오늘 업무보고에서 향 중국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굉장히 의미 있는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국 쪽에서는 이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어떤 반응입니까?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김봉렬** 중국에서도 굉장히 반응이 좋고요, 한중 합작 무슨 아카데미를 만들자 이런 제안들도 많이 있습니다.

○**유은혜 위원** 중국은 우리에게 기회의 시장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진입장벽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요새 최근에 중국에서 이 문화 콘텐츠 시장에 대한 장벽을 계속 높이고 있고요, 언제든지 또 국가가 시장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산업의 진출도 노력하는 게 필요하지만 우리의 전통문화나 기초예술과 같은 그런 꾸준한 교류협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김봉렬** 예, 그렇게 동의합니다.

○**유은혜 위원** 그래서 저는 교육을 통한 인적 교류협력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향 중국 프로젝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서 제가 청년예술가 일자리 문제 말씀드릴 때 한예종의 청년예술가일자리지원센터의 자료를 인용했는데 이것은 한예종에 국한되어서 진행되는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전체 청년예술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지금 향 중국 프로젝트의 이런 경험이나 성과도 한예종에만 머물지 않고 다른 대학도 함께 공유해서 우리의 자산으로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김봉렬**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정부적인 차원에서 좀 지원과 이런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유은혜 위원** 그래서 제가 장관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는데, 장관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유은혜 위원 장관님, 앞서 도종환 위원님께서 우리 문예기금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이게 곧 바닥이 납니다. 2018년이면 바닥이 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습니다.

○유은혜 위원 그러면 미리 준비를 해서 법이 필요하면 법을 바꾸든지 어떠한 새로운 재원에 대한 대안을 만들고 준비를 해야 될 때인데 아까 장관님께서 고갈이 나면 대책을 세우실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제가 그런 게 아니고요. 그렇지 않는다고요.

○유은혜 위원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문화융성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으시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문화예술 재원이 고갈되면 우리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초예술 분야든 한류든 이게 다 그냥 스톱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실 것인지 대통령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셨나요, 대통령도 알고 계시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미 재정 당국에서 이것과 관련되어 가지고 여러 차례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보고요.

○유은혜 위원 대통령께 보고해 주시고 대안을 마련해서 저희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유은혜 위원 앞서 국립한국문학관 추진과 관련하여 사과 의사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체부에서 이렇게 공모를 한다고 한 것 때문에 여러 지자체에서 많은 행정력이 낭비되고 절차상에 굉장히 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일 처리가 미숙했구요. 사실은 공정하게 이런 일들을 처리한다는 생각이 앞서서 바람에 지자체가 겪게 될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이 좀 짧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 지자체가 이것 때문에 피해를 겪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문학진흥법 안에서 이것들이 반드시 진행되게끔, 국립문학관은 반드시 진행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거라서. 곧바로 하여튼 빠른 시간 안에 추진할 거고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문학진흥법이라는 게 사실은 국립문학관을 만들려는 법이 아니고 문학을 진흥하려는 법이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게끔 저희가 국립문학관이란지 문학 진흥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장단기 계획을 먼저 잘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혜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도종환 유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희경 위원 긴 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새누리당 전희경입니다.

장관님께 뭐 하나 여쭙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문체부의 사회적 뉴스가 되는 것들 중의 상당 부분은 예술의 자유, 창작의 자유와 그리고 그 자유의 한계가 어디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원금을 받는 그런 창작 활동이나 이런 데 대해서 장관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제가 볼 때는, 물론 일부 영역은 잘 보존되어야지 뭐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가지고 잘못하면 그 분야 자체가 몰락할 위험에 빠져 있는 그런 분야들도 존재하고는 있습니다.

○전희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어떤 연출가나 혹은 미술가나 이런 분들이 본인의 작품을 함에 있어서, 그분들이 그 작품을 통해서 표현하고 싶어 하시는 것과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헌법 정신과 상충한다라고 판단되는 경우 그런 경우 우리 문체부는 어떤 식으로 액션을 하시느냐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대부분의 경우 정부가 그런 일들에 개입하지는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문화예술위원회라는 것은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그런 일들이 심사를 통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문체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희경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관점이 명확하게 서 있어야 되는 문제인 것이고, 그리고 그게 문화예술위원회가 집행을 한다고 할 때도 그 문화예술위원회라는 게 예술인들의 그냥 공제조합 성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습니다.

○**전희경 위원** 국가가 다 지원하고 공적인 국가의 기관으로서 활동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명확히 안 하시니까 매번 건건마다 그런 시비가 붙고……

예를 들어서 국가 기관이 지원하는, 국가의 예산으로 지원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활동의 범위라든지 또 그냥 순수하게 어떤 모금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창작 활동을 하실 때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플렉서블(flexible)하게 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대학로에서 바로 이 부분에 관련해서, 또 일각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반론을 제기하시고 지금 문체부나 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예 이런 것은 그냥 건건마다 뒤편 면피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책임성 있는 어떤 기준이라는 것이 확고하게 되어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나 지지를 얻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한예종 총장님께 몇 가지 여쭙어 보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보니까 2015년 성과에도 우수 교원을 채용하셨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2016년의 계획에도 전임교원 신규 채용하고 정원 확대하는 것 그리고 객원교수 및 강의전담 교수 확대 운영에 대해서 써 놓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분 정도를 채용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김봉렬** 저희 매년 한 일곱 여덟 분 정도를 채용해 왔고요. 거의 정원이 차서 올해 한 10명 정도의 티오를 더 달라고

요청 중입니다.

○**전희경 위원** 작년에 여덟 분을 신규 채용할 때 경쟁률 혹시 기억하십니까?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김봉렬** 글썽, 대략 경쟁률이 한 10 대 1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희경 위원** 언론을 통해서 발표된 바로는 23 대 1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지금 보면 로스쿨 채용에 있어서도, 학생들 채용에 있어서도 일각에서는 힘 있는 집의 자녀만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전관의 문제들도 사회적으로 불거져 나왔고 그러는데, 이렇게 계량화할 수 없는 예술 분야에 대해서 임용을 할 때는 각별히 이 부분을 유념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상에서 누락된 건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인 의지가 보이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개교 1세대 교수진 퇴임 대비’ 이렇게까지 적어 놓으시니 우리가 예술계의 누구 사단, 누구 사단, 어느 교수의 제자, 이런 식으로 끈끈한 유대와 서로 이런 관계망이 있다는 사실을 암암리에 알고 있는 와중에, 특히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그 후속으로 신규 교원 채용을 하신다고 할 때는 굉장히 많은 이목이 쏠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대비를 하실 건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의원실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김봉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도종환** 전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 위원** 부산 북구의 전재수입니다.

늦은 시간 고생 많습니다.

장관님, 전국에 지금 둘레길이 한 몇 개 정도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개수는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전재수 위원** 그렇지요. 한 600개 정도 있거든요. 저도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600개의 길이가 한 1만 8000km 정도 되네요.

그런데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주재하신 문화관광산업 경쟁력 강화회의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

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전재수 위원 지난 17일, 여기에서 코리아 둘레길 발표를 하셨데요.

지금 계획이나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까, 발표를 하시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그게 사실은, 그 보도의 핵심이 사실 그것은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그게 지금 핵심이 되어 버렸는데요.

사실은 둘레길이 원래 있는 길들을 더 잘 개발하겠다는 의미인 거고 그것을 새로 뚫거나 이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체로 보면 한국의 관광의 질 중심으로 이것을 발전시키겠다, 그중에서도……

○전재수 위원 저도 장관님 그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요.

그런데 그때 발표한 것 보니까 이게 방문자 수와 경제 효과를 산출을 해 놔던데 제가 보기에 굉장히 황당해요. 방문자 수 550만 명에 경제 효과가 7000억이 넘는 걸로, 그리고 정부가 계산한 방법도 보니까 아주 효과를 극대화시켜 놓은 이런 산출 방식을 통해 가지고 발표가 됐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것 장관님께서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저도 동의를 하는데, 이미 600개가 넘는 둘레길이 있고, 1만 8000km의 둘레길이 이미 있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기존에 있는 둘레길을 잘 정리하고 끊어진 것 이어 가지고…… 길이라는 게 사람이 다녀야 길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습니다.

○전재수 위원 해 놓고 안 다니면 이게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존의 둘레길을 잘 정리를 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려가 됐던 것이 뭐냐 하면 대통령께서 주제를 하신 회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전의 경험들을 보면 대통령 관심 사업 해 가지고 사실은 이게 여론이라든지 국민 정서라든지 전문가들 의견이 완전히 무시가 되고 대통령 관심 사업이니까 무리하게 추진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전부 국민 혈세가 다 낭비됐던 그런 것들 아닙니까?

그래서 코리아 둘레길 이 부분은 장관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니 그렇게 잘 좀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 주셨으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그날 대충의 발표 내용의 핵심은 질적인 개선을 하자 그랬던 거라서요.

○전재수 위원 그리고 제가 이게 인사 문제라서 조금,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장관님께서서는 문광부 출신이 아니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습니다.

○전재수 위원 1차관님은 문체부 출신이신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과거에 국정 홍보처의 전신인 공보처에 잠시 몸을 담고 있던 적은 있습니다마는 문체부는……

○전재수 위원 2차관님께서서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아닙니다. 학교에 있다 왔습니다.

○전재수 위원 어떻게 내부에서 승진해서 올라오신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고 세 분을 어떻게 이렇게 다…… 대통령께서 또는 인사권자께서 각별히 문체부에 이러한 인사를 통해서 조직의 기풍을 바꾼다든지 각별히 챙겨 보기 위해서 하신 그런 인사인가요, 아니면 우연히 이렇게 된 것…… 다른 부처에 이런 경우가 있나요? 없지요? 없을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전재수 위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는 낙산 인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그냥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간 사이드의 경쟁력이라든지 민간 사이드의 새로운 기풍이 조금은 관료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님을 비롯해서 두 분 차관님 그리고 문체부 산하의 공공기관장들을 보면, 일일이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게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오시고 난 뒤에 문체부의 조직적 기풍이 긍정적으로, 새로운 기풍이 생겼다든지 그런 게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글썽요, 그것을 제가 지금 알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장·차관이라든지 일부 주요 보직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의 생각이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대리 도종환 전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승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래 위원 저는 순서가 다음다음인 줄 알았는데……

아까 문예진흥기금에 대해서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문체부에서도 이 문제가 좀 심각하다 생각을 하셔서 내부 TF도 만들어서 대책도 만들고 그렇게 고민을 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습니다.

○조승래 위원 혹시 TF에서 만들어진 안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그런데 사실 문체부 안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문체부 안에서 백날 얘기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게 재정 당국과 사실 합의가 되어야지 되는 문제인데 재정 당국에서는 지금 아시다시피 기금에서, 지금 현재 체육기금하고 또 관광기금에서 넘어오고 있는데 작년의 예를 보면, 작년에 물론 메르스라든지 이러저러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기금 자체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상태로까지 가고 있습니다.

○조승래 위원 그래서 문체부 내부 TF로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재정 당국, 기재부와 범정부 TF를 만들어서…… 아까 유은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계실 것이라고 장관께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께 보고를 드려서 기재부와 TF를 만들어서 이 대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문화융성 그리고 문화 재정 2%, 이 공약이 빛이 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시게 되면 저도 이러저러한 노력을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조승래 위원 그리고 다음으로는 혹시 영화노사정협의회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조승래 위원 그게 지금 구성이 돼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노사정협의회는 아직 구성은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표준계약서 때문에 현재 영화사 쪽하고 또 배급사들 같은 데다가, 제작사에다가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적용해 가지고 해라, 특히나 우리가 정부에서 모태펀드로다가 지원하는 것이라든지 정부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정부 펀드를 대지 않는 걸로 했습니다.

○조승래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슬라이드를 보시면, 지금 저게 4대 메이

저 배급사들이 표준근로계약서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아주 잘하고 계시는 데도 있어요, 92.3%. 그런데 11.1%…… 어떤 메이저사인지를 이름을 공개할까 하다가 그거는 그냥 지웠습니다. 이름을 지웠는데, 우리가 망신 주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장관께서는 일단은 업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표준근로계약 실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점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저 메이저사들한테는 실제로 그걸 독려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세한 제작사라든지 아니면 독립영화를 제작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까지 사실 적용시키기는 당장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렇게 메이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아마도 문체부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신다면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영화노사정협의회와 관련해서, 지금 실무협의는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조승래 위원 그런데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 노사정위원회가 또 있지 않습니까? 노사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노사정위원회라는 큰 모태를 먼저 만들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실무적 단위가 구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사실 거꾸로예요. 제 생각에는 빨리 장관께서, 물론 이 업무를 문예진흥위원회로 이관을 하셨던데요. 어쨌든 장관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영화노사정협의회를 빨리 조속하게 구성을 좀 해 주십시오. 이걸 법이 정한 바 아닙니까? 벌써 법이 만들어진 지가 1년이 넘었고 시행령이 만들어진 지도 한 7개월이 됐어요.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것을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조승래 위원 왜냐하면 이 취지가 실제로 영화 제작사에 있는 제작 스태프들을 비롯한 사실은 정말 어려운 영화제작자들 그리고 스태프들을 좀 도와주자는 그런 취지로 만든 것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구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조승래 위원 그다음에 간단한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이 올해가 97회지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예, 그렇습니다.
- 조승래 위원 충남 아산에서 개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00회가 얼마 남지 않았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예, 그렇습니다.
- 조승래 위원 100회 개최지는 어디입니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서울로다가……
- 조승래 위원 그러면 100회는 정말 아주 의미 있게 행사를 준비하시나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지금은 아직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 조승래 위원 100회인만큼 아주 의미 있게, 가능하다면 북측도 초청을 해서 북측과 함께하는 전국체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민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예.
- 위원장대리 도중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래 위원님.

이어서 강길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부 위원 강길부 위원입니다.

아까 반구대 암각화 마무리하겠습니다. 장관님하고 청장님이 같이 들으십시오. 생각도 같이, 의견을 들겠습니다.

현재 카이네틱 댐이 실패로 돌아가니까 지금 최종 확인절차는 다 거치겠습니다마는 울산에서 생태제방 안을 다시 들고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생태제방 안은 MB 정부 때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하는 것을 저는 옆에서 들었습니다. 왜 이것 못 하느냐? 그때 문화관광부하고 문화재청이 '현상 변경은 못 합니다' 해서 그게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 이것을 논의를 붙여 놓으면 토목학자들은 무슨 이유를 대서 이렇게 하고 또 문화계는 이렇게 하고 그걸 견뎌 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환경단체에서도 가만히 안 있습니다. 수로를 새로 열지 않습니까?

저는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반구대 암각화 뒤에 산이 있잖아요. 상당히 많이 있고 이게 생태제방, 바로 반구대 앞에 쪽 연결하는 것이 420m 아닙니까? 그러면 420m의 그 장장한 거리에서 오는 물을 무슨 수로 감당합니까?

(도중환 간사, 유성엽 위원장과 사회교대)

요즘 홍수 한 번 지면 얼마나 물이 많이 내려오는데, 물은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카이네틱 댐이 성공했다손 치더라도 이것 물에 띄워 놓으면 물의 압력 때문에 견디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선불리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대통령이 바로 지시해도 안 됐던 겁니다. 그러시고요.

그다음에 포르투갈 정부가 1994년 4월에 수력 발전소를 건설하던 중에 구석기 시대의 암각화가 발견되자 10개월 만에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유적 보존기로 결정을 했고 그로부터 4년 후에 코아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는 사실 아시지요?

○문화재청장 나선화 예.

○강길부 위원 좋은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청장 나선화 예, 알고 있습니다.

○강길부 위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청장 나선화 알고 있습니다.

○강길부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한승수 총리가 이것 할 때 저는 많이 관계를 했고, 직접 참여는 못 했습니다, 내가 당사자가 아니니까. 백테이터를 하고 그랬는데, 운문댐 물을 가져오는 것은 그냥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운문댐은 낙동강 물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안동댐에서 내려오는 물이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운문댐이 왜 그때 등장했느냐 하면, 울산지역에 7만t의 물을 확보하려고 댐을 건설하려고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공사비를 감당할 수 없고 또 댐 적지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임하댐을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임하댐이 현재 안동댐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 2개 연결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 물을 현재 포항제철에서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여기에 운문댐이 있느냐 하면 운문댐에 있는 그 물은 울주 소호마을에서 물이 흘러들어 갑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댐 위치는 어디 있느냐 하면 청도 쪽에 있습니다, 밑에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울산으로서는 당연히 물을 가져올 권리가 있고, 다른 데 물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걸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한 30, 40만t 중에서 7만t밖에 못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결정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확정된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

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카이네틱 댄 있잖아요. 그때도 어떻게 됐습니까? 한승수 총리가 그것 하고 난 다음에 김황식 총리 계실 때 그것 엑스 쳤지 않습니까? 그때 홍준표 경남지사 그분이 당대표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먹는 물에 무슨 놈의 그게 있습니까? 타당성조사가 있습니까?’ 이런 말을 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먹는 물은 타당성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돼 있느냐 하면, 국보 앞에 제방을 쌓아 놓으면…… 국보 앞에 어떻게 제방을 쌓습니까? 그것은 경관을 완전히 망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간단한 것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네스코에 가서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보겠습니까? 유네스코 가면 현재 실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조사관이 나와 가지고 할 겁니다. 조사관이 지금 임명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묻습니까? 그렇게 임시방편적으로 자꾸 하다 보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장님께 내가 이야기해 주는데 제가 책까지 다 드렸습니다, 그간에 있었던 경과에 대해서. 오죽 답답했으면 제가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장관님께서서는 이걸 청장님한테 맡겨 놓을 사항이 아닙니다. 역대 국무총리가 세 분이나 다 다녀왔지 않습니까? 국회의장이 다 다녀왔지 않습니까? 문화부장관이 다 갔지 않았습니까?

갔다 오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가 봤습니다.

○강길부 위원 어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그 당시에는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사실은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 앞을 막는다는 것을 조금 이상하게 생각도 했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이따 추가질의하시지요. 또 기다리시는 분들……

○강길부 위원 이것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고 이것을 자꾸…… 울산시는 옛날부터 그것 주장한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고 유로 변경도 주장했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

재위원회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문화재위원회 했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문화재청장 나선화 예.

○강길부 위원 그렇게 다른 사람의 견해는 또 다릅니다. 나도 학을 뗐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잘해 주시고……

○문화재청장 나선화 예, 잘 알겠습니다.

○강길부 위원 장관께서는 신중히 해 주시고, 만약 하더라도 제1안 수위조절 문제를 하고 2안으로 그러면 생태제방 안을 하든지, 이걸 먼저 이렇게 하면 그것 감당 못 한다는 말씀을 확실히 전해 드리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위원장 유성엽 그렇게 하시지요. 이 자리에서도 답변을 정확하게 잘하셔야 하는데 나중에 또 개별적으로도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침을.

○강길부 위원 그리고 문화부장관께서 여러 번 반구대 암각화를 등록을 하려고 그러면 해외에 많이 알려야 되고 문화콘텐츠를 하겠다고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도 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무 국장을 저희한테 보내 주십시오. 어떻게 할 건지 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 위원 용인율의 김민기 위원입니다.

장관님,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이 우리나라 관광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간단하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아무래도 좀 부정적인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경기 자체가 안 좋아지면서 분명히 우리에게 그런 점은 있습니다만, 반면에 일본 관광객들은 지금 엔저이기 때문에 그 혜택을 좀 봤던 것 같은데 엔고가 되면서 오히려 일본 관광객은 조금 늘어날 것 같긴 합니다.

○김민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장관님께서서는 별도의 대책을 갖고 계신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문체부 자체 내에서 대책 세우고 있습니다.

○**김민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외래 관광객 실태조사를 했더니 재방문율이 일본은 78.7, 싱가포르 60.6, 홍콩 59, 말레이시아 23, 태국 37, 러시아 57 이렇게 재방문율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는 좀 달라요. 상식적으로는 동남아 국가에서 우리나라 재방문율이 높아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거꾸로 나오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본은 왜 78.7로 우리나라에 또 오고 싶다 이런 게 많은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대부분 일본 관광객들 같은 경우에는 오던 사람들이 계속 오는, 한류 팬들이라든지 비즈니스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고, 대부분 동남아라든지 중국 같은 경우에 처음 방문하시는 관광객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단체 관광객이 많은 편이고요. 일본 관광객 같은 경우에는 거의……

○**김민기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7, 80%가 FIT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민기 위원**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리면 동남아에서 오시는 분, 재방문율이 좀 낮은 데를 보면 비행기 표, 왕복 항공권도 안 되는 걸로 3박 4일 옵니다. 이건 완전히 저가지요. 저가도 이런 저가가 없지요. 그러면 여기서 한국의 서비스의 질은 어떻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차라리 이렇게 우리나라를 방문할 거라면 지금 몇 백만이 들어온다 이런 건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이것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중국뿐만 아니라 특히 동남아, 지금부터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되겠다, 특별한 대책을 좀 갖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장관님 어떠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관광에 관련돼 가지고 중국하고는, 중국 정부하고 지금 대책을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측에서 그런 상품을 팔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중국 정부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민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신문발전기금과 언론진흥기금이 합쳐지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습니다.

○**김민기 위원** 장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역신문발전기금이 꼭 존치돼야 된다는 의견이 많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제가 알기로는,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5년 더… 6년 연장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기 위원** 연장이 됐는데 기재부에서는 그것을 합쳐라 이런 겁니다. 장관님, 부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지역신문 같은 경우에 사실은 도움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합치게 될 경우에 있을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민기 위원** 알겠습니다. 잘 지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청장님께 간단한 질의 하겠습니다.

○**문화재청장 나선화** 예.

○**김민기 위원** 지금 반구대 암각화 사업이, 전제조건이 즉 실내 실험이 실패해서 실외 실험을 52%나 진척된 것을 허물어 버렸다는 게 이게 지금 팩트지요?

○**문화재청장 나선화** 예.

○**김민기 위원** 그것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이상하나 하면 실내 실험에 성공을 해야 실외 실험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예산이 그중에 29억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후자에 쓴 52% 들어간 게 더 큰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실내 실험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실외 실험을 결행했다는 얘기가 돼요. 이게 옵션이 걸려 있는 실험인데, 앞의 게 성공을 해야 뒤의 작업이 들어가는 건데 앞의 것 성공 여부도 모르는 상태에서 뒤의 것이 들어가서 예산 낭비한 거거든요.

이 결정 과정을 혹시 청장님 아십니까?

○**문화재청장 나선화** 자세히는 알고 있지 못하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실내 실험이 구조적인 것 여러 가지를 하면서 긍정적인 평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기가 되면 또 실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의 기초적인 것은 해도 좋지 않은가 판단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기 위원** 제가 이것 마무리해야 됩니다.

○**위원장 유성엽** 1분만 더 하십시오.

**○김민기 위원**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지금 전제조건이 필요한 겁니다. 실내에서 실험을 해 본 다음에 그 실험에서 물이 안 샌다라고 그러면 밖에서 실험을 하고 그게 성공을 하면 이제 본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내에서 실험을 하는데 물이 샐어요. 그러면 아예 안 해야 되는데 이미 뒤에는 물이 새건 말건 간에 실험이 또 들어갔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52%나 진척됐다가 ‘이건 실패했다’ 그래서 그걸 헐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는 이게 순서를 잘못 켜서 예산 낭비를 했다라는 것, 실패나 성공이냐의 관점을 떠나서 일머리에 있어서 순서 잘못됐다 이런 건데 이런 것을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

**○문화재청장 나선화** 그런 지적은 타당하십니다. 그런데 시간은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됐기 때문에……

**○김민기 위원** 이게 시간하고 관계가 없다니까요.

**○문화재청장 나선화** 기술검증위원회에서는 실내·실외를 동시에 하자라는 의견을 내놓으셔서 기초적인 것만 동시에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김민기 위원** 그게 29억이라니까요, 기초가 아니고.

**○문화재청장 나선화** 그리고 기초 조사에 14억을 썼고요. 그다음에 세부 실험 사업에 14억을 썼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이따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광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상도 위원** 대구 중남구 광상도 위원입니다. 장관께 좀 여쭙 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1페이지 가운데 보면 ‘지역핵심 관광콘텐츠 확충’이라는 제목의 보고가 있습니다. 이게 관광특구 얘기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관광특구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거점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광상도 위원** 관광특구와 또 다른 거점이 되게 돼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것하고는 다른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광상도 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지역하

고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역하고 또 별개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 중에서 아마 1개를 지정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광상도 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국토부하고 아마 같이 하는 걸로……

**○광상도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국토부하고 함께 지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상도 위원** 그러면 이게 지역핵심 관광콘텐츠, 지역거점 권역을 선정했다고 돼 있고 핵심 관광지로 조성하고 핵심 관광지에 대해서 전략적 지원을 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대상 지역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지금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고요. 지역거점을 한 3개에서 5개 정도 지자체들이 지금 후보로 올라와 있고 그중에서 국토부와 검토해서 한 군데를 아마 지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광상도 위원** 그러면 이것은 한 군데 정도 하는 것이고 관광특구와는 다를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광상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상도 위원** 그다음에 관광특구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쭙 보겠습니다.

관광특구가 지금 13개 시도에 31개가 지정돼 있다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광상도 위원** 이게 관광특구지역으로 되면 관광특구지역에 대해서만 공모를 받아 가지고 예산 배정 같은 것 이런 게 되고 있는 게 맞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광상도 위원** 그런데 관광특구로 지금 지정이 안 된 데가, 한 군데도 없는 데가 대구·광주·울산 세 군데라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정확한 지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광상도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아무것도 없는 데가 서울 여섯 군데, 부산·인천·대

전·경기 네 군데 이런 식으로 쪽 있습니다만 대구·광주·울산이 없는 걸로 그렇게 자료를 받았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예, 맞습니다.

○곽상도 위원 그런데 광주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있어서 그렇다고 치고 대구하고 울산은 이렇게 배제를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구지정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그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지방비하고 매칭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보니까 시·도지사가 그걸 지정을 해가지고 아마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시·도지사가 지정을 하고, 그러면서 문체부하고 같이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곽상도 위원 지금 2013년에도 정홍원 총리 계실 때, 그때도 한 번 관광특구 지정요건을 좀 완화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총리께서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문체부 쪽에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작업에 전혀 들어가지 않아서 그 당시에 그렇게 답변하셨지만 아무런, 어떤 조치가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제가 그건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곽상도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제 시간 다 끄는데 시간 좀……

○위원장 유성엽 참고하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받은 것으로는 지정요건 완화가 지자체, 지역단체, 지역주민 또 이해관계자를 고려했을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야지 되는 문제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왜 완화하기가 어려운지 이 문제는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곽상도 위원 그래도 성장잠재력을 키우고 하려면 조금 모자란 데도 지정을 해서 한 군데도 키워 주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대구하고 울산 같은 데는 한 군데도 지정을 안 해서 배제를 하고 다른 지역들만 이렇게 응모할 기회도 주고 한다면 너무 한쪽에 치우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

토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예, 그렇게 담당자하고 이것 한번 살펴보고도 하겠습니다.

○곽상도 위원 그다음에 선거하러 다니면서 경로당을 제가 많이 들어가 봤는데 우리 노인들이, 어느 경로당 할 것 없이 전부 고스톱 판만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들어간 저도 민망하고 거기 고스톱 치시는 노인분들도 좀 민망하고 서로 민망한 일들이 참 많았는데, 다른 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레저가, 뭔가 좀 콘텐츠를 여러 가지 개발하고 게임도 개발하고 한다고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노인 인구가 지금 점점 많아지고 앞으로 그렇게 것으로 보여지는데 노인들을 위한 레저 방식을 조금 바꿔 줘야 되지 않느냐, 치매 예방 위해서 고스톱도 괜찮은 면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진일보한 레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한번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제가 알기로는 지역문화원에서 일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확대되도록 그렇게, 이게 아마 예산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일이라서 그게 그렇게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 위원 분당율의 김병욱입니다.

저는 정책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휴가사용 일수가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하위권이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예.

○김병욱 위원 세계적인 여행사 익스피디아가 발표한 자료에 따라도 우리나라는 상당히 낮습니다. 이에 반해 프랑스나 독일, 스페인, 핀란드, 브라질 등은 1년에 거의 30일 정도의 휴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관광산업을 발전시켜야 되지 않느냐, 어떤 길을 내거나 콘텐츠를 보강하거나 다른 방법도 물론 필요하지만 휴가일수의 대폭 확장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관광산업을 진흥하는 발상의 대전환을 한번 해 보자는 정책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지금 우리나라 정부기관의 연차휴가 사용도 보장된 연차휴가의 한 40%~50%밖에 사용하고 있지 않고요. 지금 우리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문체부도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연차의 47%만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런저런 이유로 연차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데 이 연차 사용일수를 한 5일만 늘려도 지금 여름휴가 일주일을 2주로 늘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휴가일수에 맞는 관광상품이 개발될 수가 있고 본인들도 굳이 꼭 관광 아니더라도 다른 자기개발과 또는 휴양 또는 보건 쪽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관광산업의 획기적인 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장관님께서서는 이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존경하는 김병욱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문체부가 그렇게 연차조차 제대로 사용 안 하고 있는 것에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우선 저부터 솔선수범해서 휴가를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욱 위원** 이번 휴가부터 적용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김병욱 위원** 직원들 모두 이번 휴가는 2주간으로 가는 것으로 오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국무회의에서 다른 부처에도 장관님께서 건의하셔서, 굳이 꼭 필요한 분들은 물론 사용을 못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대대적으로 관광을 가서서 주머닛돈 좀 푸시고 국내관광 활성화에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지난번 국무회의에서 이미 한 번 여름휴가를 좀 많이 가 달라는 부탁을 국무위원들께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문체부에서도 전경련하고 또 중소기업중앙회하고 휴가 사용에 관련돼 갖고 업무협약을 체결해 갖고 어떻게든 휴가를 좀 많이 보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병욱 위원** 그래서 이번 여름휴가부터 적용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재청장님한테 여쭙겠는데요.

현재 문화재청이 보유하고 있는 앱이 몇 개지요?

**○문화재청장 나선화** 앱이 그전에 20개가 넘었

었는데요. 너무나 활용이 안 되는 게 많고 그래서 9개로 통합해서 정리했습니다.

**○김병욱 위원** 9개를 없앴더라고요. 그런데 그 9개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이 얼마였지요?

**○문화재청장 나선화** 비용은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김병욱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한 7억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문화재청이 보유하고 있는 앱이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9개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입된 비용이 한 23억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형식상 명분상으로는 ICT 기술의 결합, 이런 단어로 앱이라는 것을 권장하고 또 보니까 대통령 지시사항에도 포함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보니까 1년에 관광 앱 대비 앱 다운로드 비율이 0.093%예요. 이런 자료를 알고 계십니까?

**○문화재청장 나선화** 예, 자료를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김병욱 위원** 그러면 개선책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화재청장 나선화** 지금 점점 확대되고 있고 개선해 가고 있습니다.

**○김병욱 위원** 확대되고 있다고요, 다운로드 숫자가?

**○문화재청장 나선화** 예,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확대된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욱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전혀 개선사항이 없던데요. 그게 정확한 자료입니까? 확대되고 있습니까?

**○문화재청장 나선화**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처럼 저도 그걸 따져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확대되고 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김병욱 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그 자료도 저희 의원실에 제출해 주세요.

제가 보니까 너무나, 쉽게 얘기해서 겉포장은 화려한데 내실은 전혀 없는 사업이 이 앱이거든요, 문화재청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연속발언이니까요.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고 얘기를 하니 그쪽에서는 뭐냐 하면 ‘향교·서원 관련된 안내 어플리케이션도 곧 개발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해요.

이것 조금 무책임한 답변 아닌가요? 뭔가 개선

책이 나오고 나서 그다음에 그 개선책을 갖고 또 새로운 앱을 개발해야만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문화재청이 좀 더 내실 있게 운영이 될 텐데, 지금 수십억의 돈을 투자한 앱이 거의 무용지물인 게 수년간 통해서 판가름됐음에도 불구하고 향교와 서원에 관련된 앱을 또 개발하겠다고 하는 그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재청장 나선화 위원님 지적 옳으십니다. 수십억의 예산을 저희가 투입할 만한 여력은 없어서 외부기관에서 하는데 응모를 해서 그쪽 예산을 받아서 한 것도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 앱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건 문제이기 때문에……

○김병욱 위원 아니, 앱 개발하는데 외국기관까지 들어와서 한다고요?

○문화재청장 나선화 어쨌든 저희가 검토해서 정확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병욱 위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니까 최근 4~5년간 개발업체의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앱을 앞으로 어떻게 계속 더 확대하겠다는 사업계획서 함께 저희 의원실에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재청장 나선화 앱도 이제는 활용도가 좀 떨어져 가기 때문에, 이게 모바일 폰으로 이동해 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으로 전환을 벌써 시작했습니다. 계획 올리겠습니다.

○김병욱 위원 계약된 개발업체하고 사용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성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노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웅래 위원 서울 마포갑의 노웅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먼저 제2차관한테 여쭙게요.

아까 질의했던 건데 우리 체육복권사업의 국가수탁자 케이토토의 부당한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노웅래 위원 그 내용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웅래 위원 이것 만약에 제안서가 허위로 됐든지 지분을 가진 사람이 경영에 참여하든지 이렇게 되면 사업권 박탈사유가 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웅래 위원 철저히 그것 특별 감사해서 그 결과 알려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알겠습니다.

○노웅래 위원 문체부장관께 물겠습니다.

지금 문체부와 언론진흥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뉴스트러스트 사업이라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습니다.

○노웅래 위원 이게 좋은 뉴스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습니다.

○노웅래 위원 그런데 좋은 뉴스라는 게 뭘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좋은 뉴스라는 말은 조금 맞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일종의 DB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뉴스 DB 사업입니다.

○노웅래 위원 뉴스 DB 사업이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습니다.

○노웅래 위원 이것 좋은 뉴스 이렇게 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거는 조금 잘못된 말인 것 같습니다.

○노웅래 위원 자칫하면 정부 입맛에 맞는 뉴스만 전하는 게 아니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웅래 위원 그러니까 일종의 신보도지침이나 뉴스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게 아니냐, 대선을 앞두고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마치 뉴스에 KS마크를 달아 주는 것처럼 이렇다고 그런다면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유념해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웅래 위원 만약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나중에 또 분란의 소지가 있다고 한다면 재검토돼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예.

○노웅래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문화재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내년부터 궁궐에 숙박사업 하게 되나  
요?

○문화재청장 나선화 예.

○노웅래 위원 관광사업 차원에서 하는 거지요?  
그런데 관광사업도 좋지만 우리 궁궐이라는 게  
결국에는 목재문화재잖아요. 목재문화재인데 화  
재 위험도 있고 문화재 훼손 위험도 있는데 이렇  
게 하는 게 맞는 겁니까?

○문화재청장 나선화 그 활용 사업에 대해서는,  
그 활용에서는 현상을 변경하는 일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도 지적하시고 몇몇  
전문가들도 숙박사업이나 이런 거는 옳지 않다라  
고 하셔서 그런 사업은 하지 않고 현상 변경하지  
않는 차원에서 궁궐 건물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웅래 위원 그러니까 숙박사업은 없습니까?  
궁궐 숙박사업 없습니까? 없는 거지요?

○문화재청장 나선화 예, 아닙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경궁의 통명전에서 민간인들이 1박, 하루 잠  
만 자고 가는 프로그램은 현상을 그대로 활용하  
는 프로그램에는 민간들이 좀 하고 있습니다.

○노웅래 위원 숙박사업이 있어요?

○문화재청장 나선화 예, 그런데 그거는 그냥  
하루 자고 나가는 거였는데 그 전부터, 오래 전  
부터 해 오던 프로그램입니다.

○노웅래 위원 그러면 그냥 자고 나가지 따로  
뭐가 있습니까?

○문화재청장 나선화 궁궐의 분위기나 밤의 전  
경을 체험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노웅래 위원 목조로 된 우리 문화재에 숙박을  
하게 되면, 온돌이잖아요. 불도 떼고……

○문화재청장 나선화 그런 거 전혀 하지 않는  
차원, 가을이나 봄 계절에만 하고 있습니다. 현상  
변경은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웅래 위원 그렇게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아마 지적이 됐던 것 같은데, 정  
부가 문화관 설립하려고 했던데 공모까지 했다가  
지금 중단된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예, 그렇습니다.

○노웅래 위원 그런데 뭔가 경쟁이 치열하면 무  
조건 중단이나 취소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그건 아니고 경쟁  
이……

○노웅래 위원 그러니까 중단이라는 게 어떤 뜻  
이에요? 앞으로 안 한다는 뜻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그렇지 않습니다.

○노웅래 위원 또 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문학진흥법에 따  
라서 반드시 하게끔 돼 있습니다. 다만 이 문학  
진흥법이라는 것이 문학을 진흥하기 위한 거지  
박물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의견을 수렴해서……

○노웅래 위원 그런데 왜 중단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중단한 게 아니고  
요.

○노웅래 위원 중단했다고 그러시는 것 아니에  
요? 중단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공모를 중단한 겁  
니다.

○노웅래 위원 공모를 중단한 거지요. 하여간  
과열경쟁 때문에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지자체들 간에 경쟁이라든지 이게 너무  
과열화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노웅래 위원 과열화되면 원칙과 기준대로 정  
하면 되지 왜 자꾸, 정치적인 잣대로 하시려고  
하니까 지금 안 되는 거지요. 이것 신공항 백지  
화된 거랑 똑같은 경우 아니에요? 그러면 이해관  
계가 걸려 있는 국책사업은 아무 것도 할 수 없  
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게 정부입니까? 소신껏 하셔야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그래서 소신껏 하  
려고 지금 그렇게 하는 중입니다.

○노웅래 위원 소신껏 하시면 연기하지 마셔야  
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지금 공모를 하다  
보니까 공모가 엉뚱한 방향으로 조금 발전을 하  
는 것 같아서 중단한 겁니다.

○노웅래 위원 뭐가 엉뚱해요. 불만도 있고 그  
럴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 경쟁을 하는데 불만  
없이 어떻게 다 합니까?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  
는 사람 있는 것 아닙니까?  
하시건 하시건 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습니다.

○노웅래 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하세요. 원칙과 기준대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

○위원장 유성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석 위원 아시아문화전당장님께 잠깐만 마 이크 좀 드리십시오.  
장관님, 아시아문화전당은 사실 문화에 있어서도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전당장님, 상황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개관된 지 한 7개월 지났잖아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직무대리 방선규 예, 그렇습니다.

○송기석 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가 다 개관되지 못하고 있지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직무대리 방선규 그렇습니다.

○송기석 위원 심지어는 작년에 예산 불용까지 나와서 올해 예산이 더 줄어든 것 아닙니까?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직무대리 방선규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송기석 위원 이게 2차관님 소관인가요, 1차관님?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1차관 소관입니다.

○송기석 위원 2015년에 불용예산이 어느 부분에서 발생한 겁니까?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직무대리 방선규 2015년 불용예산은 저희가 건축이 좀 늦어진 것도 있고요. 저희가 아시아개발원에서 아시아문화원으로 작년 10월 1일 날 설립이 됐습니다. 그 과정이 늦어진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송기석 위원 그러면 시설공사가 늦어져서 그 부분이 발생했다 이 말입니까?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직무대리 방선규 그 부분도 있고, 또 5·18 관련 민주평화교류원 그 전시콘텐츠 작업 그것이 또 들어 있습니다.

○송기석 위원 지금 듣고 보니까 별로 국가기밀도 아닌 것 같은데 광역자치단체가 요청하면 왜 안 알려 줍니까?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직무대리 방선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송기석 위원 좀 협의를 해서 긴밀하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개원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직무대리 방선규 저희가 6개 보존건물은 이미 리노베이션 해서 5·18 당시 때로 건물은 보존하기로 시민사회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공사를 진행했구요.  
저희 아문당에서 과연 5·18의 인권·평화·민주정신을 어떻게 우리가 전승할 것인가, 알릴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13년부터 논의를 했구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그 계획대로 하기로 시민사회와 정책토론회도 했고 설명회도 했고 또 5·18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당시에 5·18 단체가 여러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다 수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전남 분청 문제.....

○송기석 위원 그 부분은 됐고요. 지금 현재 5·18 단체하고 이견이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직무대리 방선규 그래서 2012년부터 작년까지 리노베이션 공사가 다 끝났는데 저희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요구하지 않았던 총탄 흔적 문제, 그다음에 상황실·방송실 복원 문제가 이제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새로운 이슈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송기석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직무대리 방선규 지금 사실상 전시콘텐츠가 5·18이나 시민단체 협의를 거쳐서 상당부분 이렇게 구축하기로 합의된 상태였고, 또 올 8월이면 상당부분 다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는 일방적으로 가겠다는 생각은 없고요. 지금 2월 1일부터 부분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우리가 합리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5·18 단체도 이해를 하게 될 것 같다,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중단해 놓고 지금 여론수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기석 위원 그 중단된 게 지금 5·18 단체에서 요구한 이후로 중단하고 있고 그 이후로 그 사람들 거기서 이제 천막 치고 농성까지 했잖아요, 그분들이. 그리고 농성을 그만 둔 이유가 이

제 대화해서 해결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리고 저희 의원들도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직무대리 방선규 그래서 총탄 문제와 상황실·방송실 문제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총탄 흔적 문제는 전남도청이 거기를 25년 동안, 2005년까지 썼고, 저희는 공사한 게 페인트칠하고 벽돌공사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송기석 위원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 요청사항을 반영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직무대리 방선규 그래서 이제 그 요청사항을 반영하자면 문제는 뭐냐 하면, 1년 6개월 동안 앞으로 문을 못 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또 지금까지 든 예산이, 한 280억 정도 거기 책정이 됐는데요. 또다시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중단하고 5·18 단체의 요구대로 복원하는 것이 옳은 건지, 또 많은 어떤 광주 시민사회에서는 빨리 아시아문화전당이 제대로 오픈되고 운영되는 것이 광주사회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합리적으로 대화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송기석 위원 장관님, 전당의 이야기를 죽 들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송기석 위원 장관님은 어떤 방향으로 해결하실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그래서 지난번에 5·18 단체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가졌었는데, 조금 강경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오랫동안 이미 도청으로다가 사용하면서 그렇게 되어 있던 것을 사실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총탄 자국을 찾아내라 그러는데 우리가 민간 전문가들한테……

○송기석 위원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세요.

○위원장 유성엽 그러면 추가질의 안 하실 거예요? 추가질의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송기석 위원 일단 1분 더 주시면……

○위원장 유성엽 아니, 그거 결정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원만한 회의 마무리를 위해서……

○송기석 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까.

○위원장 유성엽 그러십시오. 이따 추가질의 하

시고요.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도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종환 위원 도종환 위원입니다.

문화재청장님, 개발의 논리와 보존의 가치는 늘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재청장 나선화 예, 그렇습니다.

○도종환 위원 이럴 때 문화재 보존의 최후 보루가 돼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문화재청장 나선화 문화재청입니다.

○도종환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문화재청이 개발 사업에 문화재 활용이라는 이름을 덧씌우면서 자기합리화를 하고 있으면 안 되겠지요?

○문화재청장 나선화 예.

○도종환 위원 문화재는 훼손되면 그걸로 끝이기 때문입니다.

반구대 암각화, 신라 왕경 복원사업, 설악산 케이블카사업 이 세 가지를 방금 말씀드린 관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반구대 암각화 관련해서 카이네틱댐사업 2013년에 추진할 때 당시 국회에서 이런 지적을 했었습니다.

첫째, 문화재는 실험 대상이 아니다. 둘째,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아니다. 셋째,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런데도 문화재청은 사업을 강행했어요.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문화재청장 나선화 실패했습니다.

○도종환 위원 투입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문화재청장 나선화 28억입니다.

○도종환 위원 104억 중에 28억이예요, 32억이예요?

○문화재청장 나선화 우선 자료 검증하는 데, 기초조사하는 데 16억이 들었고요. 현장의 실내 실험에 6억이 들었고, 실외조사에 10억이 들었습니다.

○도종환 위원 이렇게 낭비된 혈세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실 겁니까?

○문화재청장 나선화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는 검증을 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검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었기에 사용할 수밖에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도종환 위원 실패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실

거예요?

○**문화재청장 나선화** 실패를 한 걸 알아야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국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도종환 위원** 청장님, 향후 보존 대책……

○**문화재청장 나선화** ‘검증하겠습니다’라고 말씀 올렸습니다.

○**도종환 위원** 향후 보존대책 어떻게 할 건지 이것도 추후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장 나선화** 예, 위원회를 거쳐서 의견이 나오는 대로 중간보고 하겠습니다.

○**도종환 위원** 경주는 천년고도입니다. 세계 역사에 몇 개 안 되는 역사도시라고 아까 김석기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우리나라 도시 중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역사문화도시입니다. 제가 자주 가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신라 왕경 복원사업 관련해서 5월 11일 날 문화재위원회 보고가 있었는데 문화재위원회에서는 접수를 반려하고 사업계획을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렇지요?

○**문화재청장 나선화** 예.

○**도종환 위원** 회의록 보니까 심사위원들이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상당한 검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데 너무 조급하게, 너무 과도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정비와 복원에 초점을 맞춘 개발사업 계획으로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취소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어요. ‘마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짜듯이 했다. 관광대책은 문화재 보존과 충돌한다. 이는 개발로 가는 것인데 보존과 개발 사이에 어느 접점으로 갈 것인지 기준이 없다’ 이랬어요. 문화재청의 입장은 뭐니까?

○**문화재청장 나선화** 문화재청은 문화재를 훼손하거나, 복원하는 데 있어서 급작하게 시행을 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철저한……

○**도종환 위원** 위험에 처한 유산으로 분류되고 이게 무리하게 추진되다가……

○**문화재청장 나선화** 고증을 거쳐서 합니다.

○**도종환 위원** 잠깐만요.

무리하게 복원 추진하다가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 안 돼요. 그렇지요? 그래도 강행하실 겁니까?

○**문화재청장 나선화** 지금 저희는 세계문화유산 규정도 분명히 지킬 것이고요. 그리고 그 위원회에서는 자료를 좀 보완해서 기반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그래서 지금 반려받았습니다.

○**도종환 위원** 청장님, 이거 예산 얼마나 들어간 사업이에요?

○**문화재청장 나선화** 지금까지 예산은……

○**도종환 위원** 전체 예산 규모가 얼마나 돼요? 9400억, 1조 가까이 들어가지요?

이것은 기한을 정해 놓고 속도전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좀 더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복원하는 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동의하십니까?

○**문화재청장 나선화** 명심하겠습니다.

○**도종환 위원** 설악산 케이블카 관련해서 질의 하겠는데요.

설악산, 천연기념물이에요. 그렇지요? 천연기념물 171호예요. 설악산은 지정된 천연보호구역이에요.

○**문화재청장 나선화** 예, 그렇습니다.

○**도종환 위원** 거기에 산양 비롯한 천연기념물도 많아요.

○**문화재청장 나선화** 예.

○**도종환 위원**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인 경우에는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면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 받아야지요?

○**문화재청장 나선화** 예, 현상변경 허가를 거쳐야 합니다.

○**도종환 위원** 지금 1월에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 끝났는데, 알고 계십니까?

○**문화재청장 나선화** 아직 저희한테는 현상변경 허가서가 오지 않았습니다.

○**도종환 위원** 환경영향평가 본안이 접수되고 그에 대한 검토가 완료되어야지만 문화재위원회의 현상변경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문화재청장 나선화** 예.

○**도종환 위원** 1995년 설악산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려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케이블카, 호텔 건설 같은 관광개발 압력 때문이었어요. 기억하십니까?

○**문화재청장 나선화** 예.

○**도종환 위원** 또 설악산 케이블카사업은 1982년에 두 차례에 걸쳐 추진되다가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 부결시킨 바 있어요. 34년 전예요.

보다 엄격하고 신중한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영향평가를 통해서 문화재위원회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심의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장 나선화** 객관적이고 엄정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종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성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장우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장관님, 현 정부가 대선 당시 선거공약으로 공적개발원조를 확대하겠다고 한 것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이장우 위원 또 정부 출범 이후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이장우 위원 그러면 이에 대해서 문체부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제가 알기로는 ODA 사업이 그간에 조금씩 확대는 되어 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문체부는 그동안 현재 걸음마 단계인 공적개발원조에 대해서 대상자를 확대하고 또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협업을 한층 강화해서 대한민국만이 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문화 공적개발원조를 선도해 나간다고 보고를 한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러면 지금 ODA 사업 예산이 문화부는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그걸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이장우 위원 금년 4월 11일 날 5차 문화융성 위원회에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지시하셨지요. ‘그동안 우리의 국제개발협력이 확대되면서 올해는 약 2조 4394억 원에 달하지만 문화 분야 ODA는 올해 128억 원으로 매우 미비한 실정, 우리의 강점인 문화 콘텐츠, IT 기술을 기반으로 우리 문화의 전통을 찾아내서 개발하고 한국형 문화 ODA 모델을 개발하고 문화적 기여를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대통령 지시사항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ODA 현주소는 과연 어떤가?

첫째는 한국형 ODA 모델 수립 시에 문화 관련 부서가, 또 연구기관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이장우 위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문화영역사업 예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아주 영세합니다. 얼마 안 됩니다, 돈이.

또 세 번째는 한국형 ODA 모델 설계를 위한 최초 보고서에서 문화영역이 누락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전체 ODA 예산 규모 총 2조 1905억 원 중에 문화영역 ODA 예산은 133억밖에 안 됩니다.

장관님 잘 기억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전체 ODA 예산 중에 0.6%에 불과해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문화융성, 국제적으로 해외에 공적개발원조를 이 문화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겠느냐……

그런데 이 예산이 쪼끔쪼끔 늘어나요. 2013년에 68억, 2014년에 115억, 2015년에 122억, 2016년에 133억, 그러다 보니까 공적개발원조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특히 한류 확산 또 한국 문화에 대한 실질적인 공적개발원조를 통해서 대한민국 위상도 높일 수 있고 대한민국 문화도 전파하고 한류도 확산하는 이런 사업인데 정작 문화체육관광부가 제 역할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저희가 ODA 사업과 관련돼 갖고 사업을 더 활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모로 노력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장우 위원 더 노력한다기보다 한류의 문화를 세계화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그 책임을 다해야 된다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제적인 책임도 문화체육관광부가 모든 책임을 다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하고도 정말 제대로 좀 상의가 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관님 노력이 굉장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이장우 위원 또 박근혜정부의 어떤 공적개발원조 정책을 문화체육관광부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된다, 그래야 대통령 공약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나머지 부분은 서면질의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가 종료되었습니다.

지금 추가 질의를 희망하시는 위원님들이 다섯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정회 없이 바로 추가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정확하게 3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일정상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은 서면질의로 대체를 하시면서 시간을 지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맨 먼저 손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원 위원 3분밖에 없어서……

국립한글박물관, 1분 쓰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문화전당 그리고 전통문화대학교에 질문드리고요.

답변 못 해 주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한글박물관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면서 오늘 점심시간에 또 한 번 다녀왔습니다. 왜 박물관이라는 말을 굳이 한글에 쓰려고 하는지, 해례본도 하나 제대로 된 원본이 없는 데서 왜 박물관이라는 말로, 이 유물의 숫자로 서지학적인 가치만 갖고 박물관을 하려는지 그게 의문이 됩니다.

한글의 가치는 발명품으로서의 가치와 예술적 가치 그리고 과학적인 가치, 거기에 왕이 국민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15세기에 우리의 정체성을 위해서 왕이 직접 나서서 한글을 만든 그 정신으로 지금 같은 때 우리가 정체성을 만드는 데 그 한글의 가치와 세종의 가치를 한번 다시 생각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세계문자박물관은 뭔지 의문입니다. 한글박물관, 400억도 안 들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만 것같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세계문자박물관 1000억 들어간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게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시아문화전당, 지지난 주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건축적으로도 그렇고. 여기에 왜, 이 문화전당이 왜 광주에 있는지, 왜 ‘아시아’ 자가 들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주의 가치나 아시아적인 가치, 이 문

물이 들어 왔던 나주나 광주의 그 가치를 한번 봐 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예산이 얼마 들어가서 돈 먹는 뱀’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어떻게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광주 사람한테 돌려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정도 엄청난 건축을 하시고 너무 잘해 놔더라고요. 그렇게 해 놓고 그것을 누구 핑계대지 마시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만들어서 가치가 있는 곳으로 만들고 관광객들이 가장 첫 번째로 가야 될 곳으로 만들지를 한번 같이 머리를 짜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얼마든지 돕겠습니다.

그리고 전통문화대학교에 대해서 한번 제가 알아 봤습니다.

우리나라 전통공예나 전통문화를 살리려면 반드시 필요한 곳이 전통문화대학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졸업생의 취업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문화재청이나 박물관, 작가로서 활동하는 그런 졸업생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저한테 문서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관께 부탁드립니다.

이 문화라는 것은 한 사회를 변화시켜 온 인간의 노력입니다. 거기에 시간이 너무 중요한 노력입니다. 컬처(culture)라는 영어 단어는 컬티베이트(cultivate), 경작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단어를 갖고 말장난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화부장관으로서 여러분들께서 경작해 나갈 문화에 대한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질책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질의를 마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위원장 유성엽 아주 빠른 속도로 질의를 주셨는데요. 장관님, 여기서 답변하실 사항들은 답변을 주시고 또 서면으로 답변하실 부분들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존경하는 손혜원 위원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립한글박물관 같은 경우에 저도 위원님 말씀에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동의하고요.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전시 기능보다 연구 기능을 더 많이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 활성화돼서, 사실은 이것이 박물관이 아니고 연구소여야지 됐던 것 아닌가 저도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왕에 박물관으로 정해졌고 그것이 예산도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연구 역량을 더 키우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문자박물관에 대해서는 이것은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고 똑같이 저도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정말 잘 활성화돼서 실제 문화의 발신지로서의 역할을 하게끔, 그 역할을 하게끔 아시아 문화전당을 잘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지금 급한 시간, 빠른 시간 안에 전시물을 빨리 다 채워 넣는 게 대수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서 정말 이것이 훌륭한 가치를 갖는 그런 공간으로 변모하게끔, 또 그것이 창작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게끔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전통문화대학교 이 현황에 대해서는, 이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혜원 위원 예.

○위원장 유성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동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열 위원 너무 늦게까지 고생하시는데, 추가질의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지역발전신문기금, 지금 현재 5%밖에 안 남지 않았습니까? 매년 한 60억 70억이 드는데, 기재부에서 이것 예산 심의 중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동열 위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어차피 연장을 하기로 법에다가 정했기 때문에 그것은 지원이 될 겁니다.

○염동열 위원 그것 지속적으로 장관님께서 신경써 주셔서 지역신문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동열 위원 두 번째로, 지역신문발전기금하고 언론진흥기금하고 지금 통합하려고 하는데 문체부에서는 반대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염동열 위원 지속적으로 반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굉장히 열악해질 것 같아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가, 정부의 광고를 언론진흥재단에서 위임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습니다.

○염동열 위원 그런데 그 수수료를 지금 10%로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언론, 지역신문에서는 5% 낮춰 달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 좀 대체적으로 말씀을 주셔서 이것도 조정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동열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 위원 아까 질의 중간에 시간이 다 돼서, 제 기억으로는 장관님을 비롯해서 1·2차관까지 외부에서 오신 경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각별히 문화관광부, 문체부의 공무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각별히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한국문화관 이게 잠시 중단된 것 아닙니까? 곧 시작하실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습니다.

○전재수 위원 지자체 유치과열 경쟁 때문에 중단이 된 건데, 그만큼 원하는 곳이 많은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그렇습니다.

○전재수 위원 아주 좋은 일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전재수 위원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빨리 다시 시작을 해 주시되 이러한 문제가…… 이번에 신공항도 마찬가지로요, 애초에 김해공항 확장이 불가능하다 해서 검토됐던 것이 신공항인데 결론은 김해공항 확장이네요. 이것 안 되지요.

부처라는 것이 결국은 갈등을 관리하고 또 필

요할 경우에는 중재에 나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예.

○전재수 위원 그래서 이것은 빨리 가급적이면 진행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재수 위원 그렇게 하실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예, 그렇습니다.

○전재수 위원 그다음에 문화재청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시다.

위안부기록물, 유네스코, 있잖아요. ‘그게 민간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계속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관·민 경계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융합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관이 민간에 개입을 해 가지고 정말로 힘이 되어 주고 보탬이 된다면 법적으로 안 된다고 그러더라도 법을 개정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요즘은 경계가 없어지는 시대 아닙니까? 또 우리 행정도 또한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입장을 조금 더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규제프리존 많이 나왔습니다. 장관님, 이것 여야정 합의사항입니다. 꼭 지켜질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예.

○전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성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석 위원 장관님, 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하시겠다고 했는데, 물론 머리를 맞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2023년까지 법률에 의해서 5조 3000억 규모 즉 이렇게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데, 지금 2016년만 보더라도 15.6%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아까 줄어드는 사유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 2023년까지 간다 하더라도 한 30%도 집행 못 할 것 같아요. 이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떻게 할 건지 일단 말씀해 보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아까도 전당장이 보고드렸드시피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사실은 의도치 않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장

관으로서의 제 의지는 그렇게 만들어진 곳이 그렇게 예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게끔 할 것이고 또 5·18 단체 분들도 오셔 가지고 비슷한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빨리 뭔가 오픈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견해들이라든지 의견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진행하지는 말아 달라고 계속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관계돼 있는 모든 분들이 어느 정도 충분히 합의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것이 진행돼야지, 안 그러면 또 다른 종류의 갈등만 또 만들어 내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저희는 좀 하고 있습니다.

○송기석 위원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률에 이렇게 약속된 대로 예산 집행하시겠다 이 말씀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예, 그렇습니다.

○송기석 위원 혹시 세립이법 기억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예?

○송기석 위원 세립이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세립이법이요?

○송기석 위원 일명 세립이법, 잘 기억 못 하시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예.

○송기석 위원 대전에서 3살 어린이가 내렸는데 그 차 앞으로 지나가다가 그런 불행한 일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아, 예……

○송기석 위원 경찰청 단속건수 보니까 굉장히 우려할 만한 수준입니다. 내년 1월 달에 시행되게 되는데, 앞으로 이게 홍보라든가 단속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빨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재청장님, 우리 국보급 문화재 약 16만여 점이 지금 해외에서 떠돌고 있지요?

○문화재청장 나선화 예, 그렇습니다.

○송기석 위원 이것 좀 치밀하게 잘 계획 세우고 전문가도 만들어서 최대한 환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재청장 나선화 기본적인 것은 해외기관이 가지고 있는 것 정밀조사를 하고 있고요, 또 여러 민간단체하고 협업을 하고 있고 외국과의 수사공조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효율적으로 환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기석 위원 구체적으로 해서 진행상황 저희 사무실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장 나선화 보고 올리겠습니다.

○송기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성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도종환 간사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종환 위원 장관님, 지금 24개 지역에서 문학도시임을 표방하면서 신청을 했었는데 이 도시들이 다 정부에 등 돌리기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도종환 위원 지난번에 차관님이 발표하실 때 범국민적 공감대와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중장기 방안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잘 세워 주셔야 됩니다, 이것?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종환 위원 그리고 문학진흥기본계획은 차질 없이 지금 수립되고 있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습니다.

○도종환 위원 그 안에 지난번에 차관님께서 기자회견을 하실 때 발표하셨던 문학진흥 전담기구도 설립되는 것이 들어가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도종환 위원 어떤 위상의 기구를 만들 것인지를 지금 물어보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것도 좀 생각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보고서로 올리겠습니다.

○도종환 위원 문학 대중화 및 세계화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한강이라는 소설가가 맨부커상을 받은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문학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니까 이것을 놓치지 말고 잘 활용해서 세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종환 위원 지역문학관 활성화 지원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해 주시고요.

최근에 우리 문학을 대표하는 5개 단체, 펜클럽, 한국문인협회, 작가회의, 소설가협회, 시인협회 이 5개 단체가 ‘한국문학 진흥 및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공동준비위원회’를 조직했어요. 지난번에 이 단체 대표들도 만나신 적 있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습니다.

○도종환 위원 이 문인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듣

고 수렴하는 과정을 좀 거쳐서 좋은 방안을 찾아 주시는 것도 해결의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종환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사진은 심훈 선생 자필 원고예요. ‘그날이 오면’을 비롯해서 ‘조선은 술을 먹인다’ 등의 원고, 붉은 줄이 쳐 있고 삭제 도장이 찍혀 있는데 저것은 총독부에 검열을 넣었다가 총독부에서 찍은 것들이예요.

뒤로 죽 넘겨 주세요.

‘감옥에서 어머님께 올린 글월’ 이것은 국어교과서에 나오던 원고의 자필 원고입니다.

뒤로 넘겨 주세요.

‘오오, 조선의 남아여’는 1936년 베를린올림픽에서 손기정, 남승룡 선수의 우승을 보도한 당시 조선중앙일보 호외 뒷장에 쓴 시입니다.

워싱턴에서 사시는 심훈 선생 아드님을 제가 찾아가서 만났는데 심재호님께서 원고지 4000매 목록을 죽 정리해서 갖고 계시고요, 저렇게 지금까지 보관해 오셨어요. 저 원고들은 ‘상록수’라든가 ‘적녀성’이라든가 ‘영원의 미소’ 같은 소설 원고, 시나리오 원고, 영화대본 이런 것들이 원고지 4000매 분량인데 저것을 보관하고 계세요. 저것을 국가가 국립문학관을 만든다면 기증할 의사가 있다는데 문체부에서 받아 오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국립문학관이 정말 빛날 것 같습니다.

○도종환 위원 저런 것 때문에 우리가 국립문학관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개인이 끌어안고 있으면 저 원고들은 바스라집니다, 산화돼서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다만 저렇게 보존해 오신 것들을 국가가 어떻게 정신적으로 예우하고 저런 것을 어떻게 전시하고 활용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존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믿을 만한 대책이 있으면 기증하시겠다는 거예요. 정신적 예우, 물적 예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준비하자는 거예요.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세우고 그리고 직접 가서 예우를 해 드려야 되면 문화부가 직접 나서

고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많아요. 권태웅 선생님의 아드님도, 권태웅 선생님이라는 분은 충주 출신의 동시작가예요. ‘자주 꽃 핀 건 자주 감자, 파 보나마나 자주 감자’ 이런 동시를 쓰신 분인데 독립운동가세요. 아드님이 원고를 다 끌어안고 계세요. 이런 것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국가가 이래서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위원장 유성엽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석에 앉아 있어 보면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가는데 이렇게 위원장석에 앉아서 시계를 보면 시계가 참 더디게 가요. 그래서 충분히 시간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 매우 아쉽고 또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혹시 이제 추가질의까지 마치는 순간인데요, 내가 이 질의만은 꼭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및 각 소속기관의 업무보고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문화가 있는 날 운영의 내실화, 지방의 문화향유권 확보,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공모에 따른 갈등, 외래 관광객 유치에 위한 다양한 소재 개발, 코리아 둘레길 조성,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지원,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 사후 활용방안, 반구대 암각화 보존 등에 대해 적절한 지적과 고견을 주셨습니다.

아울러 문예기금 재원 확보 및 문화재청 2% 달성과 위안부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한 문화재청장, 소속기관장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하셔서 보고된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문화, 체육, 관광 등 모든 분야에서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박경미 위원, 유은혜 위

원, 이동섭 위원, 조훈현 위원, 강길부 위원,곽상도 위원, 김민기 위원, 김병욱 위원, 전재수 위원, 도종환 위원, 이장우 위원, 이은재 위원, 송기석 위원님께서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은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6월 30일은 오전 10시에 제4차 전체회의를 개의하여 교육부 소관 8개 산하기관 및 4개 유관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종덕 장관님, 정관주·김종 차관님, 나선화 청장님 또 열아홉 분의 소속기관장님 등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또 소속기관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2분 산회)

소위원회 구성

소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교육 법안심사 (10인)	◎이장우 곽상도 이은재 이종배 전희경	새누리당(5)
	도종환 박경미 신동근 유은혜	더불어민주당(4)
	송기석	국민의당(1)
문화체육 관광법안 심사 (10인)	이장우 곽상도 김석기 염동열 조훈현	새누리당(5)
	◎도종환 김민기 김병욱 노웅래	더불어민주당(4)
	이동섭	국민의당(1)
예산결산 기금심사 (9인)	강길부 김세연 이은재 이종배	새누리당(4)
	손혜원 오영훈 전재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4)
	◎송기석	국민의당(1)
청원심사 (6인)	◎염동열 나경원 이정현	새누리당(3)
	안민석 손혜원	더불어민주당(2)
	안철수	국민의당(1)

◎표시는 소위원장임

○출석 위원(26인)

강길부	곽상도	김민기	김병욱	해외문화홍보원장	김갑수
김석기	김세연	나경원	노웅래	국립국악원장	김해숙
도종환	박경미	손혜원	송기석	국립민속박물관장	천진기
염동열	오영훈	유성엽	유은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김용직
이동섭	이은재	이장우	이정현	국립한글박물관장	김철민
이종배	전재수	전희경	조승래	국립중앙극장장	안호상
조훈현	한선교			국립현대미술관장	비르토메우라디리스
○청가 위원(3인)				한국정책방송원장	류현순
신동근	안민석	안철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방선규
○출석 전문위원				대한민국예술원장	전병극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문화재청	
전문위원		박기영		청장	나선화
전문위원		김건오		기획조정관	박영근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문화재정책국장	이경훈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보존국장	김홍동
장관	김종덕		문화재활용국장	김대현	
제1차관	정관주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김재열	
제2차관	김종근		국립문화재연구소장	최맹식	
기획조정실장	송수영		국립고궁박물관장	최종덕	
문화예술정책실장	박영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	이귀영	
문화콘텐츠산업실장	윤태용		국립무형유산원장	강경환	
총무실장	원용기				
체육정책실장	김재원				
관광정책실장	황명선				
국민소통실장	유동훈				
대변인	최병구				
감사관	현완교				
정책기획관직무대리	공형식				
비상안전기획관	박영오				
문화정책관	이형호				
예술정책관	우상일				
문화기반정책관	문영호				
콘텐츠정책관	최보근				
저작권정책관	박태영				
미디어정책관	한민호				
체육정책관	심동섭				
체육협력관	김영수				
관광정책관	김태훈				
국제관광정책관	이우성				
홍보정책관	박정렬				
홍보콘텐츠기획관	이계현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김봉렬				
국립중앙박물관장	이영훈				
국립국어원장	송철의				
국립중앙도서관장	임원선				